

김안락기념관 소식지 제6호

# 恩光衍世

은 광 연 세

제6호







## 관람안내

관람시간 09 - 18시(매표 마감, 오후 5시)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 람 료 무료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2층 나눔체험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관안내

기본시설

교육관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sup>2</sup>, 무대면적 28.22m<sup>2</sup>

오전, 오후, 야간 기준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 촬영, TV촬영, 영화 촬영

※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찾아오시는길

버스 (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간선 315

지선 426, 431, 432, 465, 466



**김만덕기념관**

주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





## 제호설명

###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楮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 때 김만덕의 후손에게 써준 편액 문구입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제호입니다.

## 표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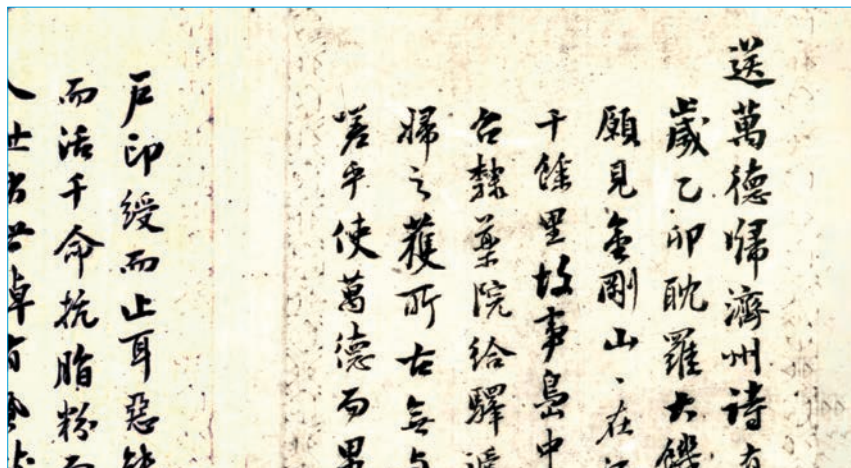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한다. 정조는 어진을 3번 그렸고 어진화사에 김홍도가 있어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 어진이었다. 그 어진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옮겨졌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 화성행궁 옆 회령전에 모셔졌던 군복차림의 어진은 일제강점기 때 창덕궁으로 옮기던 중 분실되었다. 현재 회령전에 모신 표준영정 42호 어진은 이길범 화백이 다시 그렸다.

# 恩光衍世

은 광 연 세

제6호

## From The Editor



##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박제가는 개혁을 통해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부가 축적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특히 상업이 주가 되어서 농업, 공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에 대한 천대와 편견을 자제할 것, 농업기술의 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상업적 농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만덕은 상업으로 부자가 되고 굶주린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으니 실학자 박제가에 게는 자신이 꿈꾸었던 개혁의 결과를 실제로 증명해 주어 기쁘고 감사했을 것이다. 그가 추사 김정희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치고 흥선 대원군에게 맥을 이었다. 그가 직접 쓴 친필, 게다가 김만덕에게 써준 글을 처음 보았을 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인쇄된 활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의 기개와 김만덕에 대한 마음과 서로 작별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듯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김만덕기념관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마스크 없이 생활하고 정담을 나누는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아득하다. 세한의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라는 구절은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뜻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며 나에게 세한은 언제였고 송백과 같은 벗이 있나 물어본다.

김만덕소식지 편집을 마치며 '지극히 천한 퇴비와 지푸라기라도 밭에서 곡식을 기르고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글을 잘 보면 어찌 백에 하나라도 쓸 만한 것이 없겠는가?'(성호 이억) 이 말씀으로 부족함에 대한 위안을 삼는다.





## From The Editor | 1

위기를 넘기는 제주정신

## 차 례 | 2

## 발간사 | 4

(재)김만덕재단 이사장 양 원 찬

## 축 사 |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구 만 섭

## Cover Story | 7

정조와 실학자들이 감동한 김만덕

정조의 화성건설과 제주도 구휼

김만덕을 기록한 관찰사료

조선시대 의료제도

채제공의 조선후기 경제개혁

김만덕, 채제공을 만나다

김만덕, 실학자와 함께 하다

이가환,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

박제가,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정약용, 중동변·만덕,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 얻다

추사 김정희 '실사구시' 실학계승

## 김만덕의 제주·한양·금강산 대장정 종합 | 57

제주 1796년 7월 28일 - 11월 24일 한양

출륙, 한양, 금강산 그리고 귀향

모든 길은 한양으로 통한다

남해, 생명의 터전이자 건널 수 없는 장벽

김만덕, 금강산 유람

배 타고 찾아간 김만덕기념관 - 문기덕



## 김만덕과 동행 | 77

김만덕기념사업 이야기 - 양원찬

은광연세 - 김옥선

김만덕기념관 활동 인터뷰 -김상훈

## 2021주요행사 | 93

제42회 만덕제

김만덕상 시상식

비대면 김만덕주간 프로그램

양상철 초대전 - 제주에 살다

정상기 초대전 -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

제6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2021 김만덕 나눔 작은 그림전

<따뜻한 마음>

## 학술 |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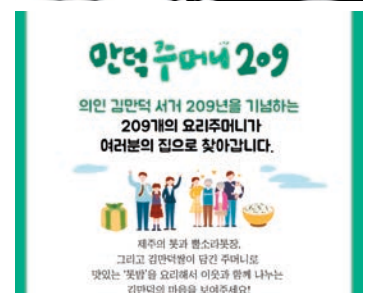
김만덕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후원 · 기탁 | 107

'김만덕 사랑의 쌀' 후원자 명단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김만덕 사랑의 쌀' 기탁





## 발 간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安寧)’이라는 단어가 ‘의례히 건네는 흔한 인사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진심을 담은 인사말’이라는 것이 새삼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속에서도 더디지만 조금씩 ‘평범한 일상’이라는 소중한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상황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을 닮아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6호를 발간하며 여러분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6호를 통해 김만덕기념관의 지난 활동과 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도전정신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알리고 이웃과 나누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만덕재단 또한 지금까지 그 래왔던 것처럼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김만덕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애정으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김만덕의 정신과 선행이 시공간을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김만덕기념관이 제주를 물론,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재)김만덕재단 이사장 양 원 찬



##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제6호가 발간되어 무척 기쁩니다.

소식지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재)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님과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이자, 나눔과 베품의 표상인 의인(義人)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김만덕재단의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은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일구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증유의 위기를 이겨내는 공존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전례 없는 기근으로 굶주린 제주인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 구휼했던 김만덕의 나눔사랑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귀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소식지 '은광연세'가 이웃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김만덕을 기억하고,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만덕기념관이 김만덕 정신을 세계인과 공유하고, 나눔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여는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정은 그늘진 곳에 나눔의 빛을 비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 제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구만성



##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은 전 세계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으로서 의로움과 베품의 상징인 '김만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상설전시실>, <나눔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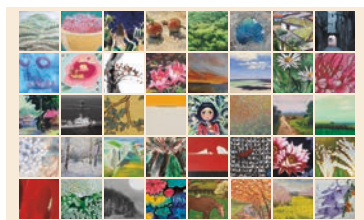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 상설전시실 운영



- 김만덕 관련 유물 및 자료 전시
- 나눔문화 전시실 운영

### 기획 전시



- 국내외 유명 작가 초청 기획 전시
- 나눔 기부로 이어지는 전시

### 사랑의 쌀 나눔



- 김만덕 사랑의 쌀 후원
- 제주도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단체에 쌀 나눔

### 나눔 교육프로그램



- 유아·청소년, 가족 맞춤형 나눔 프로그램
- 유명 강사의 나눔 특강

### 김만덕주간행사



-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시상식
- 김만덕나눔주간 행사

###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 나눔 공모전(학생부·일반부)
- 시민참여 전시회

### 김만덕정신 계승사업



- 학생·일반인 대상 만덕학교
- 어르신을 위한 장수호도 사진
-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학교, 경로당 등

### 청년·청소년 봉사활동



- 지역 복지단체와 연계한 봉사단 지원
- 자연보호 활동
- 복지시설 방문 봉사

### 학술 연구



- 김만덕 관련 학술 연구 및 서적 출판
- 유아·어린이 나눔교재 개발 및 발간



김만덕을 기록한 실학자

## 정조와 실학자들이 감동한 김만덕

김만덕을 기록에 남긴 정조대의 문신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실학자였다. 그들이 왜 김만덕에게 감동을 하여 시와 전을 지어 후대에 남기고 싶어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어수문을 들어가면 2층 누각인 주합루와 규장각으로 쓰인 건물이 있다. 이곳은 정조의 정책개발과 개혁정치, 문예부흥의 산실로서,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하던 공간이다.





## 정조의 화성건설과 제주도의 구휼

1793년 - 1796년 화성을 건설하던 시기에 종단을 고려할 정도로 제주도는 3년 동안 극심한 흉년을 겪었다. 마침내 성을 완공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제주도민의 굶주림도 벗어나 화성 신평루와 관덕정에서는 '기쁨의 쌀나눔'이 이루어졌다.



정조는 스스로 '온 백성을 비추는 달'이라고 했다. 그 바람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에는 오늘날에도 가족과 젊은이들이 보름달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위안을 받고 있다.

차비대령 행수의녀의 벼슬을 받은 김만덕은 1797년(정조 21) 정월에 정조의 원행에 앞서 내려온 채제공을 수행하여 이곳 화성과 여주를 다녀갔다는 것을 변암집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한 백성이 굶어 죽더라도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씩의 식사를 줄이  
겠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차마 제주도의 백성들을 속이겠는가?”

### 화성 축성

정조는 1793년(정조 17) 12월 6일 화성 축성을 지시하면서 채제공을 화성성역의 총리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이듬해 1월 7일부터 돌뜨기를 시작하고 정조가 축성 현장을 순시하고 고유제를 지내며 시작되었다. 화성 축성은 공사 기간 10년, 비용을 25만 냥으로 예상하였지만, 백성들의 부역으로 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정조는 백성 한사람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철저히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87만 냥으로 늘었다.

축성 시작 직전인 1793년(정조 17)은 극심한 흉년이었고 1794년(정조 18) 역시 흉년이였다. 정조는 그해 10

월 19일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참배하고 그 자리에서 축성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채제공은 축성중단 이후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팔도에서 모은 일꾼들을 지금 돌려보낸다면 다시 모으기 어렵고 자원하여 공사에 나와 입에 풀칠하는 백성들에게는 명줄에 관계됩니다. 축성공사도 흉년을 구제하는 한 가지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득하여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1796년 9월 10일 화성 축성이 끝났다.

정조가 화성축성을 중단하려는 결심한 데는 굶어 죽는 백성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도 때문이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은 역사기록인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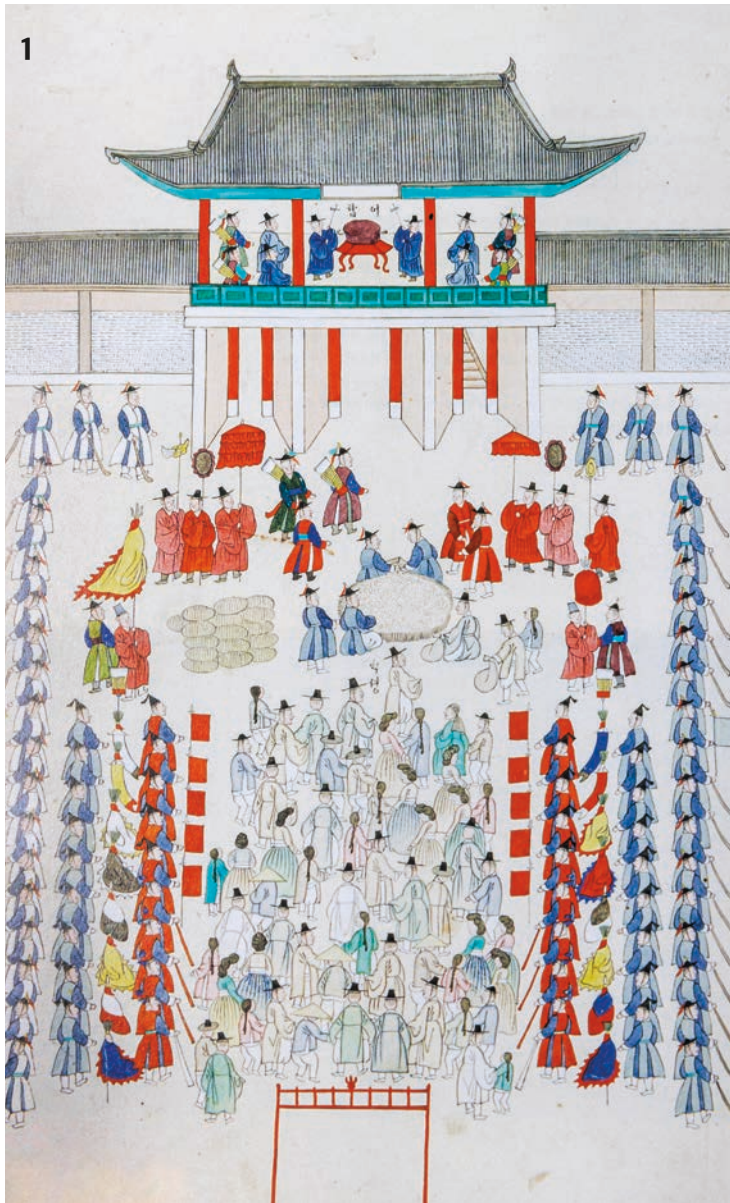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에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고, 원래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 오면서 관청으로 건립되었다. 정조가 머무는 행궁으로도 사용했다.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이고 1795년 해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에서 치르기 위해 새로 건물을 지어 1796년 전체 600여 칸 규모로 완공되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고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포부가 담긴 정치 및 경제 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조 18년(1794년)에 축성공사를 시작, 2년 뒤인 1796년에 완공했으며 정약용이 성을 설계하였다.





### 1. 3 신평루와 사미도

1795년 을묘년 수원행차 마지막 날 아침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장면. 2층 누각에 행사를 직접 관장한 정조의 어좌가 있다.

### 2. 5 봉수당과 혜경궁 홍씨 진찬 모형

1795년 윤2월 13일 정조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잔치가 봉수당 뜰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 4 외정리아문

외정리소는 국왕의 행사에 드는 비용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주도 구휼에 사용할 1만 냥을 조달하였다.





#### 6 정조의 수라상

정조는 굶어죽는 백성이 있으면 한 끼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 하루 두 번만 식사를 했다.

#### 7 봉수당 정조의 처소

유어택은 신하를 접견하던 장소였다. 주부자시에도 병풍은 단원 김홍도가 정조를 위해 주자의 시를 그림으로 그려 진상한 것이고 항상 곁에 두고 보았다.

#### 8 윤한각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건물이다. 정조 어진은 1954년 부산에서 소실되고 2004년 그린 표준 영정이다.

성록,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관찬사료(官纂史料)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3년동안 지속된 극심한 흉년

거듭되는 흉년으로 삼남 지방의 창고가 텅 빌 정도로 제주로 구휼곡(救恤穀)을 보냈지만 아사자(餓死者)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795년(정조 19) 윤2월 3일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마련한 1만 명을 구휼할 곡식을 실은 전운선(傳運船) 5척이 파선하였다는 소식은 굶주림이 절정에 달한 제주도민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고 조정은 속수무책이었다.

정조는 “만약 한 백성이 굶어 죽더라도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씩의 식사를 줄이겠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차마 제주도의 백성들을 속이겠는가?” 하며 화성 축성에 사용할 정리소의 돈 1만 냥을 내어 현금으로 곡식을 구매하여 급히 제주도로 내려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 제주도 인구 6만 3천 여명 중 1만 8천 여명이 사망

정조는 대정 출신 봉상시 부봉사 변경봉을 친히 불러 제주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실상을 물어보고 구휼곡의 운반과 제주도민의 출륙금지령을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지시하였지만 제주목사 이우현은 출륙금지령을 해제했을 때 부작용 등의 명분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다.

새로 마련한 곡식이 도착하기 전에 많은 희생을 피할 수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주 판관 조경일, 대정 현감 고한록, 정의 현감 홍상호와 노기(老妓) 김만덕이 배를 육지로 보내 곡식을 구해 왔지만, 제주, 대정, 정의 백성 62,698명 중 28.6%인 17,963명이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만약 변경봉의 제안대로 구휼곡을 싣고 온 배에 제주도민을 실어 육지로 내보냈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 목사 이우현은 진흙에 협조한 고한록, 홍삼필, 양섬범에게 상을 주길 청했지만 김만덕은 제외하였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공을 인정받아 승전까지 하였다. 1796년(정



조 20) 1월 15일 정조는 생색내기 구휼이 발각되고 사망자 수에 대한 자수를 하였더라도 이우현 목사의 승전을 취소하고 경상도 의성으로 귀양을 보냈다.

#### 면천은 필요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젊고 전도유망한 문관인 후임 제주 목사 유사모는 1796년(정조 20) 6월 6일 장계에 전 목사 이우현이 인계한 대장을 일일이 대조하여 “노기 만덕은 사리상 진실로 구할 것이 없는 데도 재물을 가볍게 여길 줄 아니, 비천한 무리가 더욱 능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김만덕이 평소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이 이웃에 대한 선행을 꾸준히 해왔으며 백미 60섬을 관에 원납한 문서를 밝혀냈지만 직접 가족과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김만덕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만덕의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소원은 섬에 갇혀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겪은 제주도민 모두의 절규이자 바람이었다.

#### 수원 화성행궁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에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고, 원래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 오면서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정조가 수원에 내려오면 머무는 행궁으로도 사용했다. 수원도호부를 화성 유수부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이고 1795년 해경궁 홍씨

의 회갑연을 화성에서 치르기 위해 새로 건물을 지어 1796년 전체 600여 칸 규모로 완공되었다.

화성행궁은 전국에 조성한 행궁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으며 건립당시의 모습이 <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에 그림으로 남아 있다. 1911년 일제에 의해 병원과 경찰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파괴되어 낙남헌과 노래당만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발굴조사 자료와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화성행궁 우화관과 별주 발굴조사와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신평루(新豊樓)

화성행궁의 정문은 진남루(鎭南樓)로 부르다가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면서 신평루로 바꿨다. 신평루는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인 풍패(豐沛)에서 따온 이름으로 제왕의 고향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서 화성을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건물은 2층의 누각 구조로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쓰고 위층에는 큰 북을 두어 군사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했다. 물루 좌우에는 행랑을 두었고 양쪽 끝에는 군영을 배치하여 경호 체제를 갖췄다.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때 신평루에서 수원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베풀었는데, 당시의 행사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다.



## 제주도 구휼 및 김만덕에 관한 관찬사료 목록

### 『영조실록』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25일  
제주·경기·함경 등에 역질  
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3월 6일  
제주 백성을 불러 진정의 득실을 묻다

### 『정조실록』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3월 2일  
심낙수를 특별히 제주 목사로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3일  
전운선 5척이 파선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2월 14일  
정리소의 돈 1만 냥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5월 11일  
제주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0월 2일  
탐라의 진휼에 관한 일로 하교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내탕전 1만 민(緡)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섬 안에서 분진한 내용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15일  
1만 명 이상의 호구가 감축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3일  
곡식 운반 배가 도착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16일  
돈과 목면 등을 보내다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3일  
전라 관찰사 서정수 상소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6월 6일  
제주에 기민 진휼을 마친 논상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25일  
만덕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했다는  
보고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  
금강산 구경, 양곡과 돈을 지급 명  
하다  
정조 20년 11월 25일  
진휼청, 만덕에게 월 쌀 1석과 금전  
5냥을 지급  
정조 20년 11월 28일  
서준보의 만덕전이 삼상을 맞아  
수석

###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8일(기미)  
전라 감사 이서구 장계  
정조 19년 을묘(1795) 3월 10일(신유)  
제주 목사 이우현 장계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1일(신사)  
제주 목사 이우현 조용(調用)  
정조 19년 을묘(1795) 4월 28일(무신)  
전라 감사 이서구 장계  
정조 19년 을묘(1795) 5월 11일(신유)  
고한록, 홍삼필, 양성범 시상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3일(경술)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9일(병진)  
전라 감사 서정수 장계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제주 목사 이우현 장계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제주에 사창(社倉) 설치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2일(기미)  
탐라 도민 출륙(耽羅島民出陸)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5일(임술)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유배형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19일(병인)  
탐라의 호구(戶口)와 백성 수  
정조 20년 병진(1796) 6월 6일(경진)  
제주 목사 유사모 장계  
정조 20년 병진(1796) 7월 28일(신미)  
만덕을 육지로 내보냈다는 장계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4일(을축)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5일(병인)  
만덕을 행수 의녀로 충원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8일(기사)  
초계 문신에게 친시(親試)

### 『원행을돌정리의궤』

정조 20년 8월 간의 화성원행을 기록  
제주도 진휼에 대한 사항

### 김만덕재단 발행

<개정판 김만덕 자료총서II> 수록.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로드 할 수 있습니다.



## &lt;일성록&gt;

정조 20년 병진(1796) 7월 28일(신미)

제주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노기(老妓) 만덕(萬德)을 본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내보내 주었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의기(義氣)를 발휘하여 진흥을 도왔으므로 두 고을의 수령 중에 빈자리가 나면 의망(擬望)하고, 노기 만덕은 기민(饑民)을 진흥하고 부족한 것을 구제하는 데 특별히 수고하였으니 바라는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유지(有旨)의 내용을 홍삼필과 만덕에게 반시(頒示)하니 만덕의 소고(所告)에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免賤)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에 연유를 급히 장계합니다.” 하였다.

二十八日 未時  
召見諸承旨于誠正閣  
持公事入侍也  
命景慕宮勅駕時以提戎使領軍  
承旨金熙朝啓言拜明日 景慕宮舉動時御營  
廳爲隨駕當次而設營大將李漢豐方有實故勢  
難舉行敕以提戎使領軍  
命呂原府使趙家錫改左以趙宅鎮代之也  
吏曹啓言慶尚監司李泰永狀啓以爲呂原府使  
趙家錫與金海府使李身家爲四寸姊妹之間雖  
丙辰七月  
曰兼鎮自在應避金海既是兼營將而呂原爲其  
管下邑法當相避云矣請呂原府使依法典改左  
允之敕以本邑素稱難治口傳各別擇差待下批  
一兩日內下送後單記  
黃海監司徐邁修疏陳病狀乞連藩任賜批不許  
疏畧曰臣之冒據重寄已過其歲一無猷爲徒費  
厚廩且臣之所患在痼疾海隅風土病根益痼  
以此情病雖欲勉勵其勢未由伏乞聖命鑒過批  
以秋務方殷決非道伯言私之時卿其勿辭察任  
吏曹奏議蔡弘遠疏陳父病乞連本職賜批仍命牌  
招  
疏畧曰臣之蒙駭愚魯我殿下涓拂借闥門恩  
祝益知警懼適者天官佐貳特授之命忽降於夢  
想之外驚惶震懼不知措躬且臣久決月患病氣  
息綿綴左右扶持不可暫捨伏乞聖慈亟命改正  
臣所叨之職批以爾其勿辭先出肅波救護又教  
以吏曹奏議疏批已下即爲牌招  
濟州牧使柳師模以老妓萬德依願出陸馳啓  
該牧使狀啓以爲前地將洪三弼出義補賑而邑  
守令中待窳擬望老妓萬德調饒濟之別救酬勞  
丙辰七月  
依願施行事命下矣臣謹將有旨內辭意頒示洪  
三弼及萬德虔則萬德所告內渠年老無子果無  
免賤之心只有出陸之願依其願許令出陸緣由  
馳啓  
人宜直提學事 李晚勇 檢書官 鄭世





유지(有旨) :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서사(書寫)하고 보인(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送付)한다. 하지만 유지는 담당 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여 주는 중요한 왕명서이다.

반시(頒示) : 법령 등을 세상에 널리 퍼서 알림. 여기서는 유지를 자세하게 설명.





二十四日<sup>北</sup>  
召見時原任大臣子便殿<sup>左議政蔡濟恭判敦寧金</sup>  
著<sup>政尹</sup>  
予曰昨夜以卿等勿入來之意使承旨詳報卿等  
想領會予意此事果是何等至重至大吉慶歡欣  
之事君臣上下從容相議可陳請時陳請可行禮  
時行禮下宜有強請上宜或相持他事猶不可作  
外面人事況此莫重之事乎始待來初之教予意  
有在昨昨年亞歲卿等之陳請也予以明年固好再  
明年亦好愈久愈好為言予意蓋以遲之又久為  
祈天永命之本且此後慈宮寶壽日隆歲慶  
運以予喜懼之心隨事不欲張大徐待諸慶咸湊  
之年合行而無舉豈不尤好耶左議政蔡濟恭曰  
聖教之下不敢更煩仰請謹當更俟來初矣予曰  
來初雖未必準許當有亞於此之道今日則更勿  
張皇為說可也濟恭曰上下酬酢已移數時而元  
子端坐如植不一遊目小學之工已成矣臣不勝  
欽仰予曰三更後始就寢未明已盥梳拜跪應對  
便已成習非予教之也即我朝家法也夫為學入  
德之門莫先於小學而近聞士夫家小兒無讀小

言身後將何有謚狀行錄乎非為對卿等而言也  
年位高者最勝矣予曰韓用龜慶分卿等以為如  
何著東曰用龜事誠極駭然而以今番所犯論之  
臣誠惶恐慶分似或過中矣予曰卿尚未知用龜  
本末乎傳教既曰不索諭今何更諭而蓋其自初  
罪犯專在心跡之間年前詎惠之教欲使渠少知  
懲艾而難化者質易經者心予所深惡而嚴處豈  
但為今番事而發也予則以為罪一用龜可以革  
一世之汚習如疎濶之吏判亦為用龜所賣將不  
免無限狼狽故以招降納反黨同伐異四字欲書  
於慶分傳教中而還置之使承旨報于吏判矣問  
其地慶分則近臣切姻者為數三人必多稱冤者而  
在予之前則聲討不遺餘力此果誠心乎卿則以  
慶分過中為言予實感歎矣濟恭曰耽羅妓捐財  
賑民不願受賞不願免賤願一觀玉城仍入金剛  
山有沒願之命繞上來而適值極寒徬徨旅邸未  
見臣泣訴渠雖賤類其義可尚其情可憫分付有  
司另加顧恤似好矣予曰耽羅人之朝家軫恤視  
他道尤別渠以一賤妓出義捐財助賑窮民已極  
可嘉聞其所願亦不碌碌既已上來之後何可使



**<일성록>****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4일(을축)**

편전(便殿)에서 시원임 대신들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다.

(전략) 채제공이 아뢰기를,

“탐라(耽羅)의 기녀가 재물을 내어 백성을 구휼하였는데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왕성(王城)을 한번 구경한 다음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기를 원한 데 대해, 소원대로 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기녀가 막 올라왔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여관에서 방황하다 신에게 와서 울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그가 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의리가 가상하고 정상이 불쌍하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탐라 사람들에 대해 조정에서 염려하는 것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특별하다. 그가 천한 기생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도와 준 일만도 아주 가상하였고 소원을 들으니 역시 평범하지 않았는데, 이미 올라온 뒤에 어찌 길거리에서 굶주림을 호소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에서 그에게 다시 물어 만일 내년 봄까지 머무른 뒤 금강산에 내려가고 싶어 하면 구경하며 즐길 수 있게 한 뒤 양식을 주고 배를 태워 본향에 보내도록 해서 만물을 제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음이 없음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일성록>

#### 정조 20년 병진(1796) 11월 25일(병인)

제주(濟州)의 기녀(妓女) 만덕(萬德)을 내의원의 차비 대령(差備待令)인 행수 의녀(行首醫女)로 충원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沿路)에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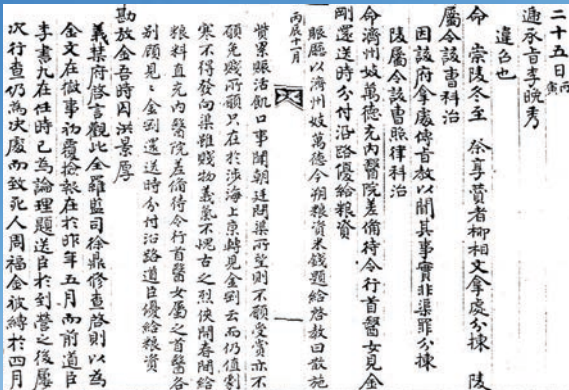
○ 진휼청이 제주의 기녀 만덕에게 이달의 양식과 경비로 쓸 쌀과 돈을 제급(題給)해 주는 것으로 아뢰어, 전교하기를,

“많은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해 살렸는데 그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에게 소원을 물으니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와 보고 그 길에 금강산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였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출발할 수 없었다. 그가 비록 천인(賤人)이기는 하지만 의로운 기상은 옛날의 정의로운 헐객에 부끄럽지 않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주고 곧바로 내의원의 차비 대령인 행수 의녀로 충원하고 수의(首醫)에게 소속시켜 각별히 돌봐 주도록 하라. 그리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 하였다.





창덕궁 내의원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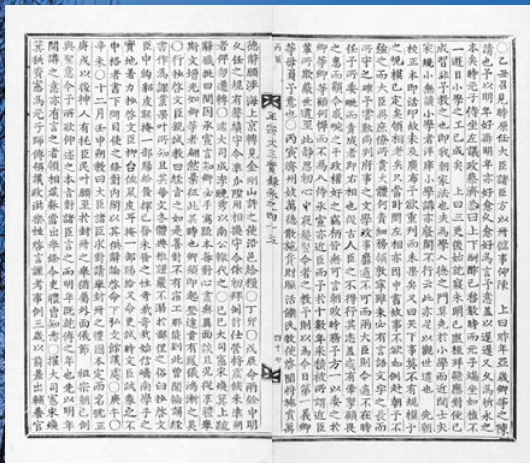
## 정조 20년 병진(1796) 6월 6일(경진)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진흙을 마친 것에 대해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녹봉을 덜어 진흙에 보탠 수령과 원납(願納)한 섬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 백급(白給)을 19차 시행하였는데 토지가 없는 기민이 3,635구이고, 별진(別賑)을 1차 시행하였는데 사궁(四窮)의 백성과 폐질(廢疾)에 걸린 백성이 2,352구입니다. 각 곡물이 3,244섬 6말 6되 남짓인데, 그중에 백미는 463섬 3말 4되 남짓이고, 정조는 986섬 5말 8되 남짓이고, 피모는 1,794섬 12말 2되 남짓입니다. 백미 146섬 7말 7되 남짓, 정조 148섬 4말 2되 남짓, 피모 122섬 2말 3되하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송해 온 것입니다. 피모 1,356섬 11말 1되하는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별비(別備)한 것입니다. 백미 256섬 10말 6되 남짓, 정조 38섬 1말 6되, 피모 315섬 13말 8되 남짓은 전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자비(自備)한 것입니다. 정조 500섬은 전 판관 조경일(趙敬日)이 자비한 것입니다. 백미 60섬은 노기 만덕이 원납한 것입니다. 정조 300섬은 전 순장 홍삼필이 원납한 것입니다. 염(鹽) 126섬 10말 1되하는 전 목사 이우현이 자비한 것입니다









**<정조실록>****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6월 6일 경진 1번째기사 1796년****제주에 기민 진휼을 마친 판관·현감 등을 논상하다**

제주에 기민 진휼을 실시하였다. 을묘년 10월에 진휼을 시작하여 이 해 4월에 끝마쳤다.【세 고을의 기민 5만 1천 3백 3명에, 소요된 곡식은 3만 5천 1백 23석이었다.】이 일을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계문하니, 제주 판관 조경일(趙敬日)은 논상(論賞)하고,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은 승품하여 서용하고, 정의 현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에게는 아마(兒馬)를 하사하고, 진휼을 보조한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도중의 두 고을 수령 중에서 한 곳에 차송하라고 명하였다.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25일 병인 1번째기사 1796년****제주의 기생 만덕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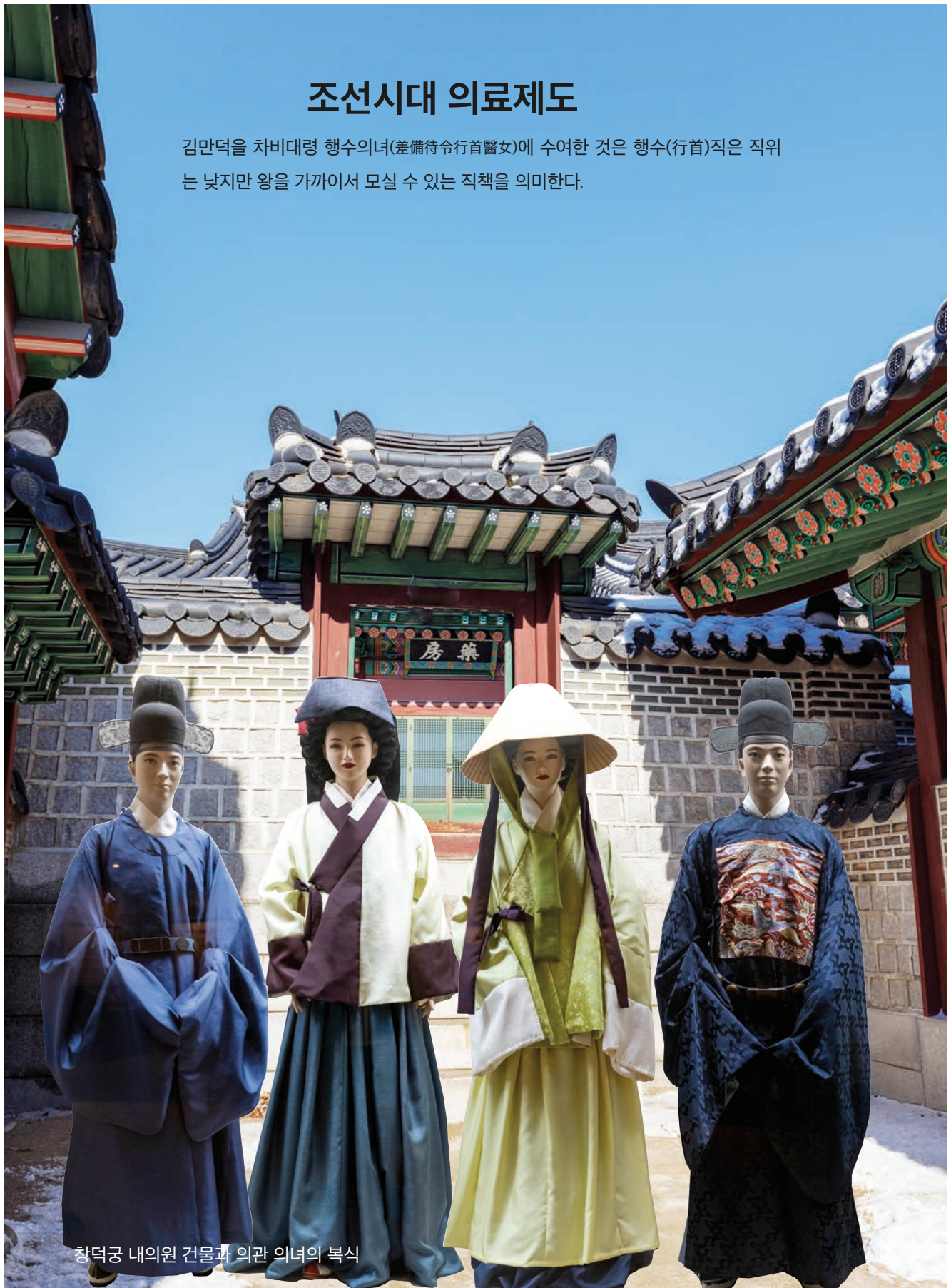
제주(濟州)의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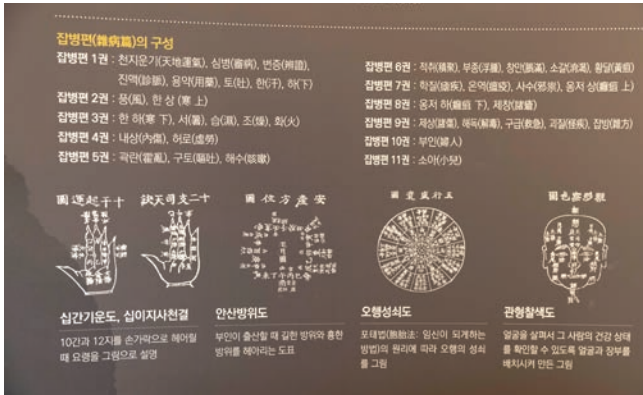
## 조선시대 의료제도

김만덕을 차비대령 행수의녀(差備待令行首醫女)에 수여한 것은 행수(行首)직은 직위는 낮지만 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직책을 의미한다.



창덕궁 내의원 건물과 의관 의녀의 복식





## 의관과 의녀

조선시대 의관은 과거시험에서 잡과를 통해 선발하였다. 의과의 시험은 11과목이고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8품, 2등 정9품, 3등 종9품의 관직이 주어졌다. 시험에 응시할 의원의 교육은 주로 전의감에서 이루어졌다. 초기 의관선발에 양반의 자제도 있었으나 점차 의과를 잡학(雜學)이라 하여 기피하게 되고 중인 출신들이 응시하였다.

의녀제도는 1406년(태종 6)에 허도의 건의로 실시하였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양반 부녀자들이 병이 생겨도 남자 의원에게 진료 받기를 꺼려하여 치료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의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관아의 여종인 관비(官婢)였고 제생원(혜민서)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내용은 의학의 기본적인 과목과 산부인과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의녀의 교육을 위한 법까지 제정하였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특히 부녀자에 대한 의료 기술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의녀는 남색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었으며 옷고름에는 침통을 찼다. 또한 노란색 치마를 덧입었으며 머리에는 흑단 가리마를 사용하였다. 교육을 이수한 성적에 따라 내의, 간병의, 초학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간병의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보인 2명을 선택하여 내의녀(內醫女)로 임명하고 궁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왕비나 대비 등 왕실 여성의 질병 치료에 종사하게 하였다.

## 왕실의 의료기관

왕실에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 재생원 등의 의료기가 있었다. 이 가운데 내의원, 전의원, 혜민서를 삼의사(三醫司)라고 하며 조선시대 왕실 의료기구의 근간으로 삼았다. 내의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약청, 의약청, 산실청 등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시약청은 국왕이 병이 들었을 때 설치하는 임시기구로 약물을 담당. 시약청은 병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의관과 선비의원들의 지침에 따라 투약이 이루어졌다.

의관이 직책을 하여 처방을 마련하면 왕이 이를 최종결정 하였고 병이 낫거나 숨지면 해제되었다. 의약청은 치료제 의 옹고 그림을 상의하는 책임을 맡은 기관이었다. 산실청은 왕자나 왕손이 탄생할 때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병이 완치되거나 무사히 해산하면 모두가 큰 상을 받았다.

### 내의원(內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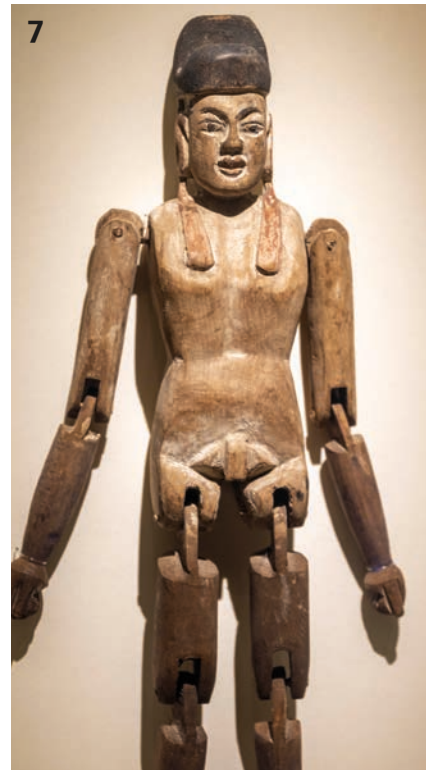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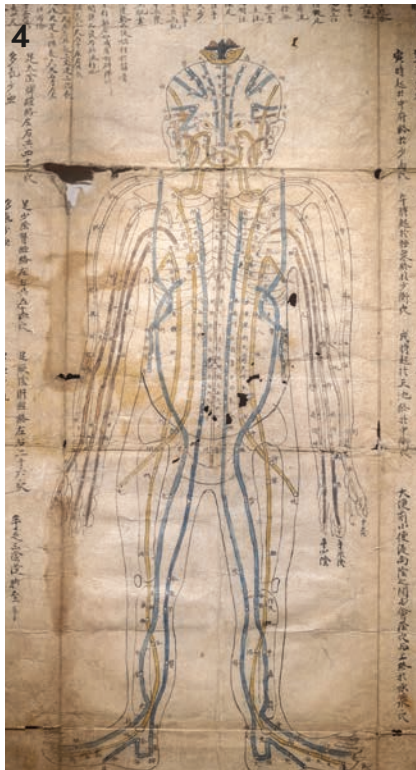
내의원은 조선 초기에는 내약방이라고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성격으로 변모되면서 1443년(세종 25)에 내의원으로 이

름을 바꿨다.

내의원의 주된 업은 국왕과 왕실 구성원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내의원 근무 관원으로는 도제조, 제조, 부제조 등 각 1명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였다.

정(正 정3품), 첨정(僉正 종4품), 판관(判官 종5품), 주부(主簿 종6품) 등과 직장(直長 종7품), 봉사(奉事 종8품), 부봉사(副奉事 종8품), 참봉(參奉 종9품) 등이 있었다.

내의원에는 차비대령 의녀(差備待令 醫女)와 내의녀가 구분되었는데, 『속대전』에 따르면 차비대령의녀는 10명이며



1 한약 소화제인 영신환 상자. 2 어의가 임금을 치료하는 모습 3 약재를 연구하는 허준. 4 최한기의 저술 5. 동의 보감 6 독극물 보관함과 대장 7 나무로 만든 인체 모형. 최한기 집안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의료용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의녀는 1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내의원에 속하였지만 차비대령의녀만이 왕실의 진료에 참여하였다.

내의녀는 진료를 하지 않고 내의원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차비대령의녀를 보좌하고 궁녀, 나인 등을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비대령의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의녀는 행수의녀(行首醫女)로 불렸는데, 내의원의 수의(首醫 정2품, 당상(堂上) 의관인 어의(御醫) 중 최고 책임자)와 같은 의미였다.

후대에 의료인 숫자가 늘어 침의와 의녀 22명을 두었다.

#### 전의학(典醫監)

의료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의료기관. 왕실 및 관료들의 진료, 의약·약재의 재배, 의원을 선발하는 과거를 관장하였다.

#### 혜민서(惠民署)

일반 백성들의 진료와 각 도에서 선발된 의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

도성에 사는 백성들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 성 밖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식물 등도 공급한 의료기관 및 구제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 치종청(治腫廳)

외과적 치료를 담당했던 외과치료 전문의료기관. 외과전문 의사인 치종위가 여기에서 종기를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경기감영 앞의 약국

조선시대의 한의원인 ‘약방’이라 불리면서 일반 백성들의 진료를 담당했다. 국가에서 백성들을 위해 설치한 혜민서, 활인서 등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경기감영도(보물 제1394)를 보면 지금의 서대문 사거리 부근에서 보이는 건물인데 벽에 흰 칠을 하고 신설약국, 만병회춘이라는 간판을 써넣은 약방들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서민들이 쉽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주(濟州) 기녀(妓) 만덕(萬德)을

#### 내의원의 차비대령(差備待令)인 행수의녀(行首醫女)로 충원

김만덕은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강추위를 만나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음을 채제공이 보고하자 정조는 비변사에 명하여 김만덕에게 머물 장소와 식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행수의녀에 충원하여 금강산을 구경하고 제주도로 되돌아갈 때 양식과 경비를 주게 하라는 내용의 <일성록> 1796년(정조 20) 11월 25일 기록이다.

채제공은 영조 때 내의원제조를 지낸 적이 있어서 김만덕에게 행수의녀직을 내리면 궁궐을 출입하여 임금의 알현과 내전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료들에게 김만덕의 선행을 파악하고 알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김만덕에게 지급될 비용을 배정할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김만덕에 대한 예우에 대해 부심했다는 것을 박제가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아아! 만덕이 남자였더라면 3품의 관복을 입고 만호(종3품)의 인끈을 차게 하는 데 그쳤을 뿐이리니, 어찌 능히 세상에 전해졌을 것인가?”

#### 차비대령 행수의녀 김만덕

일반적으로 차비관(差備官)은 특별 임무를 위해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을 의미한다. 차비대령 의녀는 왕이나 왕실 식구의 병환에 대비하기 위해 대령하는 의녀를 말한다. 차비대령 의녀는 의학 지식이나 경험 면에서 내의녀보다 한 단계 위였다. 실력을 갖추었다 해서 누구나 차비대령 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어의녀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어의녀를 수의녀(首醫女)라 했다. 김만덕에게 차비대령 행수의녀(差備待令 行首醫女)를 수여한 것은 행수(行首)직은 직위는 낮지만 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직책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김만덕이 한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처와 음식, 역마를 이용해서 금강산을 보내고 배에 태워 제주도로 귀향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벼슬이 필요했다.

정조는 비록 의술로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나눔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김만덕을 정의롭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강한 뜻의 열협(烈俠)이라고 칭하고 그에 걸맞은 최대한의 예우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채제공의 조선후기 경제개혁

저자의 백성들에게 육전(六廩) 이외에서도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육전은 입전(立廩)·면포전(綿布廩)·면주전(綿紬廩)·포전(布廩)·저전(紵廩)·지전(紙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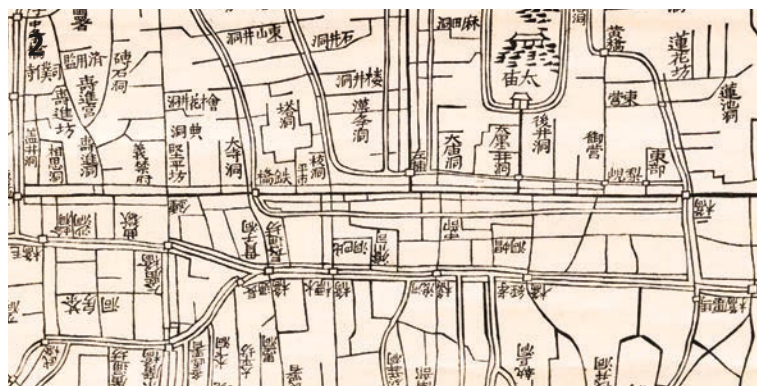
죽두리 시전상인의  
세금징수 수세패

### 신해통공과 상업 육성

1778년(정조 2) 채제공은 정사의 자격으로 북경을 방문했다. 이때 신진 관리였던 박제가와 이덕무가 수행했다. 채제공은 청나라의 상업이 크게 번성한 것을 보고 “지금 종루(종로)의 북쪽 거리를 확장하고 나란하게 정비하여 시장 사람들이 각자의 상호와 판매하는 물품을 써 붙인다. 흥인문(동대문)에서 숭례문까지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북학의 내편, 시정. 박제가)

당시 상업계의 최대 문제는 시전과 난전의 대립이었다. 한양의 시전상인은 난전을 막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금난전권(禁亂廩權)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독점권의 대가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국역(상세, 책판, 잡역)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했다.

그러나 1630년대 30여 개에 불과한 시전이 18세기 말 120 곳에 달하고 이들이 모두 금난전권을 남발하여 영세 상인



#### 1 조선시대의 상업 유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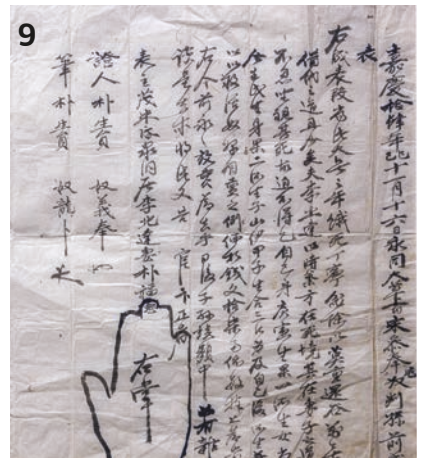
중국과 교역을 하는 안상, 평양 유상, 한강 수운을 통해 한양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강 상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시전 상인, 일본과 교역한 내상 등이 있다.

#### 2 종로 시전

종루를 중심으로 곡식, 의류, 소금, 철물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 상시 운영되었다.

#### 3 조선시대의 한강 포구





#### 4 - 8 김홍도의 풍속화

농사, 장시, 어로, 주막, 대장간

9 스스로 노비가 된 문서

조선시대 가혹한 세금과 군역을 피하기 위해 노비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양반층은 토지가 늘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이 증가했다. 터전을 상실하고 한양에 몰려들어 임노동자가 되었다.

과 소상품 생산자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시전의 전매 품은 독점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여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41년(영조 17) 이보혁이 통공 발매론을 제기하였으며 1787년(정조 11) 정미통공이 다시 발의되었으나 시전상인의 강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1791년(정조 15) 1월에 정조는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좌의정 채제공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육의전(비단, 무명, 명주, 삼베, 모시, 종이 판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것이었다. 채제공은 금난전권의 폐단으로 소상공인과 소상공 생산자들이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유통구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 극심한 물가고로 인해 백성의 생활이 궁핍하게 된 점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이내에 설립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여 자

유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강을 무대로 하는 강상(江商 대동미 운수업 및 각종 상업 활동에 종사했던 상인)과 도고(都賈 상인들의 도매 기관)를 근절하였다. 자본력이 우월한 상인들이 상품 판매를 독점하여 유통구조가 마비되는 문제점은 시전상인과 같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다산시문집 번용유사’에서 신해통공이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육대전(육의전)이 국역에 응하기 때문에 이익을 독차지하게 한 것인데 요즈음은 한량들이 스스로 전호를 차리고 민생의 일상용품을 전매하여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백성들이 물품을 매매하면 난전이라고 몰아서 법률로 다스려 재화를 몰수한다. 따라서 먼 지방의 행상이 원가에 못미치게 팔 수 밖에 없고 한양의 백성은 비싼 값에 사야 하는 현실이다.





신해통공이 실행되자 시전상인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채제공에게 원망과 저주가 별떼같이 일어났다. 모든 백성들이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였으나 법을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물화가 모여들어 일용품이 넉넉해졌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전에 원망하던 자들도 공의 주의(奏議 신하가 왕에게 올린 상소)가 훌륭하였다고 했다.

## 조선사회의 개혁과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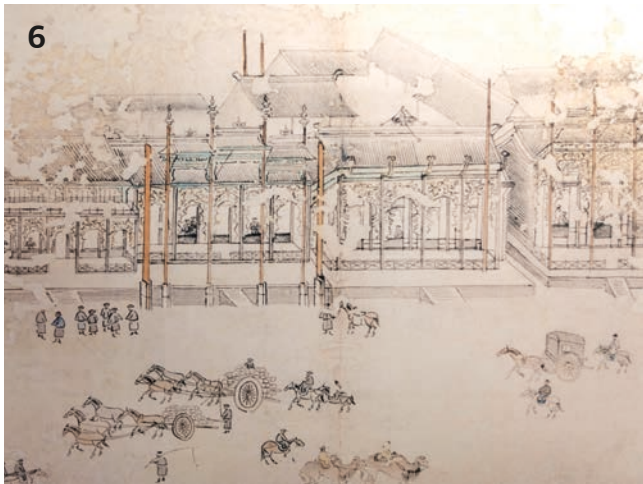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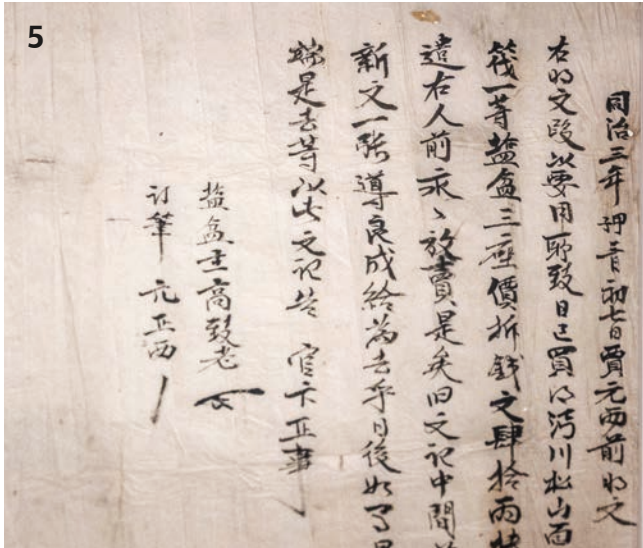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1592-1598)으로 인구가 최소 100만 명 이상 감소하고 경작지는 151만결이었으나 30만결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토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소출이 이루어지기까지 식량과 소를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수취제도의 개혁을 하였다. 조선의 부세는 전세, 공물, 요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공물의 부담이 제일 무거웠다. 공물 부담을 전세(田稅)로 돌린 개혁이 대동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양인에게만 부과하던 군역(軍役)의 일부도 전세로 돌렸다. 이것이 균역법(均役法)이다.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은 상품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18세기 전후 1천여 곳에 5일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상업기관으로서 보부상과 객주 및 여각이 출현하였다. 정주 상업은 서울과 개성의 시전(市廛 상설 가게)에만 있었으나 신해통공 이후 평양, 대구, 전주, 수원, 통영 등 지방 행정중심지에도 시전이 등장하여 지역 물산이 집결하고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임진왜란 당시 드넓은 남해를 왕래하던 유능한 격군을 비롯해 수많은 장정이 군역을 위해 제주도를 떠나야 했다. 제주에 식량을 공급하던 남해안 지역이 전쟁으로 막혀 생계조차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육지에서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지만 쌀과 면화가 생산되지 않는 제주도





- |                   |               |
|-------------------|---------------|
| 1 조선시대의 화폐와 은의 유통 | 4 김만덕 객주      |
| 2 상업통보의 의미        | 5 조선시대 매매 계약서 |
| 3 조선시대 객주 거래대장    | 6 중국 연경의 시전   |

에서는 해택을 볼 수 없었으며, 제주도 남성들의 출륙으로 해안을 방어할 인력이 부족하여 여성들도 군역을 담당하여 여정(女丁 여군)이 제주도를 지켜내야만 했다.

선조 34년(1601) 김상헌이 안무어사로 제주에 왔을 때 지은 여행일기인 ‘남사록’에 “본주의 성안의 남정은 5백이고, 여정은 8백이다. 남정이 매우 귀하여 만악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건강한 부녀자를 골라 성위에 세워 여정이라고 한다.”고 기록이 남아있다.

인조 7년(1629) 결국 제주에 출륙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이르렀다. 국법으로 관청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 사람들은 200년 가

까이 섬 안에 갇혀 폐쇄된 생활을 해야 했다. 제주를 출발하는 배에 실을 수 없도록 한 품목은 여인, 소, 말, 전죽(箭竹 이대), 목제품 등으로 배가 출항할 때 진장이 수색하고 배를 타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행허가서인 출선기(出船記)를 발급하였다.

이런 법적 제약으로 제주사회는 더욱 고립되었고 경제적으로 빈곤과 기아,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중앙관리와 토호들의 가렴주구, 흉년과 부역, 왜구 출몰 등의 악순환이 이루어졌다.

출륙 수단이었던 선박의 건조를 금지하고 연안에서 어로 작업조차 금하였다. 과거 남해안을 건너 동남아를 넘나들던 제주배인 ‘덕판배’를 건조한 우수한 조선기술을 묵히고 뗏목인 ‘태우’로 낙후된 어로작업을 해야 했다.

일부 공인된 상인들만이 진상품 수송과 육지로부터 쌀, 소금 등의 수입을 전담하는 교역이 제한적으로 이어졌다.

### 김만덕의 상업활동

신해통공의 개혁이 한양에서 단기간에 효력을 발휘하여 조선사회는 전국적 유통망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육상과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도로를 중심으로 장시와 장시를 연결한 보부상과 해안의 포구에 새롭게 객주가 상품 유통의 거점이 되고 각 지역의 상선들에 의해 해상물류가 이루어졌다. 4면이 바다이고 육지와 거래에 필수적인 해상 수송에 참여하는 선박이 늘고 선단이 구성되어 제주에서 강진, 서해안 항로를 경유하여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많은 물량을 조선 최대의 시장인 한양까지 신속한 수송이 가능해져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제주의 특산물인 미역, 진주, 전복 등 건어물, 공출하고 남은 꿀, 유자 등 농산물, 한라산에서 자란 각종 약재, 모자, 양태, 망건, 빗, 골패 등이 높은 가격을 받고 전국으로 공급하고 제주에서 필요한 곡물과 일상용품이 대량으로 들어와 형성된 자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생산기반을 늘려나갔다.

김만덕(1739-1812)은 육지의 각 포구에 새롭게 형성된 객주와 여각과 신용을 쌓아 유통망을 구축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객주로 성장하였다.

## 김만덕, 채제공을 만나다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본관이 평강(平康)으로 정조 때 명재상이다.

만덕전을 지어 그의 문집인 '번암집'에 수록하였다. 김만덕에 대한 교과서적인 작품으로 후대 선비들이 인용하였으며, 각종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물로 재탄생하고 있다.



### 채제공의 성품

타인의 단점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았다. 예법을 세밀하게 알아 정확하게 사리를 밝히고 득실을 따졌으며, 늙어서도 어릴 때와 같이 행동 거지가 무겁고 걸음걸이가 평안하여 법도에 맞았다. 그 외에 집안의 살림을 보면 집은 검소하여 거처하는 곳에는 해 지거나 기운 돛자리 하나와 요를 퍼두었고 배게 가에 오직 오래된 책상과 깨진 벼루 하나만 있을 따름이요, 서적이 좌우에 쌓였지만 책을 정돈하는 것에 힘쓰지 않았다고 한다. 부부간에 정이 두터워 먼저 사별한 부인 동복 오씨의 제사에는 생선과 과일 등을 일일이 배정하고, 외가 기일에도 한결같이 태부인의 법도에 따라 제수를 빠트림 없이 갖추어 손수 봉하여 보냈다고 한다.

### 번암집 어정범례(樊巖集 <御定凡例>)

정조는 채제공의 문집인 '번암집' 원고의 편차를 정해 주었다. 1799년(정조 24) 1월에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 해 가을에 문인인 이가환과 정약용 등이 유고를 교정하였다. 이듬해 정조는 번암집 편집과 간행에 큰 관심을 갖고 유고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직접 문집의 범례를 지어 주며 편집하는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임금이 신하의 문집에 범례를 제정해 준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채제공에 대한 정조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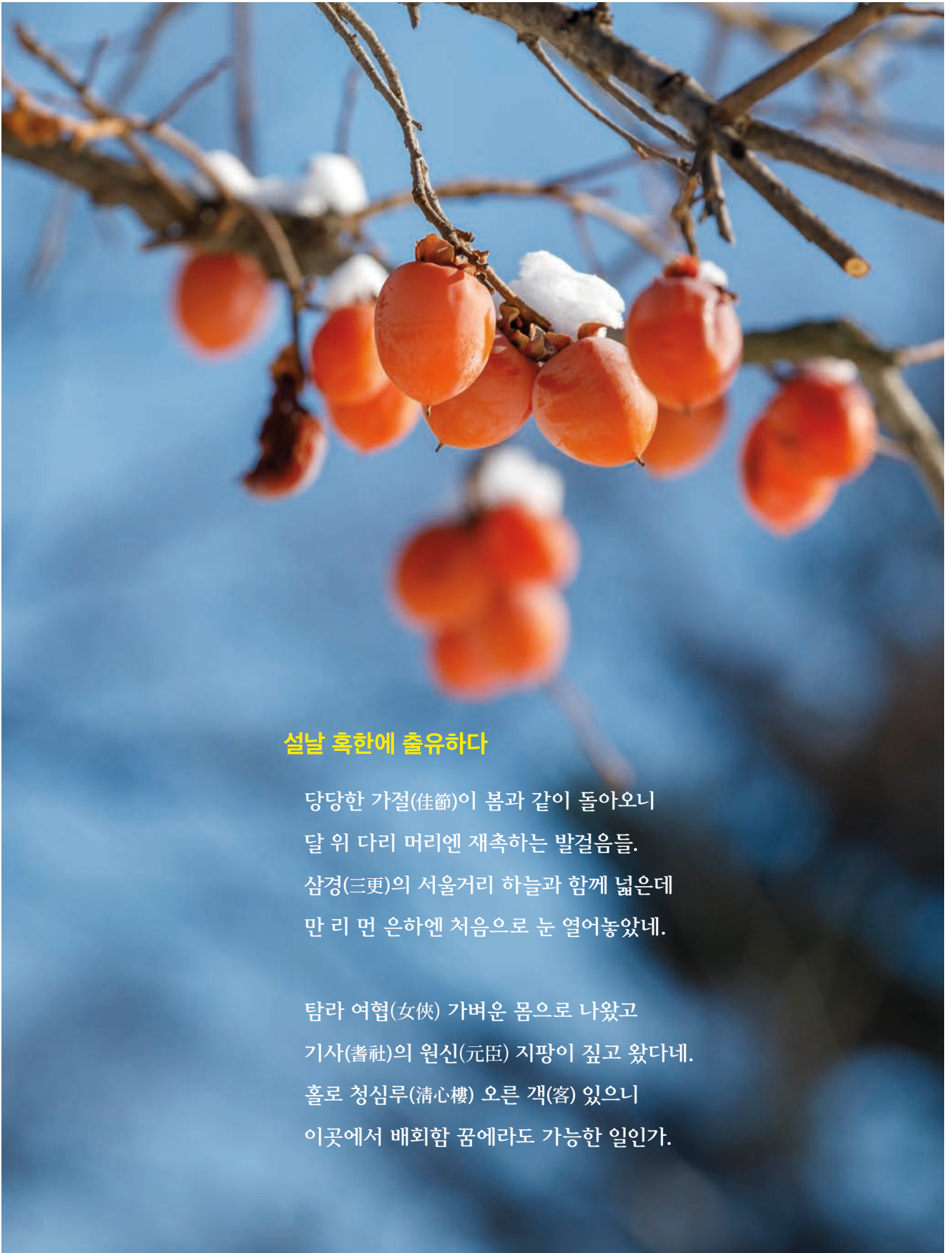
### 채제공 사후 20년만에 번암집 간행

‘번암집’은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801년 서학관련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채제공의 관직이 추탈당하면서 간행되지 못하였다. 1823년 영남만민소로 관직이 회복되자 안동에서 목판으로 ‘번암집’을 간행하였다. 채제공 문집은 정조가 문집의 범례를 정해준 지 24년 만에 안동 봉정사의 간행소에서 1824년(순조 24) 간행될 수 있었다.

###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

채제공은 김만덕의 상경 이후 금강산 유람을 주선하여, 제주로 귀향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었다.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는 시는 ‘번암집’ 권19에 수록되어있다. 1797년(정조 21) 정월, 정조는 현릉원(顯隆園) 원행 행렬을 수행하기에 연로한 채제공을 앞서 내려가 있도록 하였다. 화성과 여주를 돌아보는데 김만덕과 동행하였고, 여주 청심루에서 지은 시와 김만덕에 대해 소서(小序)에 내용을 담았다. 이 여정에서 채제공은 김만덕의 어린 시절과 사업수완, 성품 등을 두루 겪어보고 만덕전을 지어준 것으로 보인다.





###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

당당한 가절(佳節)이 봄과 같이 돌아오니  
달 위 다리 머리엔 재촉하는 발걸음들.  
삼경(三更)의 서울거리 하늘과 함께 넓은데  
만 리 먼 은하엔 처음으로 눈 열어놓았네.

탐라 여협(女俠) 가벼운 몸으로 나왔고  
기사(耆社)의 원신(元臣) 지팡이 짚고 왔다네.  
홀로 청심루(淸心樓) 오른 객(客) 있으니  
이곳에서 배회함 꿈에라도 가능한 일인가.

## 설날 혹은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

(전략) 상원(上元)<sup>1</sup>일은 구름이 끼고 달이 보이지 않아서 문을 닫고 쓸쓸하고 적막하였고, 16일 밤에는 구름이 다 걷히어 월색(月色)은 심히 밝았다.

시랑(侍郎) 공회(公會), 권승선(權承宣) 동야(東野), 최승선(崔承宣) 치회(稚晦), 이검토(李檢討) 사흥(士興) 등이 혜연(惠然)<sup>2</sup>히 찾아왔다. 서로 더불어 십자(十字) 거리에 나가서 걸으면서 소요(逍遙)<sup>3</sup>하니 닭이 몇 번 울었다. 이에 돌아와 여주목사(驪州牧使) 황사술(黃士述)을 생각하였다.

당당한 가절(佳節)<sup>4</sup>이 봄과 같이 돌아오니  
달 위 다리 머리엔 재촉하는 발걸음들.  
삼경(三更)<sup>5</sup>의 서울거리 하늘과 함께 넓은데  
만 리 먼 은하엔 처음으로 눈 열어놓았네.

탐라 여협(女俠)<sup>6</sup> 가벼운 몸으로 나왔고  
기사(耆社)<sup>7</sup>의 원신(元臣)<sup>8</sup> 지팡이 짚고 왔다네.  
홀로 청심루(淸心樓)<sup>9</sup> 오른 객(客) 있으니  
이곳에서 배회함 꿈에라도 가능한 일인가.

탐라의 기생 만덕(萬德)이 천금(千金)을 내놓아 주린 백성을 진휼(賑恤)<sup>10</sup>하였다. 성상께서

1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대보름날.

2 혜연(惠然) : 따르는 모양. 순한 모양. 호의를 표시하는 모양. (馬瑞辰通釋)此詩惠而猶惠然也 惠亦當爲順 惠然謂順貌也

3 소요(逍遙) : 한가롭게 거닐.

4 가절(佳節) : 경사스러운 날. 좋은 명절.

5 삼경(三更) :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6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7 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 조선 때 연로(年老)한 임금이나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을 예우하기 위하여 마련한 곳. 이곳 '영수각(靈壽閣)'에는 그들의 초상을 걸어 두었음.

8 원신(元臣) : 대신. 중신(重臣).

9 청심루(淸心樓) : 경기도 여주(驪州)의 객관(客館) 북쪽에 있던 누각. 고려 때 세운 것으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주열(朱悅)·이곡(李穀)·이색(李穡)·한수(韓脩)·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 고려시대 문신과 조선시대의 서거정(徐居正)·최숙정(崔淑精)·김종직(金宗直)·신용개(申用溉) 등 수많은 문인 학자들이 시를 지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1945년 소실되었다.

10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듣고 가상하게 여겨 수신(守臣)<sup>11</sup>에게 명하여 원하는 것을 물어 시행하게 하니, 기생이 대답하기를 “다른 것은 원하는 것이 없고 다만 상도(上都)<sup>12</sup>를 보고 곧바로 금강산(金剛山)을 보는 것이 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수신이 이를 듣고 특별히 허락하였다. 이에 기생은 바다를 건너 경사(京師)<sup>13</sup>에 들어왔다. 이로써 밤에 다리를 밟았고, 또한 들으니 수상(首相)도 또한 십자거리에 외출하였는데 금년에 80이 된다고 해서 아울러 그것을 기록하여 승평(昇平)<sup>14</sup>의 사실을 보충하려 한다.



정수영(鄭遂榮 1743-1831) 한임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卷) 여주읍치 부분.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일제에 의해 여주 청심루와 객사는 훼손되고 그 자리에 여주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 11 수신(守臣) :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 수령(守令).
- 12 상도(上都) : 서울.
- 13 경사(京師) : 서울.
- 14 승평(昇平) : 해가 오르는 것과 같이 번영하는 태평 세대의 뜻.

## 채제공 김만덕을 기록에 남기다

‘만덕전’은 권55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전은 1797년(정조 21) 6월 제주로 돌아가는 김만덕에게 지어서 전해준 것이다. 조선의 재상이 살아있는 제주 여협 김만덕에게 전을 지어준 것은 조선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채제공은 2년 후인 1799년(정조 23) 80세로 별세했다. 김만덕은 제주도로 돌아온 지 15년이 지난 1812년(순조 12) 출륙금지령이 해제된 제주도에서 73세로 생을 마감했다.

## 채제공(蔡濟恭) 「만덕전(萬德傳)」

『번암집(樊巖集)』 권55

### 만덕전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sup>15</sup>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sup>16</sup>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

지 몇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우리 임금 19년 을묘년(乙卯年)<sup>17</sup>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sup>18</sup>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부황(浮黃)<sup>19</sup>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청마당에 모여 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sup>20</sup>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라고 했다.

진흙이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 하고 회유(回諭)<sup>21</sup>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함이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올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하라’하

15 탐라(耽羅) : 제주의 옛 이름.

16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

17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18 북 : 피륙을 잘 때 씨실의 꾸리를 넣는, 베를 부속품의 하나.

19 부황(浮黃) : 오랫동안 굶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20 완급(緩急) : 위급함의 느림과 빠름.

21 회유(回諭) : 회답하는 임금의 유지(諭旨)



여 관가에서 노수(路需)<sup>22</sup>와 역마(驛馬)<sup>23</sup>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 병진년(丙辰年)<sup>24</sup>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蔡相國)<sup>25</sup>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쭙어서 선혜청(宣惠廳)<sup>26</sup>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러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sup>27</sup> 의녀(醫女)<sup>28</sup>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sup>29</sup>에 두었다. 만덕은 이전에 있던 사례에 의하여 궁궐 안에 있는 문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sup>30</sup>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 여자로서 의기(義氣)<sup>31</sup>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특한 일이다.”

그리고 상사(賞賜)<sup>32</sup>한 것이 많았다. 그러지 반 년만인

정사년(丁巳年)<sup>33</sup>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sup>34</sup>·중향성(衆香城)<sup>35</sup>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쉰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령(雁門嶺)<sup>36</sup>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sup>37</sup>를 거쳐 고성(高城)<sup>38</sup>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sup>39</sup>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 충석정(叢石亭)<sup>40</sup>에 올라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원(內院)<sup>41</sup>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

22 노수(路需) : 노자(路資). 여비.

23 역마(驛馬) : 포마(鋪馬). 역참에 준비되어 있는 말. 정조실록(정조 20년 11월 25일)에서는 김만덕이 상경한 후 금강산 갈 때 제공하라고 명함.

24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25 채상국(蔡相國) :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상국’은 영의정 및 좌·우의정의 총칭.

26 선혜청(宣惠廳) : 조선 때 대동법(大同法)이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관청.

27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28 의녀(醫女) : 조선 때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던 여자 의원(醫員)

29 반수(班首) : 우두머리.

30 여시(女侍) :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내전(內殿)을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의 총칭.

31 의기(義氣) :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개.

32 상사(賞賜) : 공로·선행(善行)을 기려서 금품을 내려 줌

33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34 만폭동(萬瀑洞) : 금강대 아래 원통굴에서 내륙 깊숙이 마하연이 있는 백운동 입구로부터 약 17km에 이르는 구간. 수많은 담소와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늘어서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유명함.

35 중향성(衆香城) : 내금강(內金剛)의 영랑봉(永郎峰) 동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하얀 바위섬.

36 안문령(雁門嶺) :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오는 고개.

37 유점사(楡岾寺) : 외금강의 구룡연(九龍淵)을 지나 청룡산과 남산 사이에 있음.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당(四溟堂), 그리고 처영대사(處英大師)가 승병을 일으켰던 근거지이기도 하며, 유명한 금강 53불이 봉안되어 있기도 함.

38 고성(高城)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지금의 고성군. 북은 통천군, 동은 동해, 남은 양양, 서는 회양, 서북부는 태백산맥이 뻗어 험준한 산지, 동남부는 완경사를 이룸. 이 지역에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등의 경승지 및 온정리 온천과 명승고적이 많음.

39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둘레는 8km, 물 깊이는 9~13m에 이름. 사선정(四仙亭)·단서암(丹書巖) 등이 있고, 호수 풍경으로는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꼽힘.

40 통천(通川) 충석정(叢石亭) :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통천의 관동 8경의 하나이며, 약 1천 미터 구간에 6각(혹은 8각, 4각, 5각) 모가 반듯하고 곧게 선 돌기둥의 무리임. 바위에 구멍이 뚫린 천도를 비롯하여 입총(立叢, 서 있는 것)·좌총(坐叢, 앉은 것)·와총(臥叢, 누운 것) 등의 기암괴석이 무수함. 입총 가운데 큰 것은 높이가 12~20m에 이름.

41 내원(內院) : 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궁궐 안의 궁실(宮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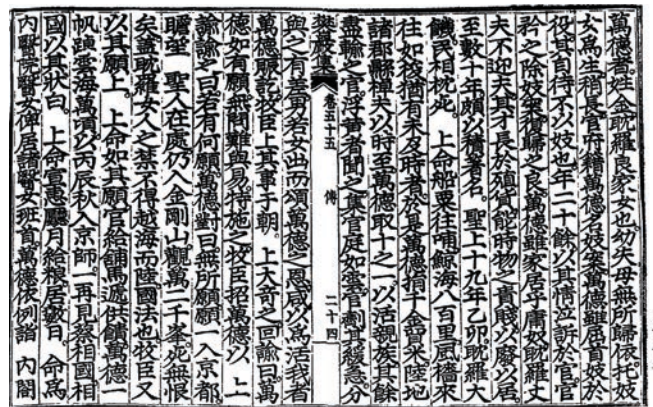
(公卿大夫)<sup>42</sup>와 사(士)<sup>43</sup> 모두 한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을 수 없겠습니 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sup>44</sup>히 눈물을 흘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秦始皇)<sup>45</sup>과 한무제(漢武帝)<sup>46</sup>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三神山)<sup>47</sup>이 있다’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瀛洲山)<sup>48</sup>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sup>49</sup>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을 올라 백록담(白鹿潭)<sup>50</sup>의 물을 떠내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萬德傳)을 써서 한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이때는 우리 임금 21년 정사년(丁巳年)<sup>51</sup> 하지(夏至)<sup>52</sup>였다. 번암(樊巖)<sup>53</sup>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sup>54</sup>에서 쓰다.



42 공경대부(公卿大夫) : 벼슬이 높은 사람들.

43 사(士) : 문벌이 높은 사람.

44 산연(潸然) : 눈물을 흘리는 모양.

45 진시황(秦始皇) :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함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봉건제(封建制)를 폐지, 처음으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으며, 화폐·도량형(度量衡)·문자·물품의 규격을 통일함. 이사(李斯)의 의견을 듣고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하고 장성(長城)을 쌓았음.

46 한무제(漢武帝) :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로 이름은 철(徹). 재위 54년 동안 유학(儒學)을 숭상하였으며, 군사를 일으켜 판도(版圖)를 크게 넓혔음.

47 삼신산(三神山)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세 산.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으로 각각 금강산(金剛山)·지리산(智異山)·한라산(漢拏山)을 가리킴.

48 영주산(瀛洲山) : 원래 동해 가운데 있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 여기서는 한라산을 가리킴.

49 봉래산(蓬萊山)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산. 여름철의 금강산의 딴 이름.

50 백록담(白鹿潭) : 한라산의 산정에 있는 직경 약 500m, 둘레 1.5km 내외의 대분화구.

51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52 하지(夏至) :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하나로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로 음력 6월 21·22일경.

53 번암(樊巖) : 채제공의 호

54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 : 채제공의 서재 이름.





## 1. 2. 체제공의 묘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 위치한다.

묘의 아래 쪽에 정조가 지은 체제공뇌문비 누각이 있다.

## 3 체제공뇌문비

정조는 사후에 벌어질 체제공에 대한 공격을 예견한 듯 직접 번암집의 목자를 정하고 뇌문비를 세워 보호하려고 힘썼다.

## 4 체제공비신 벼슬만 기록되어 있다.



## 번암(樊巖) 체제공(蔡濟恭, 1720~1799)의 묘

경기도기념물 제17호

체제공의 묘는 화성과 용인릉에서 동쪽으로 35km정도 떨어진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산5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묘역에는 망주석, 석양, 혼유석, 상석, 고유석, 향로석 등의 옛 석물이 설치되어 있다. 비신의 앞면에 큰 해서 글씨로 ‘조선국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부영의정 겸경경연 홍문과예문관 춘추관관상감사 검교규장각제학 증시 문숙공 번암채선생 제공지묘’라고 쓰여 있다. 묘표음기는 기록하지 않았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문인석 건립이 적어지고, 석양이 대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혼유석과 석상, 향로석은 매우 정연하게 치석(治石)되어 조선 시대 뛰어난 석재 가공 기술을 짐작할 수 있다. 건립연대가 없지만 1823년 복판되던 시점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부인 동복오씨와 두 번째 부인 안동권씨의 묘는 모두 안성시에 위치한다.

## 체제공뇌문비(蔡濟恭誄文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

체제공의 장례일(1799. 3. 26)에 정조가 각신을 보내어 내린 500여 자의 글이다. 뇌문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찬양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글로 조문(弔文)과 동일하다. ‘홍재전서’권25 ‘문숙공 체제공 장일 치제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고 ‘번암집’의 권수 하에는 ‘사제뇌문’이란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제뇌문’을 새긴 비석은 묘역 바로 아래에 있는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 오석의 비신 상단에 가로로 ‘어제뇌문(御製誄文)’이라고 쓰여 있다. 정조는 신하들의 어제사제문을 여러 편 지었다.

정약용은 체제공이 황사영백서사전으로 사후 삭탈관직되어 비를 세워주지 못하고 강진으로 귀양을 갔다. 가족들에게 작성해 둔 체제공과 이가환의 묘비명을 비밀리에 보관하도록 하여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 김만덕, 실학자와 함께 하다

김만덕을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은 재상 채제공, 경세치용학의 이가환, 정약용,  
이용후생학의 박제가와 후손에게 '은광연세' 편액을 전한  
실사구시설의 김정희는 모두 조선 후기 개혁을 이끈 실학자들이다.



실학의 상징인 수레

### 실학

조선사회는 현실생활과 동떨어진 주자학적 성리학이나 형식적인 예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학풍을 반성하고 국가의 총체적 개혁과 대외개방을 지향하려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다.

실학은 조선후기 한양을 중심으로 등장한 유학의 새로운 학풍으로 고대의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해서 국가의 총체적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해지면서 조선사회는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가장 시급한 부세제도의 개혁이었다. 전세, 공물, 요역으로 구성된 부세에서 공물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이 공물을 전결(田結)의 부담으로 돌려 단일 품목인 쌀로 징수한 것이 대동법이다. 군역도 전결에 따르도록 한 것이 균역법이다.

조선내부에서 추진된 각종 개혁의 전개와 서양의 자연과학 전래는 봉건적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공업을 진흥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였으며 천문학과 지리학 발전하였다. 실학은 제도개혁론, 상업진흥론 및 기술개발론, 천문학, 지리학으로 학문의 대상을 넓혀갔다.

실학자들은 개혁을 통해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부가 축적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 실학의 전개

실학은 18세기 전반기 성호 이익을 종장(宗長)으로 하는 중농학파(경세치용파), 18세기 후반기의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상학파(이용후생파), 19세기 전반기의 추사 김정희를 주축으로하는 실사구시파(고증학) 등 학파로 발전했다.

### 중농학파(경세치용파)

경세치용파(중농학파)는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용적 입장에서 나라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을 말한다. 성호 이익은 실학의 계보에서 으뜸이면서 동시에 경세치용파를 만든 실학자이다. 그는 서양 학문의 여러 정보를 수용하였고 역사 연구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제자로는 지리학 정삼기, 이중환, 역사학 안정복, 농학 우하영 우하영, 경제학 정약용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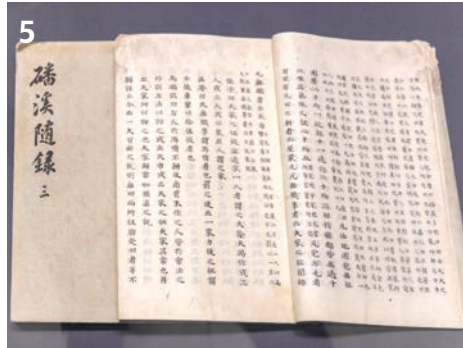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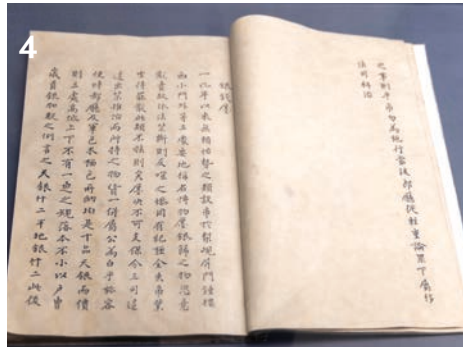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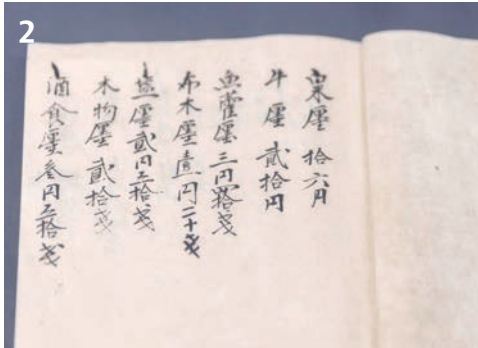
성호 이익의 가문에서도 이병후, 이용휴, 이가환 등의 대학자를 배출하였으며 실학을 주도해 나갔다.

### 이용후생파(중상학파)

이용후생파(중상학파)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산수단과 문물제도 및 기구 등을 연구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중국(청)을 다녀온 젊은 학자들은 “일찍부터 서양의 문물





### 1 성호사절

이익이 연구한 성과 30책. 백과  
전서적 저술을 하였다.

### 2 각전잡세수입성책

시전 수입에 부과한 잡세를 기록.  
당시 활발한 시장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 3 보부상 인장과 인계

보부상은 붓집과 등짐장수를 합  
친 말이다. 그들이 사용하던 것.

### 4 시폐

서울의 각 시전이 올린 과중한 부  
역, 가격의 불안정 등에 대한 상  
소와 조처를 기록한 책.

### 5 반계수록

반계 유형원(1622-1673)의 저술.  
자작농 체제의 토지제도, 노비제  
도의 폐지, 상업의 진흥 등 국가  
개혁을 제시. 이익과 정약용의 경  
세관에 영향을 주었다.

### 6 혼개통헌의

유금(1741-1788)이 만든 이슬람  
양식의 천문기기. 18세기 동아시  
아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로라브'  
로는 유일하다. 박지원 등 북학파  
들과 교류한 실학자이다.

을 수입한 청으로부터 배우자.”고 주장한 이들을 ‘북학파’  
라고 한다.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백성을 무지와 빈곤  
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개국통상을 단행하여 상업  
진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천문학  
홍대용, 상업 박제가, 농학 서유구 등이 있다.

### 실사구시파(고증학)

실사구시란 ‘사실을 밝혀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학문 정신  
을 말한다. 실사구시학은 학문 연구에서 사료 등의 증거  
와 이를 통한 고증을 중요하게 여겼다. 19세기 전반 추사  
김정희가 중국의 고증학자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립되  
긴 하였으나 그 정신은 이미 실학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나

고 있었다.

### 서양문물의 전래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수입된 서양 문화는 연행사 등을  
통해 조선으로 도입되었다. 1604년 ‘곤여만국지도’ 1632  
년 ‘천문략’ ‘직방외기’ 등의 서적과 천리경, 화포, 자명종,  
안경이 전래되었다.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의 요약이 소  
개되고 1653년 ‘시헌력’이 시행되었다. 서양문물의 전래는  
빨랐지만 전통 사상의 저항 때문에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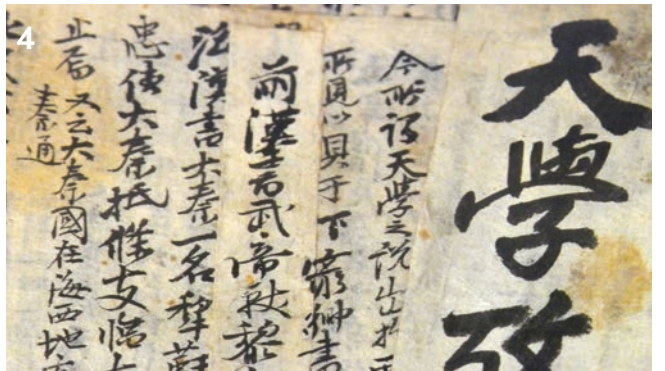
1 산수도 정약용이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닮아 있다.

2 화접도 정약전이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3 어음 조선시대에 사용한 어음.

4 천학고(天學考) 조선 후기 문신·실학자 안정복이 천주교가 중국과 조선에 전해진 기원을 밝히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저술한 연구서. 벽위론서.



## 어음

어음은 출금 금액을 중앙에 크게 쓰고 반으로 갈라 발행한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대개 2개월 정도를 지급 기일로 정했는데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용이 늘어났다. 이 자료는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600냥을 출금하라는 내용이다. 어음은 어함, 음표, 표권으로도 불리며 신용 거래의 징표로 삼았다.

## 성호 이익의 서학(천주교) 수용

성호 이익은 서교의 천주를 유가의 상제에 비유하거나 칠극(七克)을 '우리 유학의 극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호걸스런 선비라

할 만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식 공부보다 실천을 강조한 성호학의 지향은 제자들이 서학을 종교로 수용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성호 이익의 아들이자 수제자인 정산 이병휴는 성호 사상의 진보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켜 양명학을 수용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성호의 말년 제자인 권철신은 이기양과 함께 서교를 종교로서 수용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권철신의 제자들이 대거 천주교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

김만덕에게 시와 글을 남긴 이가환은 신유박해 때 옥사를 하였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조화가 깨진 박해

박지원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고만 따르면 과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새 것만 주장하면 기존 질서와 대치된다. 정조는 탕평책과 사회개혁론으로 조화시키려 했다. 성리학을 통한

왕권강화를 하면서 복학과 서학도 일부 수용했다. 정약용 등의 남 인세력이 천주교를 받아들이자, 노론세력이 숙청을 주장했다. 정조와 채제공의 사후 법고와 창신의 조화는 무너지고 피의 충돌인 소수의 외척 가문들인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의 개입에 의한 신 유박해를 시작으로 100년 동안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 박해와 희생 그리고 전파

1801년 정조 사후, 노론 벽파의 정치 공세에 의해 천주교도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다. 이때 성호학파이며 초기 천주교 지도자이던 이승훈, 홍낙민 등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고, 이가환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이고 옥사(獄死), 이기양과 정약용은 유배되었다.

신유박해는 한국 천주교에 가해진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로 살아남은 교도들은 깊은 골짜기로 숨어 천주교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였다.

### 성호학파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

권철신 이익, 이병휴의 제자. 신유박해 순교  
권일신 권철신 아우. 신유박해 순교  
이기양 이병휴 제자. 신유박해 유배

권상문 권철신 아들. 신유박해 순교  
홍낙민 권철신 제자. 신유박해 순교  
이존찬 이기양, 권철신 제자. 신유박해 순교  
이벽 이병휴, 권철신 제자. 조선천주교 창설의 선구자  
이가환 이익 종손(從孫). 신유박해 순교  
이윤하 이익 외손자. 신유박해 이전 사망  
이승훈 이가환 조카. 정약용의 매형. 신유박해 순교  
이학규 이가환 조카. 황사영의 외종형으로 24년간 유배  
정약중 이익 사숙. 정약용 형. 신유박해 순교  
정약용 이승훈 처남. 신유박해 유배  
정난주 정약전 딸. 신유박해 제주도 유배  
황사영 정약중 사위. 백서사건으로 순교  
홍재영 황사영과 정난주의 아들. 추자도에서 생존  
홍낙민 아들. 황사영 동서. 기해박해 순교  
윤지충 정약용 외사촌. 신유박해 순교  
권상연 윤지충 외사촌. 신유박해 순교  
유항검 윤지충 이종사촌. 신유박해 순교  
유관검 일가족 모두 신유박해 순교

## 이가환,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

이가환(李家煥). (1742~1801).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정조(廷藻)이고 호는 금대(錦帶)·정현(貞軒)·천주교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이다. 이익(李瀲)의 조카로 이용휴(李用休)의 아들이며, 천주교인 이승훈(李承薰)의 외숙이다.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丁若鏞)·이벽(李磔)·권철신(權哲身) 등 천주교 신자가 많다.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送萬德還耽羅)』는 『금대시문초(錦帶詩文抄)』에 수록되어 있다.

만덕(萬德)은 탐라(耽羅)의 과부니, 을묘년(乙卯年)<sup>55</sup> 큰 기근에 쌀을 사들여서 주린 사람들을 진휼(賑恤)<sup>56</sup>하였다. 주목(州牧)<sup>57</sup>이 아뢰니 지존(至尊)<sup>58</sup>께서 얼굴빛을 변화시키고 만덕의 원하는 바를 물어 보라 하였다. 이에 만덕은 하고 싶은 것은 없으나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니, 드디어 여의(女醫)<sup>59</sup>에 녹명(錄名)<sup>60</sup>하고 역체(驛遞)<sup>61</su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그의 소원을 이루게 하였고, 진귀한 것을 성대히 나누어 주니 도로에 빛을 발하면서 그 향리(鄉里)<sup>62</sup>로 돌아갔다.

아, 탐라의 외로운 섬은 생식에 힘씀이 있어서 축산의 암컷도 또한 바다 건너는 것을 금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랴. 밝은 눈동자와 흰 이의 아름다운 사람이 천도 아니고 만도 아닌데 운해(雲海)<sup>63</sup>에 매몰되었도다.

몸은 상도(上都)<sup>64</sup>에서 유람하고 발은 명산을 밟은 사람 이제 만덕이 있도다. 축적된 지령(地靈)<sup>65</sup>이 한 번 발설(發泄)<sup>66</sup>됨이 있으니, 또한 소간(宵旰)<sup>67</sup>의 일념이 해외까지 적신 은혜는 어리석은 필부(匹婦)<sup>68</sup>도 진실로 알아 복이 복채에 응하는 것 같도다. 애오라지 말을 써서 주나니 뜻은 언사에 나타났다네.

55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56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57 주목(州牧) : 주(州)의 장관. 여기서는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말함.

58 지존(至尊) : 제왕의 지위. 여기서는 임금을 말함.

59 여의(女醫)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經國大典) 禮典, 選上』 女醫七十人 每三年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60 녹명(錄名) : 이름을 기재함.

61 역체(驛遞) : 역참(驛站)에서 공문(公文)을 넘겨 주고받는 일. 또는 공무(公務)를 띤 사람을 역에서 역으로 말을 갈아 보내는 일.

62 향리(鄉里) : 고향.

63 운해(雲海) : 끝없이 광활한 바다.

64 상도(上都) : 서울.

65 지령(地靈) : 땅의 영묘한 기운. 즉, 좋은 지세(地勢)를 말함.

66 발설(發泄) : 퍼져 흩어짐.

67 소간(宵旰) : 소간은 소의간식(宵衣旰食)의 준말.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하여 미명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후에 저녁밥을 한다는 뜻에서 온 말.

68 필부(匹婦) : 한 사람의 여자. 부녀(婦女).



만덕은 뛰어난 제주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네.

귀한 돈 내어 쌀 사서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오직 소원은 금강산 유람  
산은 동북쪽 연무에 싸여있네.

임금께서 빠른 역마 내리시니  
천 리 넘어 빛 광채 관동(關東)<sup>69</sup>에 진동했네.  
높이 올라 굽어보며 마음 눈 크게 열고  
표현히 손을 저으며 바다로 돌아가네.

탐라는 고부랑(高夫良)<sup>70</sup> 삼성(三聖)<sup>71</sup>이래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구경했네.  
우레 같이 왔다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리.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 여회청대(女懷淸臺)<sup>72</sup>를 어찌 부러워하리.

69 관동(關東) : 관동 지방(關東地方)은 강원도 일대. 관동 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서쪽을 영서 지방, 동쪽을 영동 지방으로 구분한다.

70 고부랑(高夫良) :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양을나(良乙那).

71 삼성(三聖) : 제주도의 시조 고부랑. 우리나라 상고 시대의 세 성인, 곧 환인, 환웅, 환검.

72 여회청대(女懷淸臺) : 여회청대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림할 수 없이 부유하였다.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다.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漢書』「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1. 매산묘원 여흥(여주) 이씨 가족묘역.

2 성호박물관과 이익의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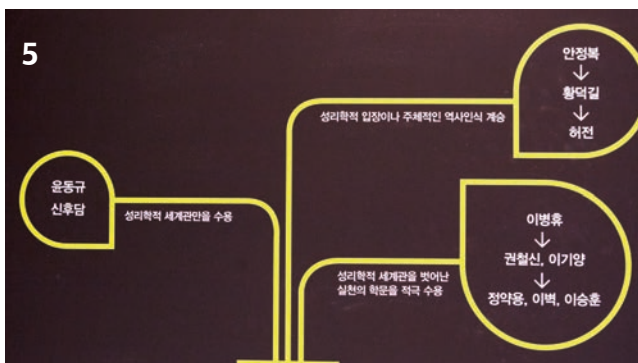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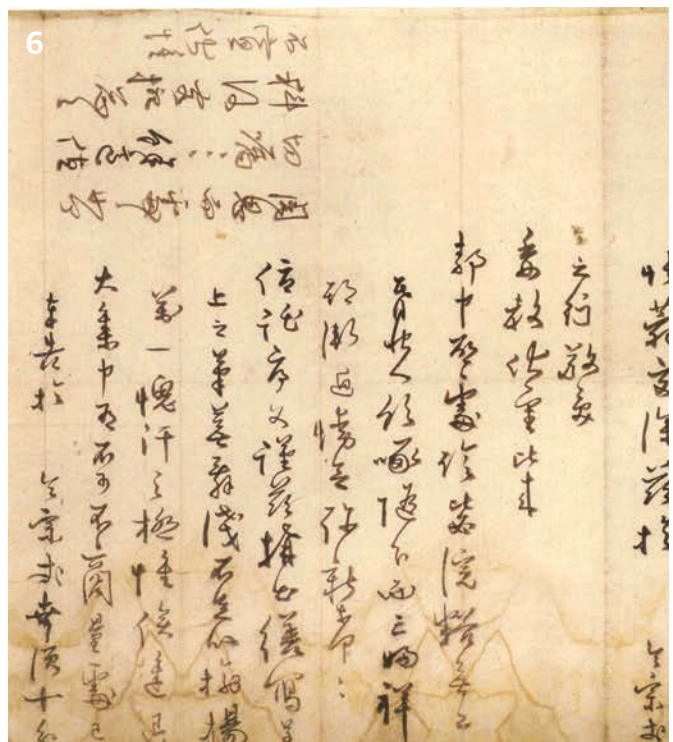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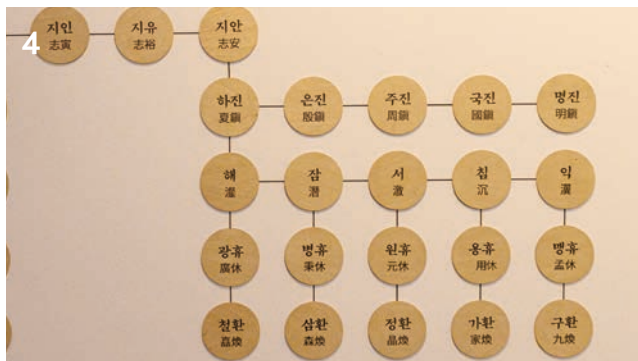
이 묘역에는 이익을 비롯하여 둘째형 이잠, 아들 이맹휴, 손자 이구환의 묘가 있었지만 1977년 반월공업단지 조성에 밀려 이장하였다.

3 이가환의 묘

4 여주이씨 성호 이익 가문 가계도

5 성리학과 실학 계보

6 이가환의 친필 간찰 신유박해때 순교하여 전하는 유품이 드물다







## 이가환

이가환(李家煥). 1742(영조 18)~1801년(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자는 정조(廷藻)이고 호는 금대(錦帶)·정헌(貞軒)·천주교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이다. 이익(李瀾)의 조카이며 이용휴(李用休)의 아들이고, 천주교인 이승훈(李承薰)의 외숙이다.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丁若鏞)·이벽(李穡)·권철신(權哲身) 등 천주교 신자가 많다.

1771년(영조 47)에 진사가 되고, 1777년(정조 1)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1780년에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에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 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천주교인이 되었다. 그 뒤 광주부윤(廣州府尹)·대사성·개성유수·형조판서·충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조 사후 천주교를 연구하다 1801

년 이승훈·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으며,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금대유고』가 있다.

## 금대시문초

『금대시문초』는 조선 후기 학자 이가환(李家煥)의 시문집이다. 크게 상하로 나누어지는데, 상에는 고시(古詩)·근체시(近體詩)·육언(六言), 하에는 소(疏)·서(序)·기(記)·묘지(墓誌)·갈명(碣銘)·행장(行狀)·전(傳)·찬(贊)·명(銘)·제발(題跋)·제문(祭文)이 수록되었다.

이중 만덕에 대한 이야기는 『금대시문초』 상권의 ‘고시’에 「송만덕환탐라(送萬德還耽羅)」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이 글은 크게 만덕의 행적을 기술한 전반부와 칠언고시로 노래한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 박제가,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시가 수록된 정유각집은 중국에서 만난 청나라 문인 반정균과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하여 중국인 이조원과 진전의 서문이 있어 그의 국제적 명성을 짐작케 한다. 정유는 세상풍진 속에서도 굳은 지조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送萬德歸濟州詩)는 『정유각집(貞蕤閣集)』권4에 수록되어 있다.

###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 [짧은 서문이 있다]

을묘년(乙卯年)<sup>73</sup>에 탐라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여인 만덕은 곡식을 내서 백성을 진휼(賑恤)<sup>74</sup> 하였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산이 강원도 회양부(淮陽府)<sup>75</sup>에 있어 제주목과 거리가 수륙으로 이천여 리나 되는데다, 섬에 사는 여자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관례가 있었다. 임금께서 그 뜻을 기특히 여기시어 여의(女醫)<sup>76</sup>로 불러 약원(藥院)<sup>77</sup>에 예속하게 하고 역마(驛馬)를 주게 하여 체송(遞送)<sup>78</sup>하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성인께서 아랫사람의 뜻을 굽어 살피시어 평범한 아낙<sup>79</sup>조차 있을 곳을 얻게 한 것은 옛날에도 이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 만덕이 이로 말미암아 높은 벼슬아치들<sup>80</sup> 사이에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아아! 만덕이 남자였더라면 임시로 3품의 관복(三品服)을 입고 만호(萬戶)<sup>81</sup>의 인끈(印授)을 차게하는 데 그쳤을 뿐이리니, 어찌 능히 세상에 전해졌을 것인가? 다만 눈썹먹을 내던지고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연지분을 내치고서 푸른 바다<sup>82</sup>를 건너, 서울의 궁궐에 조회하고 이름난 산을 찾았으니, 세상에 들건 나건 넉넉히 풍치가 있음을 귀하게 여길 만하다. 만덕은 겹눈동자<sup>83</sup>를 지

73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74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75 회양부(淮陽府) : 강원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금강산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 동서로 나누어 동쪽은 휴전선 이북에 따른 인제군, 양구군 일부를 합하여 금강군이 되고 서쪽은 일부 땅을 세포군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땅으로 회양군을 이루고 있음

76 여의(女醫) : 조선시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여자 의원.

77 약원(藥院) : 조선시대 내의원(內醫院)을 달리 이르는 말. 내국(內局). 『(六典條例2)』「吏典, 承政院, 啓稟」藥院副提調一員例兼 而推考房則微稟換房

78 체송(遞送) : 여러 곳을 차례로 거쳐서 전하여 보냄

79 필부(匹婦) : 한 사람의 여자. 부녀(婦女).

80 진신(摠紳) : 선비나 사대부를 이룸.

81 만호(萬戶) : 조선 때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두었던 종4품 무관직.

82 창명(滄溟) : 큰 바다.

83 겹눈동자 : 중둥(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 『(史記)』「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냈으니, 대개 특이한 상을 지녔다. 어찌 전생에 부처의 마음<sup>84</sup>과 신선의 풍골이 깃들이 아니겠는가? 그녀가 돌아가므로 시를 지어서 준다.

바다 밖 큰 세계에 머리조차 못 내미니  
 자식 혼사 마친대도 오악 구경 뉘 하리오.  
 탁라(毛羅)<sup>85</sup>는 섬으로서 부상(搏桑)<sup>86</sup>과 경계 되니  
 성주(星主)<sup>87</sup>는 천 년토록 조공으로 굴 바쳤네.  
 굴나무 숲 깊은 곳 여인네의 몸이건만  
 의기로서 남극에서 주린 백성 없게 했지.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었더니  
 금강산 만 이천 봉 보기를 원했다네.  
 푸른 소매 귀밑머리 돛단배에 올라서는  
 남극성 비추는 곳<sup>88</sup> 하늘 보며 웃었겠지.  
 서둘러 말 갈아타 금강산을 향해 가니  
 불일 폭포 신선 풍골 패옥이 반짝인다.  
 신라와 일념으로 통합을 깨달으니  
 귀한 관상 여인네는 겹눈동자 부합했네.  
 물결 헤쳐 바람 타고 먼 곳을 찾는 뜻이  
 대장부<sup>89</sup>만 누릴 일이 아님을 알겠구나.

84 불심선골(佛心仙骨) : 부처처럼 착한 마음과 신선의 기질.

85 탁라(毛羅) : 제주의 옛이름

86 부상(搏桑) : 중국 고대 신화에서 동해(東海)에 있다는 신목(神木)으로, 여기에서 해가 뜬다고 함

87 성주(星主) :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 초까지 제주 지방의 대표적 토호(土豪)에게 준 작호(爵號).

88 남극성 비추는 곳 : 원문은 호남소조(弧南所照). 호남(弧南)은 남극성이고, 남극성이 비추는 곳은 곧 제주를 가리킨다.

89 대장부 : 원문은 상호봉시(桑弧蓬矢). 뿔나무 활과 쭉 화상이다. 옛날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이 활 여섯 개로 여섯 개의 쭉 화살을 천지 사방에 쏘았다.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제주로 돌아가는 만덕을 전송하며 지은 시(送萬德歸濟州詩)의 박제가의 친필. 김만덕 유물 중에서 유일한 친필 자료이다.

## 박제가

박제가(朴齊家). 1750(영조 26)~1805년(순조 5).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자는 차수(次修)·재선(在先)·수기(修其), 호는 초정(楚亭)·정유(貞莸)·위항도인(葦杭道人)이다. 율(栗)의 6대손자이며 승지 평(坪)의 서자이다.

소년시절부터 시·서·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쳐 19세를 전후하여 박지원(朴趾源)을 비롯한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 등 서울에 사는 북학파들과 교류하였다. 1776년(정조 원년)에는 이덕무·유득공·이서구(李書九) 등과 함께 『건연집(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내어 문명을 청나라에까지 떨쳤다. 1778년에는 사은사 채제공(蔡濟恭)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筠)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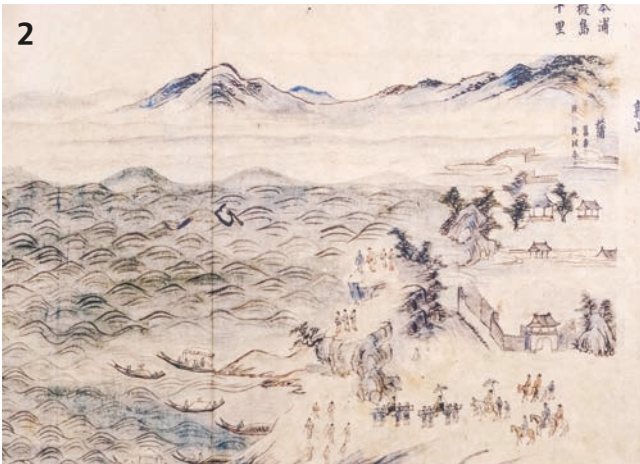
여 『북학의(北學議)』 내·외편을 저술하였다.

1779년 3월에는 이덕무·유득공·서이수(徐理修)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과 더불어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이 되었다. 이로부터 13년간 규장각 내·외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비장된 서적들을 마음껏 읽고, 정조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깊이 사귀면서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간행하였다.

1801년(순조 1)에는 사은사 윤행임(尹行愐)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네 번째 연행길에 올랐으나 돌아오자마자 동남성문의 흥서사건 주모자인 윤가기(尹可基)와 사돈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혐의가 있다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 풀려났으나 곧 죽었다.

저서로는 『북학의』·『정유집(貞莸集)』·『정유시고(貞莸詩稿)』 등이 있다.





1. 정유각집 2. 연경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사신단 3. 초정 박제가의 초상화 1790년(정조 14) 청나라 화가 라빙이 그렸다.

## “생활은 편리하고 삶은 넉넉하게”

### 이용후생(利用厚生)

연암 박지원(1737-1805)은 백성의 생활이 편리하고 삶이 넉넉해야 비로소 도덕도 바로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용후생론’으로 정덕(正德)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용과 후생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물질적으로 뒤진 조선사회에 대한 반성이었다. <북학의(北學議)>를 쓴 초정 박제가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수레와 벽돌의 사용을 포함하여 여러 기구와 기술을 발전시켜서 백성의 생활이 편리하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 상공업과 해외통상을 발전시키고 외국의 선진문물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선진문물을 배우는 것’을 북학이라 했다.

박제가는 여성이면서 고립된 섬인 제주에서 한계를 극복한 김만덕의 용기와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 정유각집

『정유각집』은 박제가(朴齊家)의 시문집이다. 정유(貞蕪)는 박제가의 장년 이후에 사용한 호이다. 이는 정조가 박제가의 집에 들러 그 집에 있는 반송(盤松)에 ‘어애송(御愛松)’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상풍진 속에서도 지조를 견지하려는 지향과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권1에는 서(序)·기(記)·발(跋)·설(說)·논(論)·명(銘)·잠(箴)·찬(贊)·송(頌)·정문(呈文)·상량문(上樑文), 권2에는 부(賦)·잡저(雜著), 권3에는 제문(祭文)·묘명(墓銘)·행장(行狀)·전(傳), 권4에는 서(書)로 국내외의 친구 및 아들과 주고받은 서신이 수록되었다.

만덕 이야기는 권4에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 시(送萬德歸濟州詩)」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전반부는 만덕의 행적, 후반부는 칠언고시로 구성되어 있다.

## 정약용, 중동변·만덕,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 얻다

유배에 정약용은 좌절하지 않고 “이제야 겨를을 얻었구나!”며 학문에 힘써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중동변(重瞳辨)」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2,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萬德所得播紳大夫贈別詩卷)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에 수록되어 있다.

### 중동변(重瞳辨)

제주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을 진휼(賑恤)<sup>90</sup>했는데 금강산(金剛山) 보기를 청하므로 역마(驛馬)<sup>91</sup>를 불러와서 한양(漢陽)에 이르게 했다. 만덕이 제가 말하기를 “그 눈이 겹눈동자<sup>92</sup>입니다.”고 하니 공경(公卿)<sup>93</sup>이 서로 전하여 떠들썩하였다. 내가 그를 불러오게 하고는 묻기를, “네 눈이 겹눈동자라고 하니, 이것이 있는가.” 하니, “그렇습니다.” 했다.

“무릇 궁실(宮室)<sup>94</sup>·누대(樓臺)<sup>95</sup>·초목(草木)·인물(人物)을 네가 보기는 한 개가 모두 두 개로 보이는가?”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 했다.

“그렇다면 너는 겹눈동자가 아니다.” 하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검고 흰 동자가 조금도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겹눈동자라는 말이 마침내 유행하고 그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스스로 바보짓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무릇 동자가 겹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로써 이를 비쳐본다면 누대는 비쳐서 소누대(小樓臺)가 되고 초목은 비쳐서 소초목(小草木)이 되니 그것이 작은 모양이 있는 것은 곧 이 물건을 보는 까닭인데 눈동자를 겹으로 있게 한다면 각각 한 가지 작은 모양으로 비쳐질 것이니 한 가지 물건이 두 개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알기 쉬운 이치이다. 즉, 우순(虞舜)<sup>96</sup>과 항적(項籍)<sup>97</sup>의 눈도 또한 반드시 겹 눈동자는 아닐 것이다. 과연 그들이 겹눈동자라면 물건을 보는 것이 어지럽고 뒤섞이어 숫자(數字)와 초목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니 한 사람의 폐인(廢人)<sup>98</sup>이 될 뿐이다.

90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함.

91 역마(驛馬) : 역참에 대기시켜 두고 관용(官用)에 쓰던 말. 역말.

92 겹눈동자 :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함. 『(史記)』 「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曰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93 공경(公卿) : 고관(高官)의 범칭.

94 궁실(宮室) : 제왕의 궁전. 또는 사람이 사는 집

95 누대(樓臺) : 높고 큰 건축물의 범칭.

96 우순(虞舜) : 상고(上古)의 성군(聖君). 성은 요(姚), 이름은 중화(重華)이며, ‘虞’는 그의 조상이 봉(封)해진 나라 이름. 효성이 극진하였고, 요(堯)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禪讓)받아 포판(蒲阪)에 도읍하였으며, 남쪽을 순시(巡視)하다가 창오(蒼梧)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함. 재위(在位) 18년.

97 항적(項籍) : 진(秦) 말기 초(楚)의 장수. 자는 우(羽). 숙부 양(梁)과 함께 기병하여 진의 군사를 쳐서 함양(咸陽)을 불사르고 그 임금 자영(子嬰)을 죽인 뒤 자립하여 서초 패왕(西楚霸王)이 됨.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과 천하 제패를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패하여 오강(烏江)에 투신 자살함. 항우(項羽).

98 폐인(廢人)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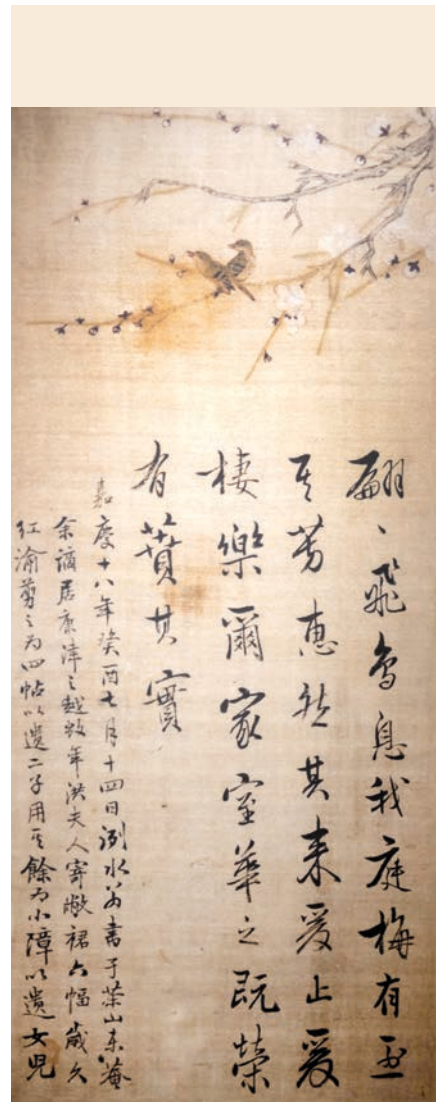


##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摺紳大夫)<sup>99</sup>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을묘년(乙卯年)<sup>100</sup>에 탐라에 기근이 들어 만덕이 재물을 내놓아 이를 진흥하였다. 그 소원을 물으니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였다.

병진년(丙辰年)<sup>101</sup>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러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左丞相)<sup>102</sup> 채공(蔡公)<sup>103</sup>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sup>104</sup>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sup>105</sup>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sup>106</sup>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sup>107</sup>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 것 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매화병제도(梅花屏題圖)

떨떨 나는 저 새 우리 집 매화 가지에서 쉬는 구나 / 짙은 꽃향기 즐기러 찾아왔겠지  
여기 깃들고 머물며 네 집안을 즐겁게 하려 무나 / 이제 꽃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많이 열릴 거야  
강진에서 여러 해를 귀양살이 하고 있던 정약용이 부인 홍씨의 낡은 치마 6폭을 잘라 찢과 가리개를 만들어 자식들에게 보내며 그린 그림으로 가족애가 묻어났다.

‘중동변’은 당시 김만덕에 대해 백성들에게 퍼진 겹눈동자의 소문을 서둘러 진화하기 하기 위해 심문하는 문체로 서술하였다.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摺紳大夫)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는 매우 절제된 문장으로 김만덕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였다.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는 『여유당전서』 권14의 ‘제’에 수록되었다.

99 진신대부(摺紳大夫) : ‘진신(摺紳)’은 홀(笏)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 곧 선비나 사대부를 가리킴.

100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101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102 좌승상(左丞相) : ‘승상’은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의 벼슬. 곧 좌의정.

103 채공(蔡公) : 채제공(蔡濟恭)

104 소전(小傳) :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기록한 전기. 곧 「만덕전(萬德傳)」을 가리킴

105 기적(妓籍) : 기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대장. 《宋史》 407 「楊簡傳」 移文首罷妓籍 尊敬賢士)

106 중동(重瞳) : 겹눈동자.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

107 내전(內殿) : 왕비(王妃)의 존칭.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다산 정약용은 개혁적 관료이자 대학자이다. 정조 때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관료로 활약했으나,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 이후 유배에 처해졌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기회로 삼았다. “이제야 겨를을 얻었구나!” 유배 18년 동안 학문에 힘써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낡은 국가를 새롭게 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경세유표>를 저술했고, 수령이 행정을 잘하여 백성이 혜택을 누리도록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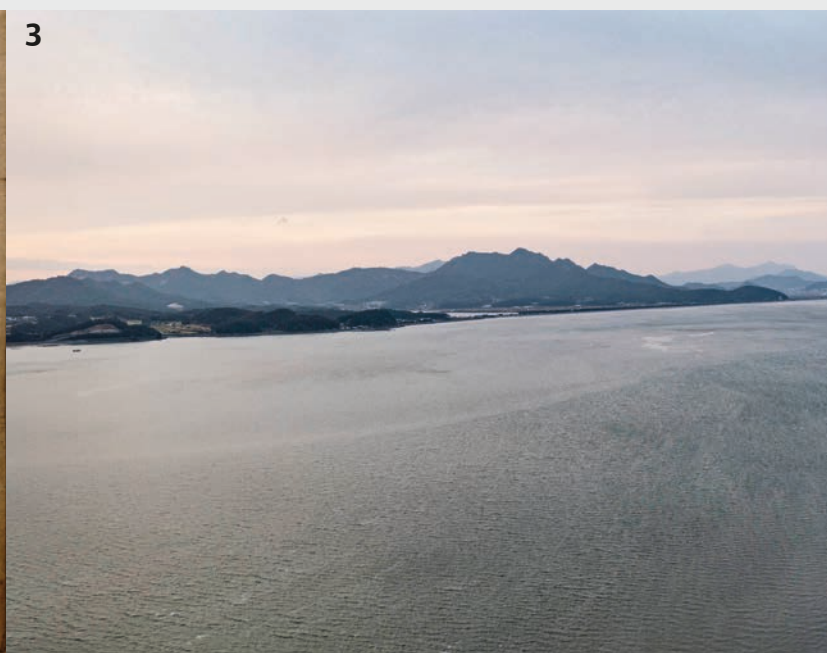
그는 성호학파를 계승하는 한편, 연암그룹의 이용후생론을 수용하여 ‘실학의 집대성자’로 불린다.

## 김만덕과 정약용만이 아는 진실

정약용은 자신의 행적을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하고 비밀에 부쳤다. 겉눈동자에 대한 진실, 정난주의 제주도 유배와 홍경한의 추자도 생존, 김만덕이 독신으로 나누면서 베푸는 이타적인 삶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는 천주에 대한 믿음이었는지는 두 분만이 알 일이다.



1. 여유당전서 2. 정약용이 만든 강진 지도 3. 다산초당 앞 바다.







4. 만덕사지와 경세유표 5. 권일신 정약용 십자가 묘에서 발굴 6.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 초상화



## 추사 김정희 ‘실사구시’ 실학계승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학문 정신을 말한다. 실사구시학은 학문 연구에서 사료 등의 증거와 이를 통한 고증을 중요하게 여겼다.



세한도(국보 180호) 세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 당신의 세한은 언제였고 송백과 같은 벗이 있나 묻는다.

###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초정 박제가의 제자가 되어 북학파의 사상을 배우고 연암 박지원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24세에 연행길 수행을 계기로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은 안동 김씨의 표적이 되어 제주도과 북청 유배를 당했다. 그의 제자인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그의 사상과 학문이 재조명 되었다.

실사구시란 ‘사실을 밝혀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학문 정신을 말한다

실사구시학은 학문연구에서 사료 등의 증거와 이를 통한 고증을 중요시했다. 19세기 전반 추사 김정희가 중국의 고증학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립되기는 했으나, 그 정신은 이미 실학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학문 태도는 김정희에게 그때까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북한산 비봉의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힐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실사구시학의 약점은 학문적 방법론은 점점 치밀해져 가는데 반하여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점 얽어져 간 데 있었다.

### 세한도(歲寒圖)

국보 180호인 세한도는 김정희가 귀양시절 제자 이상적이

연경에서 귀한 서책을 구해 유배지에 가져다준 것에 감명해 그려준 그림이라고 전한다. ‘세한’은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글의 첫머리를 따서 지은 것이다. 즉 사람은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그 지조와 인격의 고귀함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 김정희의 초상화

추사 김정희의 71세 때(1857년)의 모습을 이한철이 그린 것으로 초상화의 형식은 정식 문관의 정복을 하고 의자에 앉은 전신상으로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린 칠분면이다. 이 초상화는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을 사용하고 검푸른 비단 관복에 많은 음영을 써서 몸 전체에 상당한 입체감을 넣어 인물의 개성과 인격을 반영하였다.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恩光衍世)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搯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추사 김정희는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 시기에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1840-1848년 제주도 대정으로 유배되었다. 그때 은광연세 편액을 만들어 전해주었다.

### 추사·산천 두 형님께(철웅 간찰)

청의 학자 오송량이 김정희와 김명희에게 보낸 간찰첩으

로 청과 조선 문인들 사이의 교류 양상을 보여준다. 일상 안부와 서화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 다산초당 현판 탁본

추사는 강상 시절 다산 정약용의 아들인 정학연(1783-1859)과 정학유(1786-1855) 형제와 깊이 사귀며 시를 짓고 친교를 맺었다. 다산의 아들형제들의 부탁으로 써준 행서로 쓴 현판이다. 이 현판은 후대에 추사의 글을 다시 집자해서 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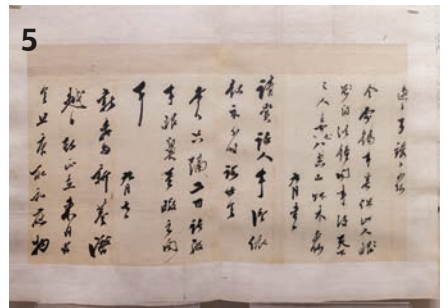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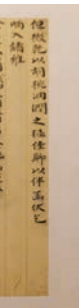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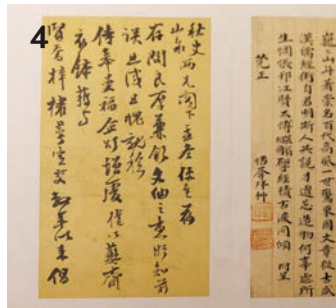


#### 1 허련의 완당선생 초상

미소 띤 조선시대 초상화는 매우 드물다. 허련은 김정희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담았다. 허련은 초의선사가 소개한 30대 제자로 그를 아꼈다. 이 초상은 김정희 사후 초상화의 본이 되었다.

#### 2 불이선란도

김정희 말년의 대표작. 김정희가 스스로 밝혔듯이 '한 번이나 그릴 일이지 두 번 그려서는 안 될' 작품이다. 고독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3 열하일기 박제가의 제자로 박지원의 학풍을 계승 4 철웅 간찰 5 흥선대원군 간찰 6 다산초당 현판 7 제주도 대정의 추사유배지

### 실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김만덕

김만덕 당대의 관찬사료와 그녀에게 시와 글을 지어 후세에 알린 채제공, 이가환, 박제가, 정약용을 이은 김정희의 공통점은 당대 최고의 실학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의 제도를 개혁하고 옛 것의 장점은 본받고 반상의 차별, 노비제도를 없앤 청렴하고 공평한 새로운 세상을 위해 힘썼다.

시전상인의 적폐를 해소하자 지방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주에서 낙달을 걸어 남루한 차림으로 흑한의 한양에 도착하여 재상의 문을 두드린 여성이 있었다. 어려서 기방에 의탁하고 홀아버지와 형제 가족을 부양하며 독신으로 살며 육지와 상업을 통해 모은 재화를 굶주린 이웃에게 모두 베푼 김만덕이었다.

남녀유별, 반상차별, 가부장적 사회질서, 독신 여성에 대한 편견, 제주민 출륙금지 등의 벽을 뚫고 수 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재력을 키운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한 용기, 홀몸의 여성으로서 사회에 신용을 쌓아 거상이 되기까지의 도전, 절약하고 아끼면서 생활하여 재물을 모은 조냥(절약), 나누면서 베풀어 온 김만덕의 삶은 정조와 재상, 실학자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었다.

강진의 낙조



김만덕의 제주·한양·금강산 대장정 종합

## 제주 1796년 7월 28일 - 11월 24일 한양

여름에 떠나 겨울이 되어서 4개월 만에 한양에 도착





## 출륙, 한양, 금강산 그리고 귀향







김만덕이 제주를 떠나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은 제주-한양, 금강산 유람, 배로 귀향까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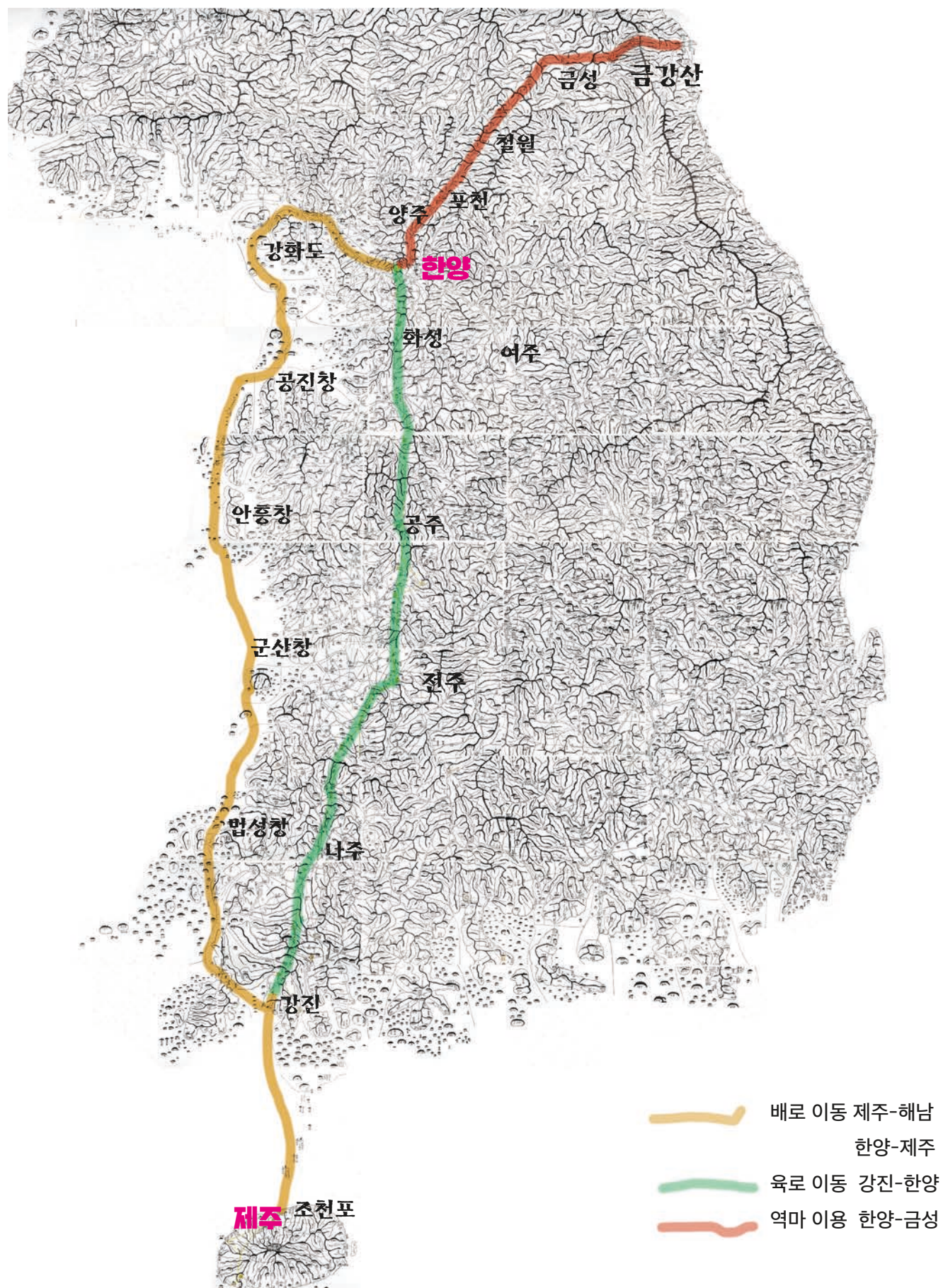
1796년 7월 28일 김만덕의 출륙(제주목사 유사모의 장계, 일성록) - 11월 24일 한양 도착을 체제공이 보고(일성록, 정조실록에서는 25일 기사).

1796년(정조 20) 6월 6일 김만덕이 백미를 원납(기부)했다는 보고에 정조는 원하는 바를 물어 들어주도록 했다. 7월 28일 제주목사는 왕명을 설명하고 소원을 물었는데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하여 출륙을 허가했다는 장계를 보냈다. 제주도를 떠난 때는 7월 중순이다.

11월 24일 추운 겨울에 체제공은 한양에 도착했다고 보고한다.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금강산 한 달동안 돌아보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1797년 6월 마포나루에서 이가환, 박제가 등 대신들의 배웅을 받으며 배에 올라 2주 정도 걸려서 서해연안을 따라 제주도로 귀향했다.(이가환, 박제가의 소서, 시 참조)

체제공의 문집인 ‘번암집’에는 여주 청심루에서 지은 시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권19)에 김만덕이 등장한다. ‘만덕전’(권55)에는 김만덕의 집안, 성장 과정, 쌀을 내어 도민을 구한 내용, 육지로 나오기까지의 과정, 금강산을 유람한 경로, 대신들과의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양까지의 여정

만덕전에 ‘제주여성의 출륙을 금하고 있는 법이 있었지만 정조는 소원을 들어주라고 있다. 관에서 여비와 역마를 주고 경유하는 지역에서 음식을 제공하라고 했다. 배를 타고 남해를 건너서 병진년 가을에 채상을 만났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만덕전을 읽는 사람은 당연히 김만덕 일행은 역마를 타고 관의 보살핌을 받아 한양과 금강산을 돌아보고 제주로 돌아오는 영예를 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식지 은광연세에 김만덕의 대장정을 소개하기 위해 대동여지도(고산자 김정호), 도로고(여암 신경준), 하멜의 압송지도(동아지도 안동립)를 참고하여 4년에 걸쳐 답사에 나섰다.

김만덕의 공식적인 신분은 제주관아 소속된 관기인데 역마를 제공했다는 것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일이고 지역관청에 왕명이 내려졌다면 읍지 등에 기록을 남겼을 걸로 기대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관찬사료인 ‘일성록’에서 정조가 ‘차비대령 행수의녀’라는 벼슬을 내리고 역마와 여비, 음식을 제공하는 명은 이미 김만덕이 한양에 도착한 이후인 11월 24일이라서 화성, 여주 방문과 금강산 유람에 왕명대로 거행이 되었다. 이는 진신대부와 초계문신들의 글에도 남아있고 김만덕과 금강산을 다녀간 내용을 복한 안내원도 소개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관에서 역마를 제공받아 제주대로를 북상하면 열흘에서 보름이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3개월에 걸쳐 한양으로 간 여정은 선으로 이어진 길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두루 살펴보는 답사로 전환해야 했다.

제주목사 유사모의 장계에 김만덕은 육지에 나가고 싶다고 했지 한양과 금강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60살 가까운 제주여성이 3,000리를 걸어서 한양에 와서 조선 재상의 집을 찾아 울며 하소연 했을 때 채제공은 몹시 놀라 당황하지 않았을까?



부여의 남궁지

## 모든 길은 한양으로 통한다

면천(免賤)보다 출륙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섬에 갇혀 살다가 가족과 이웃을 굶주림에 보내고 살아난 제주민 모두의 소원이었다.



### 출륙금지령 해제

면천(免賤)보다 출륙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섬에 갇혀 살다가 가족과 이웃을 굶주림에 보내고 살아난 제주민 모두의 소원이었다.

선대왕의 불가역적인 명이라는 명분으로 1796년 정조가 출륙을 해제하라는 어명을 반대한 이우현 제주목사는 1만 8천 명의 도민을 굶어죽게 한 죄로 귀양을 보냈다. 새로 부임한 유사모 목사는 200년 만에 출륙을 허가함으로써 출륙금지령의 빗장을 풀고 나선 최초의 제주여성이 되었다.

제주도의 실정과 그의 선행을 직접 확인한 정조와 그 대신들은 김만덕을 ‘의협심이 강한 여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제주도에 대한 차별을 조정과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출륙금지령이 해제된 때는 1825년이였다.

### 방기(邦畿) 천리의 문물도회(文物都會)

규장각 강제문신과 사헌부지평을 역임한 김희락은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에서 ‘한양 천리를 오면서 각 지방의 문물을 돌아보았다’고 요약했다. 한양으로 향하는 선긋기는 포기하고 육지에 처음 발을 디딘 제주여성인 김만덕이 관심을 갈만한 곳을 상정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았다.

가는 곳마다 200년 전의 유적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흔적도 없는 곳이 많았다. 당시의 관아는 군청이나 초등학교가 들어선 곳이 많았다. 성은 여염집 주춧돌이 되었고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도읍자체가 없어지고 지명만 남은 곳도 있다.

### 모든 길은 한양으로 통한다

해남에서 강진, 영암, 나주에 이르는 길은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대로 각종 과실이 재배되고 벼가 여우는 논이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가 이어져 물산이 풍부하고 인심 좋은 호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장성에 이르면 길 양편으로 산이 높아지고 백양사에서 갈재까지 구간은 당시에 호랑이와 산적이 출몰하기도 하였다. 하멜의 일행도 이곳에서 여러 명이 죽었다.

김만덕이 지나간 지 100년 후인 1897년 프랑스인 뒤편 주교는 1월 7일 일기에 ‘가마를 타지 않을 수 없었다. 20리를 가서 정읍 읍내, 다시 30리를 가서 장성 갈재 골짜기 주막에서 점심. 원령군이란 특별한 가마꾼들이 순식간에 골짜기를 통과했다. 40리를 가니 3-4m 높이의 거석을 만났다. 오늘 걸은 길은 100리 정도이다. 밤에 횃불을 켜고

10리를 더 갔다. 이 골짜기 물은 장성과 고창에서 5리 거리인 목포로 흐르고 있다. 주위는 숲이 매우 울창하여 호랑이의 출몰이 아주 잦다. 이 근처에서 13세의 한 교우 소년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는데, 이런 일은 비밀비재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 한참을 가면 다음 고을

식사를 하거나 잠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을(군)간의 거리는 대부분 한참이나 두참이면 도달할 수 있다. 한참은 30리마다 설치된 역참간의 거리이기도 하다. 여행객들은 아침에 여럿이 모여 동행하고 험한 곳에서는 포수를 고용하여 길안내와 외부로부터 위험을 대처해야 했다.





## 권당이 효력을 발휘

제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과거 시험을 보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 한양으로 향할 때에도 이 길을 이용해야 했다. 제주의 권당문화는 고향을 떠나 멀리 나갈수록 막강한 보호막이 된다. 수십 년간 객주를 운영하여 제주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김만덕이 구축한 육지와 네트워크는 돈주고도 살 수 없는 쌀 600섬을 신용으로 구할 정도이니 제주와 교역이 활발했던 강진, 나주, 전주의 상인들이 한양을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제주인으로는 드물게 한양에서 봉상시 부봉사(종묘를 관장하는 정9품)인 변경봉은 제주의 흥년에 따른 구휼곡의 운송과 출륙금지령을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정조로부터 직접 받았다. 제주도 구휼에 대해 총괄을 했기에 김만덕이 채제공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 정읍-태인-금구-전주 구간

필암서원, 무성서원 등 유교문화의 전통이 살아 있고, 임실과 남원에서는 백제와 가야문화가 공존하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충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이었다. 농경사회의 가부장적이고 신분과 남녀유별 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까?

전주는 제주에서 500리 거리로 한양과 중간지점이다.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 답게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변화한 도읍이었다. 정약용은 전주를 “누각 궁권 서울을 옮겨다 놓았고, 의관문물 시류와 다름없네”라고 하였듯이 풍남문을 들어서기 전에 내륙과 해안, 제주도와 남해 도서에서 올라 온 농수산물, 각도의 특산물과 공예품, 각종 농기구가 가득한 남문시장에 들어서 제주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물품과 제주 특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지 여윌롭게 돌아보았을 것이다.







1 전주 전경 2 남문시장 앞 전주천변에 형성된 새벽시장. 인근 농촌에서 신선한 채소를 팔고 있다. 3 태조 이성계의 어진. 전주는 이성계가 태어난 곳이다. 4 전통 공예품





## 여산-은진-연산-공주, 부여-차령-천안

호남지방을 떠나 삼례에서 남원·진주·사천·통영·거제 방면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쳐지고 한양으로 향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금강유역의 충청도를 지나게 된다. 공주는 황세바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서학(천주교)에 연루되어 순교하였는데 김만덕이 지나간 5년 후의 일이다.

부여동헌 옆 도강영당에는 홍가신·허목·채제공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를 모시는 곳이 있다. 이 건물은 원래 부여현의 관아 건물이던 것을 1971년 신축하여 이들을 모시고 있다.

## 천안-화성-과천향교-동작진-한양

천안에서 3일만 더가면 한양에 도착한다. 길은 곧고 행인이 많고 지름길을 택해서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막바지 여정에 큰 시련을 맞았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경기지역에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고 추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당시 일성록 11월 15일자에는 길가에서 버려진 1살짜리 아이를 장조이가 거두어 기르려자 하나 가난하니 식료를 원한다고 하니 정조는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 엄히 일러 유념하여 찾아서 실효가 있게 하라”라고 명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일성록 11월 16일자에는 북악산 형제봉 근처에서 호랑이 1마리를 잡아 포수에게 시상하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11월 24일 기사에는 채제공 “김만덕이 막 올라왔는데 한겨울이라 여관을 방황하다 신에게 와서 울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정조 “이미 올라온 뒤에 어찌 길거리에서 굶주림을 호소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험난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1 화성. 한양까지는 하루 거리이다. 2 충청 감영 3 충청감영 감옥 벽밖에 서있는 어린이 4 창덕궁 장덕문 5 부여감영 6 수원 지지대비





## 남해, 생명의 터전이자 건널 수 없는 장벽

바람의 힘과 해류에 의지해 항해하는 돛배는 강한 바람에 의한 전복, 좌초, 표류, 침몰의 위험이 높아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용기가 필요했다.

요즘 제주를 오갈 때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한다.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50분이면 제주에 도착한다. 전국 각지로 비행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제주를 오가는 배는 완도, 목포, 여수, 부산항에서 카페리, 쾌속선 등이 운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이후 7년 만에 2021년 12월 10일 인천에서 크루즈선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인천-제주 해상항로에서 세월호에 탄 어린 학생들을 잃은 아픔을 떠올린다.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일본의 중고선박을 들여와 단체여행객을 많이 수용하려고 선실을 달아 올리고 선실에 남아 있으라는 방송을 틀고 선장이 먼저 도망하고, 구조할 해경은 도우려는 어선들을 가로 막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 정조, “만덕을 배에 태워 보내라”

224년 전 한양에서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를 돌아 서해 연안을 따라 남해바다를 건너 제주까지 간 여성은 바로 김만덕이다. 정조는 “비변사에서 그에게 다시 물어 만일 내년 봄까지 머무른 뒤 금강산에 내려가고 싶어 하면 구경하며 즐길 수 있게 한 뒤 양식을 주고 배를 태워 본향에 보내도록 해서 만물을 제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음이 없음을 보이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

당시 제주목사도 역마를 얻어 타고 해남까지 와서 며칠 바람을 기다려 배로 건너와야 했는데 배로 제주도까지 보낸 것은 조선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큰 영예였다.

내전에서 내려 준 선물꾸러미와 전신대부로부터 받은 송별시집, 도민들에게 줄 선물과 한양과 교역을 하기위한 물품,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재경 제주민들로부터 부탁받은 서찰이나 선물만 해도 차고 넘쳤을 것이다.

“배에 태워 보내라”는 정조의 명이 아니었으면 그 많은 선물은 지고 올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배로 오나 서둘러 걸어도 시간은 비슷하지만 배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짐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간에만 항해를 하고 포구에 정박했다 물때와 바람에 맞춰 2주 정도면 조천포구에 들어 올 수 있었다. 그때 이용한 배는 조운선을 이용해서 몇 번에 걸쳐 갈아타고 돌아왔을 수도 있다.



1. 백도 2 인양해서 목포항에 거치한 세월호 304명이 희생됐다. 3 제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실렸던 중장비가 휴지장처럼 휘어 있다. 4 새로 인천-제주 노선을 취항한 비욘드 트러스트호.



### 국내 유일의 범선을 타고 제주로 항해

바람의 힘과 해류에 의지해 항해하는 돛배는 전복, 좌초, 표류, 침몰의 위험이 높아 생명을 걸 용기가 필요했다. 넓은 제주해협의 큰바다를 건너 김만덕의 심정을 가늠해 보기 위해 몇 번 완도에서 배로 건너보았고 목포해양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을 시승해보고 조운선도 살펴보았지만 직접 건너보기 전에는 실감할 수 없었다.

마침 국내 유일의 범선인 코리아나호 전채호 선장님으로부터 제주까지 항해한다는 전갈을 받고 여수로 달려갔다. 선장님께 “요즘 젊은이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김만덕의 도전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배로 바다를 건너 걸어서 한양까지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바람을 나눴었다.

기원 전 고대 이집트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대양을 항해한 배와 우리나라 배도 모두 범선이었다. 하나의 횡범을 단 것에서 여러 개의 돛을 달아 속력을 높이기 위한 배도 나타났다.

범선은 돛과 기관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을 기범선(機帆船)이라고 하고 돛으로 바람에 의해 항진할 경우에는 항법상 범선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오늘날 소형어선·요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선은 돛과 보조용 동력기관을 갖춘 기범선이다. 1983년 네덜란드에서 건조한 코리아나호의 제원은 길이 41m, 총톤수 135톤으로 정원은 71명이다. 돛을 올리고 내리려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5





## 9일 간의 제주 항해

8월 24일 여수를 출항하여 연도-백도-거문도를 거쳐 성산포항에 27일 도착했다. 채제공의 후손인 채바다 선생님과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님, 광민 팀장님이 마중을 나와 선상에서 김만덕에 대한 강의와 환담을 나눴다. 29일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여서도-손죽도를 거쳐 여수도 돌아온 9일간 남해를 체험하였다. 낮에는 항해를 하고 저녁에 인근 섬의 포구에 정박하며 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였다. 김만덕이 바다를 건넌던 배보다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었지만 거친 파도에 몰아치는 태풍을 헤치고 나가는 배에서 멀미와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듯싶었다.



5 범선 코리아나호 6 우도 7 전재호 선장과 김상훈 관장  
8 태풍으로 피항했다 출항할 때 무지개가 배웅한다.9 멀리 보이는 제주도 성산봉과 우도. 10 목포해양연구소에서 재현한 조선통신사선 11 진수식에서 행진하는 병사들 12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칼춤.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의 군무는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 김만덕, 금강산 유람

한양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양주-파주-김화-금성을 거쳐 내금강에 이른다. 현재 갈 수 있는 곳은 철원군 김화읍 생장리이다.

### 한양을 떠나 첫 번째 숙박지 양주관아

양주관아는 1506년에 설치되어 417년 동안 양주목을 다스렸다. 양주목의 규모는 약 31개의 관아 시설에 326여 칸 규모였다고 한다. 일제에 의해 훼손된 관아지를 1997년 동헌(매학당)을 시작으로 부속건물 등을 복원하였다.

매학당 동쪽으로는 18세기 양주 목사 송덕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학당 뒤에 정조가 양주관아에 행차하여 활을 쏜 것을 기념하는 어사대비(御射臺碑)가 있다.



1



## 양주향교

양주향교는 조선 1401년(태종 1)에 건립된 후 많은 유학자를 양성하던 지방의 교육기관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고 1610년 재건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소실되었다. 전쟁 후 유림들이 뜻을 모아 대성전을 먼저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주향교에는 고대 중국 성인과 신라, 고려, 조선시대 18 선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유덕을 추모하고 있다.

## 양주별산대 놀이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지역에

서 전승되는 산대놀이 계통의 탈놀이이다. 고려~조선 후기까지 전승되던 산대잡희(山臺雜戲)가 민간화되어 예인집단을 중심으로 서울에 본산대가 형성되었고, 양주에 전승된 것이다.

이 놀이는 중부지방의 탈춤을 대표하는 놀이로서 해서지역 탈춤과 함께 한국 가면극 중 연극적인 볼거리가 풍부한 전통 가면극이다.

이 놀이는 제1과장 상좌 춤: 어린 중이 연희자와 관객들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방신께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무, 제2과장 움중과 상좌: 양주별산대놀이를 대표하는 춤과 깨끼춤이 절묘하게 어우러짐, 제3과



1 양주 관아 2 양주 향교 3 금강산 가는 길에서 만난 꽃밭. 굶주린 백성에게 생명의 쌀을 나눈 김만덕의 의로움을 높이 산 정조가 내린 날랜 말을 갈아타며 금강산 가는 연도에 많은 백성이 축하했다고 한다.



장 목중과 움중: 움중의 거드름춤과 먹중의 깨끼춤으로 특권계층을 풍자하면서 서민들의 자유정신을 나타내는 과장, 제4과장 연잎과 눈꿈쩍이: 고승인 연잎과 그를 보필하는 눈꿈쩍이는 이 땅의 평화와 박애정신을 나타냄, 제5과장 팔목중놀이: 염불놀이는 당시 세속화된 종교문화를 꼬집고 풍자, 침놀이는 부족한 먹거리 등 서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 예사당 법고놀이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연희로 왜장녀와 애사당의 춤, 완보와 말뚝이의 재담이 백미 제6과장 노장: 파계승 놀이, 신장수 놀이, 취발이 놀이, 제7과장 샌님: 의막사령놀이에서는 당시의 신분사회에 대한 불만과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고 포도부장놀이에서는 포도대장이 권력을 이용해 소첩을 차지하는 당시 타락한 권력을 풍자, 제8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 미알할미가 죽는 과장으로 서민생활의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이 대사

와 연희에 그대로 배어나오는 서글픈 연희 등 전체 8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에는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등이 등장하여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로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월초파일, 단오, 추석 등에 연행되었다.

### 유양팔경

1. 산성에 떨어지는 굵게 물든 저녁노을 - 산성낙조
2. 기당굴에 내리쬐는 우렁찬 폭포 - 기당폭포
3. 백화암의 은은한 종소리 - 화암종성
4. 선동의 향기로운 지짐꽃 - 선동자화
5. 금화정 미래를 다짐하는 저문 연기 - 금화모연
6. 승학교 연기긴 버들 - 승학연류
7. 도봉산 밝은 개인 달 - 도봉제월
8. 수락산의 한가롭게 도는 구름 - 수락귀운





## 회암사지

회암사의 창건 시기는 1174년(고려 명종 4)에 금나라 사신을 맞이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12세기 무렵에 존재한 규모 있는 사찰이었다.

고려말-조선초에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고 명망 있는 고승들이 머물렀다.

1326년(고려 충숙왕 13) 인도 승려 지공의 제자인 나옹이 1376년(우왕 2) 262칸 규모로 중창하였다. 조선 초에는 무학대사가 회암사에 머물고 태조의 행궁역할을 하였다.

이후 효령대군, 정희왕후, 문정왕후 등 왕실 인물들의 후원을 받아 최대의 왕실사찰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 사후 사세가 급격하게 기울어 1566년(명종 21)-1595년(선조 28) 무렵 유생들의 방화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1605년(선조 38)에 어실(御室)을 조성, 1626년(인조 4) 재건했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 폐사됐다.



## 철원의 옛땅을 기억하는 외로운 바위 고석정

한탄강 협곡에 홀로 우뚝 서 있는 화강암 바위(높이 약 15m)와 일대의 정자를 고석정이라고 한다. 이 일대의 기반암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은 1억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용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약 54만 년~12만 년전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에 의해 고석은 완전히 파묻혔고, 이후 강물의 침식작용을 받아 다시 지표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따라서 고석은 용암대지 형성 이전의 원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지질 유산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이 이곳에서도 분포하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찾는 탐방객이 많다.

현재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철원군 김화읍 생장리까지다. 광화문에서 110km로 자동차로 2시간이면 닿는다. 포천에서 내금강까지 76km 지척인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날을 기대한다.



4 고석정. 제주도의 화산석과 같은 현무암이 반갑다. 5 포천향교

6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세워진 이정표. 금강산 76km, 김화 16km



## 배 타고 찾아간 김만덕기념관

문기덕

224년 전 김만덕이 제주로 귀향했던 항로를 따라 비온드 트러스트호가 첫출항을 하였다. 김만덕의 은혜로운 뱃길을 체험하기 위해 딸과 손녀 3대가 배에 올랐다.

김만덕 할머니께서 제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제주로 왕래했던 고초를 생각하며 인천항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열린 뱃길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회사 일로 김만덕기념관을 찾아 가는 길에 딸과 손녀도 동행했다. 뛰며 놀며 즐거워하는 손녀 모습에 내 마음도 설렘다. 일찍 도착한 우리는 TV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보도경쟁에도 놀랐지만 그보다 어마어마한 배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랐다. 비온드 트러스트호는 2만7천 톤급으로 한번에 93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묵을 객실(37만 원)은 아늑한 분위기에 침대는 3명이 함께 자도 될만큼 넓었다.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는 파도 없이 잔잔해 한 폭의 멋진 그림 같았다. 날이 어두워져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여유 있게 맥주도 한 잔 마셨다.

밤 8시, SBS뉴스에 딸과 손녀가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와 환호성을 질렀다. 텔레비전에 가족이 나오다니! 꿈꾸는 듯 떨리고 기분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식사를 하고 배 위를 둘러보았다. 가족단위로 온 사람과 동호회, 친목단체에서 온 이들이 보였다. 넓은 휴식 공간에 가슴이 확 트일 만큼 바람이 상쾌했다. 6층 객실 뒤쪽은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과 한라봉 등으로 제작한 포토 존이 멋지게 자리하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위험한 바다를 건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딘 조상들이 존경스러웠다. 지금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전광판 화면에 나온 홍보영상을 유심히 봤다. 층층이 설계되어 합치된 모습이 큰 로봇처럼 단단하고 훌륭해 보였다. 대한민국의 조선업 기술에 감탄하였다. 빛나는 우리나라, 더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김만덕 할머니는 200여 년 전에 몇 날 며칠 물길 따라 바람 따라 온갖 고초와 추위에 떨었을 것이다. 지금은 한숨 자고 나니 와아, 제주 도착이다!

정조대왕 때 자신의 재산으로 제주 도민을 구제한 김만덕 기념관에 갔다. 처음 방문했는데 잘 정돈된 기념관이 보기 좋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나눔 활동과 끝없는 사진에 마음이 동요되고 감동했다.

찬란한 빛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 할머니를 이해하기에 하루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진정 아름다웠다.

김만덕 할머니! 배우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 김만덕 기념사업 이야기

양원찬 (재)김만덕재단 이사장

김만덕기념 사업회는 1971년 10월 23일 제주도의 자선가 김만덕의 묘소를 방치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묘소 이전과 함께 김만덕의 정신과 공덕을 알리기 위해 설립(명예회장 이승택, 회장 홍정표)됐다. 제주향토사학자인 김태능 선생이 저술한 ‘김만덕전’을 간행했고, 드라마 ‘정화’가 종방 된후 1976년 도민 성금으로 모충사를 설립했지만 1977년 김만덕 묘 이전 사업을 끝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1978년 7월 자수장(刺繡匠) 한상수 여사가 모충사 관리실 일부를 ‘김만덕관’으로 만들어 민속품과 의상을 전시한 한편, 1995년 자선의 밤을 마련해 ‘김만덕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만덕동산 조성사업 등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한상수 여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뜻있는 도민들을 모아 2000년 9월 25일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재발족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여성들의 친목모임에 머물고 있었다.

2004년 2월 25일 서울과 제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아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출범식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낸 성금만 2억5,000만원 이었다. ‘김만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제주 사람들이 한 뜻이 될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김만덕기념사업회는 3월 25일 법원 등기를 마쳐 명실상부한 기념사업회가 되었다.

김만덕기념사업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김만덕 할머니 얘기가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나눔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자는 뜻이다. 김만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검인정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는 목적은 5년 만에 달성됐다. 창착과 비평사에서 2009년 발간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김만덕의 선행이 실렸고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국정 교과서에까지 수록되었다.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임원 구성에 제주 거주자 3분의 2, 서울 거주자 3분의 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당초에는 도의회 회장을 했던 송봉규씨를 대표로 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삼영교통 강재업 사장과 서울의 고인호 서울도민회장, 고앵자 씨와 부청자 씨, 고두심 씨를 공동대표로 모시고 문영자 씨와 나는 실행위원장을 맡아 실무 전반을 책임졌다.

첫 사업으로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 조사연구’를 간행했고, 그해 7월 ‘여성의 시대’ 제주 여인 김만덕’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2005년 6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화폐 도안 인물 관련 토론회를 주도하고 그해 7월 제주도지사에게 ‘만덕봉사상’ 수상 대상을 도내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해 이뤄지기도 했다.

**우리는 정부에서 발행한 5만 원권 화폐에 김만덕의 초상을 넣는 일을 추진했다.** 각계 각층을 상대로 백방으로 공략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화폐도안을 위해선 국가표준 영정이 있어야 했지만 영정도 없었고 김만덕 일대기가 드라마로 방영된 적은 있으나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신사임당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김만덕 초상이 지폐에 도안되는 것에 실패해 김만덕기념사업회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속이 탔다. 나는 김만덕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모으는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기념회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가시적인 이벤트가 필요했다.

**2007년 7월 28일 제주시 관덕장 앞마당에서 펼쳐진 ‘김만덕 나눔 쌀 천 섬 쌓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김만덕의 나눔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김만덕의 아름다운 업적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다. 다행히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하고 도내 초, 중, 고학생 교육차원에서 대대적인 쌀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 역시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했다.

관덕정 앞마당에서 펼쳐진 ‘김만덕 나눔 쌀 천 섬 쌓기 운동’ 행사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대성 제주도의장, 강창일 국회의원,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 이현숙 대한적십자 부총재 등 제주 안팎의 인사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 달여 간 진행된 이 행사를 통해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제일동포까지 힘을 보태줘 생각보다 훨씬 많은 1,227섬(10만 2,160kg)이 모아졌고 제주도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제주에서 처음 추천된 천 섬 쌓기 운동은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이뤄진 일이지만 무척 감동적이었고 2~3년 안에 서울에서 만 섬 쌓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여름 제주시에서 처음 시작한 ‘김만덕 나눔 쌀 천 섬 쌓기 운동’은 사실상 2009년 10월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운동’을 기획하며 2009년 서울시의 세계 빈곤퇴치의 날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되긴 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울시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관내에 단체를 등록해야만 했기 때문에 내 개인 사무실을 김만덕기념사업회 분사무소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한 후 응모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돈은 3억 원이지만 30억 원으로 돌려줄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10배 장사하는 셈’이라며 만 섬 쌓기 운동의 실질적 효과는 서울시가 볼 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강조하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처음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제주도에 등록된 단체여서 서울시로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 해도 선뜻 선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공모에 응한 단체는 우리를 포함해 7개로 7대1의 경쟁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70대 1이라도 되는 높은 된다는 자신감 하나로 기를 썼고 끝내 서울시에서 2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서울시내 130만 명의 초, 중, 고학생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설득했다. 공 교육감은 흔쾌히 동참해 주었다. 이어 한국교총, 전교조에 도움을 요청해 교육관련 단체들과 대한불교 조계종이 발 벗고 나서자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갔다. 2009년 6월 22일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사가 23일자에 보도됐다. 23일은 공교



롭게도 신사임당 5만 원 권 화폐가 발행되던 날이었다.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는 중앙일보 사회면 톱을 장식했고, 신사임당 5만 원권 화폐 발행 소식은 우리 기사 뒷면에 보도됐다. 통쾌했다. 소심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정말로 통쾌했으니까. 속으로 ‘아이고 만덕 할머니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다. 언제고 10만 원권 화폐 인물이 선정된다면 그땐 김만덕 할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처음 조직위원장을 맡은 고두심 씨와 나는 노력한 만큼 돌아오리라 기대했지만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서울시교육청을 첫 파트너로 꼽은 이유는 13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 운동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배우게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쌀 모으기에 나서면 부모들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최소한 400만 명의 서울시민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운동이 추진되는 것을 안 중앙일보 ‘위스타운동본부’가 함께하자 제안해오고, KBS가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아! 이젠 됐구나’하는 안도와 흥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얼마 후 이명박대통령이 그해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이 시대의 표상으로 언급할 때에는 그야말로 전율이 느껴졌다. 대통령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김만덕의 일대기를 소개한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이보다 앞선 7월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평화포럼에 참석차 제주에 왔다가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 소식을 듣고는 우리말 영상메시지를 통해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빈곤퇴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를 지원해주었다. 반 총장의 우리말 영상메시지를 받기까지는 에피소드가 있다. 제주 출신 문정인 교수와 당시 원희룡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유엔 측과 반 총장의 영상 메시지에 대해 협의했으나, 반 총장을 면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영어, 프랑스어 등 유엔의 공식 언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막아선 것이다.

물러설 수 없었다. 우리는 고두심 씨를 내세웠다. 고두심 씨가 서울에서 아침 첫 비행기로 내려와 해비치 호텔 대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내 외 인사는 물론 현장으로 취재하던 기자들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반기문 총장의 평화포럼 기조연설 후 열린 오찬에서 고두심 씨를 일부러 반 총장 옆자리에 앉도록 테이블 좌석을 배치한 것이다.

고두심 씨 팬이라는 반기문 총장은 고두심 씨의 우리말 영상 메시지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며 즉석에서 영상 메시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마침 행사가 열리는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기도 해서 김만덕 나눔 쌀 1만 섬 쌓기 행사가 유엔의 취지와도 잘 부합되는 행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상 메시지 촬영은 기자나 카메라가 못 들어오게 한 후 유엔 경호팀과 청와대 경호팀이 호텔 2개 층을 완전히 통제한 철벽 경호 속에 진행됐다. 반 총장이 한국어로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엔 관계자들이 한사코 안 된다며 가로막는 바람에 이를 설득하느라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다행히 반 총장의 배려로 한국말 영상 메시지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공식 언어가 아닌 자국어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오찬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현직 외교부 장관과 정부인사,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들이 있었으나 고두심 씨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었다. 고두심 씨는 반기문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직접 만나 뵙게 돼 너무 좋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반기문 총장 역시 “뉴욕에서 올 때부터 고두심 씨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 시작을 선언한 후 4개월 만인 2009년 10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가 2시간 동안 생중계하는 가운데 본 행사를 치렀다.** 바람이 많이 불고 꽤 쌀쌀했으나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손을 잡고 와 참여했고 현장에서 쌀을 구입해 기부하는 시민들 역시 많았다. 당초 목표는 1만 섬이었으나 서울시내 130만 명의 초, 중, 고 학생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동참하는 결과 목표치의 배가 넘는 2만2천섬(1섬20kg)의 쌀이 모아졌다. 이 행사로 모은 기부금품 액수가 28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이날 모인 쌀은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 내 무료급식소 900여 곳, 사회복지관 90여 곳, 생활시설 30여 곳과 빈곤가정,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달됐고 어린이재단 전국 16개국 지역본부를 통해 지방과 해외이웃들에게도 전해졌다.

언제 제주도가 서울 한복판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생중계하고 MBC, SBS까지 후원하겠다고 나서고 언론이 크게 주목한 적이 있었을까?

서울 시내 1,240개교 130만 명, 교원단체연합회 16만 명, 고려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 10만 명이 쌀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참여했다.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와 민단, 한국부인회도 함께 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삼성, 우리금융그룹, KT에서는 기업차원에서 참여했다. 다 김만덕 같은 선조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형의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제주에 있었다는 건 대단한 자부심이자 우리 제주의 무형의 자산이다.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는 성과만큼이나 잔잔한 에피소드도 많았다. 10월 17일 열린 광화문 광장 행사 당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는 천막 안으로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슬며시 들어와서 하얀 편지봉투 하나를 놓고 돌아갔다. 봉투를 열어본 자원봉사자는 깜짝 놀랐다. 100만 원 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자원봉사자는 “할머니”하고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봉투엔 ‘박말다’라는 이름뿐이었다.

### 익명이나 다름없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구청을 통해 박말다 할머니를 수소문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나와 고두심 씨는 종로구 사직동에 살고 있는 박말다 할머니를 찾아갔다. 박말다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천주교 세례명으로 여든다섯에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이였다.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월 50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달동네 쪽방 한 칸이 할머니 재산의 전부였다. 할머니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은 100만 원은 할머니한테 꼭 필요한 돈이었다.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로 조만간 헐리게 돼 이사비용으로 차곡차곡 모았던 적금이였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할머니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 500만 원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해놓은 상태였다. 생계지원비 중 매월 4만 원을 떼내며 동남아 어린이 후원금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고 받드는 김만덕 할머니이시구나!’ 닭을 사이도 없이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옆에 있던 고두심 씨도 한마디도 못 있고 할머니 손만 만지고 있었다.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제주 출신 양용은 선수와 최경주 선수도 함께 나눔 쌀을 전달한데 이어 2009년 US아마추어골프챔피언십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며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안병



훈(17세)군도 쌀 10섬을 기부했다. 안병훈 군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평풍 사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재형과 자오즈민 커플의 아들이다.

수백만의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인 고두심 씨는 1년간 영화 1편 외에는 드라마 촬영을 중단하는 등 방송 출연도 접으며 열정적으로 모금 사업에 뛰어 들었다. 목표치를 갑절 넘게 초과한 것도 고두심 씨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다닌 덕분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다. 우리는 일본까지 사서 모금 운동을 벌였다. 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뛰며 동지가 됐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제주라는 뜨거운 열정만 있을 뿐인데도 그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 아마 동병상련의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2억6천만 원 중 1억7천만 원만 사용하고 남은 9천만 원을 서울시에 다시 반납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는 굉장히 놀라워했다.** 100만 장 이상의 홍보 팸플릿은 살림인쇄소에서 5천만 원 행사에 지원하는 취지에서 무료로 해줬고 자원봉사자 회의 등 웬만한 운영경비는 모두 우리 주머니를 털어 충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쓰다 남은 비용을 반납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예산 책정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예산을 남겨 왔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일로 서울시는 우리를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됐고 2012년 두 번째 만 섬 쌓기 행사를 할 때도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었다.

이 행사의 총무 역할을 한 현성욱 치과원장, 기획을 맡은 오수용 변호사, 행사를 맡은 부두완 서울시의원, 모금을 책임진 김명두 스프링힐스 대표, 섭외를 담당한 강운형 의사, 홍보를 책임진 문봉희 숙명여대학교수와 윤순환 제주엔터테인먼트모임 대표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수없이 많은 미담과 감동을 가져올 수 있었다.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를 통해 기업체에서 모금한 15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해외 빈곤아동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한 뒤 1년 가까이 베트남에 학교건축 부지를 물색해왔다. 2010년 9월 27일과 28일 나와 고두심 씨가 베트남을 방문해 푸토성 인민위원회, 칸호아성 인민위원회와 만덕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학교건립을 구체화해갔다.

학교부지는 베트남 정부 측에서 내놓고 건물과 교육기자재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에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월남전 참전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의미에서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노이와 나트랑 인근에 만덕중학교와 제주초등학교를 세운 것은 그런 이유였다. 김만덕 학교 세우기 사업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교류뿐 아니라 나눔과 기부의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는 사업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소식을 들은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들도 최우수 강사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법률상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베트남 정부도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높이 사서 허가를 해주었다. 베트남에서 다른 언어로 학교이름이 지어진 최초의 일이었다.

이들 2개 학교는 베트남 국가 표준으로 지었는데 칸호아 제주초등학교는 20개 학급에 800여 명, 번푸 만덕중학교는 18개 학급에 300여명 규모로 지어졌고 베트남 정부에 기부했다. 칸호아제주초등학교는 제주한라초등학교와, 번푸만덕중학교는 제주제일중학교와 각각 자매결연을 하고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히 교류하게 했다.

김만덕기념사업회는 또 중앙일보 위스타트운동본부와 함께 ‘김만덕위스타트센터’를 칸호아 제주초등학교에 개설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칸호아 제주초등학교가 들어선 칸호아 지역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곳이어서 특별히 지정했다.

2개 학교는 김만덕기념조형물을 세워 그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일깨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은광연세(恩光衍世)



김옥선(수필가)

해마다 연말에는 『은광연세』라는 책의 교정을 본다. 제주 김만덕기념관에서 연감(年鑑)으로 발행하는 책인데, 수년째 교정을 맡다 보니 만덕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은광연세는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넘친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 후손에게 써준 글이라 한다.

김만덕이 누구이기에 추사 같은 명필이 붓을 들었을까? 임금의 행적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에도 등장하는 만덕은 어떤 인물일까?

영조 때 제주에서 태어난 만덕은 어려서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었다. 오갈 데 없는 그녀를 퇴기(退妓)가 거두어 만덕도 기생이 되었다. 23세 때 자신이 원래 양민이었음을 관가에 울며 호소하여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뺄 수 있었다.

그 후에 객주를 차려, 외지에서 온 상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물건을 맡아 판매하였다. 더 나아가 제주 특산인 전복과 굴, 녹용을 내다 팔고 육지에서 쌀과 무명을 사와서 팔며 사업을 키웠다. 장사에 재능이 있어 만덕은 제주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다.

1795년(정조 19년) 제주에 대흉년이 들었다. 흉년 전부터 태풍과 가뭄으로 기근을 겪던 터라 백성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조정에서 수차례 구휼미를 보내 주었음에도 굶어죽는 백성이 차고 넘쳤다. 이때 만덕이 자기 돈을 풀어 전라도에서 쌀 500석을 사다 관가에 기부했다. 덕분에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정조 임금이 이를 가록히 여겨 만덕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였다. 만덕이 제주 목사(牧使)에게 말했다. “왕궁과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명이 떨어졌다. “말과 양식을 내주고 만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당시에 제주에는 출륙(出陸) 금지령제도가 있었다. 섬을 벗어나려면 관의 허가가 필요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때에 물으로 나가겠다는 건 출륙금지령에 대한 당찬 도전이었다. 또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보고 싶다는 것도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웬만한 남자들도 가기 힘든 금강산을 여자 혼자 가겠다는니!

정조는 따뜻한 군주였다. 만덕에게 임시로 의녀(醫女) 직책을 주어 왕궁으로 부른 뒤, 왕비와 함께 직접 만나 고마움을 전했으니 말이다. 만덕의 여행길에 불편이 없도록 물심양면 배려했음은 물론이다. 조선 역대 임금 중에 ‘대왕’ 자를 붙일 만한 임금이 세종과 정조뿐이라는 평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널리 알리라며 영의정 채제공에게 『만덕전』을 짓게 한 것도 그가 성군(聖君)임을 증명하는 일화이다.

만덕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탐라에 도착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한다. 56세라는 적잖은 나이에 탐라를 떠나 장도에 올랐으니 놀მ쉬멍 여행을 했으리라. 일설에 의하면, 만덕은 73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임금이 잡았던 왼손을 비단으로 감싸며 평생 소중히 여겼다 한다.

얼마 전에 손주들이 집에 왔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에 동화로 된 『은광연세』를 읽어 보라고 주었다. 그러자 초등학교 손녀가 김만덕을 안다고 했다. 4학년 2학기 국어책에 나온다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 같은 지체 높은 부인이나 교과서에 등장했는데... 나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해도, 보잘것없는 신분의 만덕이 교과서에 실린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내가 만덕이라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Yes!가 금방 나오지 않는다. 기생 소리 들어가며 모은 재산을 다 내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홀어미가 의지할 곳은 재산뿐인데... 미천한 출신이지만 요즘으로 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여성 CEO였다. 대흥년 당시에 만덕 외에도 사재를 푼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후에 이재민을 구호한 대가로 진급을 하거나 새로 벼슬을 얻었다. 만덕이 관직에 나설 수는 없다 해도 신분 상승이나 사업 확장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욕망보다 강했다. 만덕이 200년 전 사람임에도 현대인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글로벌시대의 로망 앞 순위도 여행이기 때문이다.

책 『은광연세』에는 제주 출신 고두심 씨가 항시 등장한다.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 중인데다 1970년대에 만덕을 연기했던 인연이 작용했으리라. 나와 동갑인 고두심 씨가 만년에 자기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내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오긴 했다. 그렇다고 만덕처럼 적극적으로 선행을 한 적은 없다. 하늘나라에 갈 땐 선행만 따라 간다는데, 내겐 뚜렷한 한 방이 없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데 우찌 살아야 할지?

기념관에서는 ‘김만덕 사랑의 쌀’을 기탁 받아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중이다.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약간의 쌀을 기부할 생각이다. 『은광연세』 편역도 감상하면서 은혜의 빛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 김상훈 관장, 경영 마인드로 달려온 6년

"나눔사업은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지고 넘어야 할 사명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 김만덕기념관 관장으로서 소회

김만덕기념관 개관일은 2015년 5월 29일입니다. 개관에 임박해서 초대 관장으로 임명을 받고 5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 건물만 완공된 상태였는데 기념관을 운영해 보라고하니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인력, 예산, 규정은 물론 사업계획도 없어서 해결하면서 힘든 시기도 겪고 경험을 쌓다보니 김만덕 할머니 선양사업이 가슴 벅찬 감동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장으로 6년간 재직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물관과 나눔의 조합

김만덕기념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립 박물관으로 시작을 했고 도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







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고 제주도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중심이 되어야 창의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행사 운영비뿐입니다. 김만덕 할머니의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선정되어 나눔과 베품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매년 2~3억 원을 기부받아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유아,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기념관, 장수효도사진, 경제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 후원하신 분들은 기대치가 높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단위 자선단체와 달리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기부와 기탁사항을 사진으로 남기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집행하여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만덕의 정신인 나눔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 세계로 확산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 문화활동 지원

원래 김만덕기념관은 구휼을 통해 나타난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알리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순한 교육만 한다면 과연 의미가 있겠나 싶어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로비와 2층 휴게공간을 활용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를 원하는 작가도 없었지만 막 오픈한 기념관이 있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알아주질 않으니 섭외부터 난관이었는데 처음으로 강만보 사진작가가 전시에 응해 주었습니다. 사진기자를 하면서 70-80년대 제주만의 풍광과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조선후



기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초대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초상권과 원판을 기증해주었습니다.

채기선 작가의 한라산 포옹, 바람과 오름 - 백광익 작가, 이정미 작가 도예전, 정상기 작가 겨울 살이, 양종훈 작가-해녀전을 비롯해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작품을 전시- 가격의 절반은 기부를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눔문화의 확산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김만덕의 나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김만덕 정신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대학에도 자주 강의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활동할 시기는 지났지만 손주들이 물었을 때 잘 답변해주다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김만덕을 모르면 제주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기관을 찾아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하듯 도전, 용기, 나눔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만덕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기념관이 알려지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수효도사진 지원사업은 농협, 개발공사의 협찬을 받아서 수 천분께 사진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사진작가 선생님이 자원봉사를 하고 액자, 인화를 해드렸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위로를 드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몹시 아쉽습니다.





## 소식지, 나눔교재 발간

김만덕스토리북을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에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의뢰해서 김만덕의 삶을 보다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스토리텔링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추사 김정희에 관련해서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눔의 삶을 따라’와 고학년용으로 두 권을 만들어서 제주도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인 ‘은광연세’는 정조와 김만덕에 관련된 사료를 발굴한 역사적인 기록과, 1년 동안 기념관에서 이루어진 각종 행사, 기부하신 분들과 기탁 받은 기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공식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과 관련기관,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시는 2,000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김만덕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나눔활동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관에서는 친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1회용 물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을 기리며 써준 ‘은광연세’ 글자를 넣어서 머그컵에 넣어서 제작해서 많은 분들께 보급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에코백’과 시장바구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나눔공모전에서 시상한 분들의 작품을 넣어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제주도의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꽃자왈을 지켜야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 청결한 수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관련된 강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꽃자왈재단에 기부를 하여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리는 일만이 아니라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 관리, 운영을 맡고 있지만 저는 한 단계 높여서 위탁 경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35년 동안 경영을 맡아온 경험으로 볼 때 단순히 관리만 잘한다고 해도 김만덕기념관은 유지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관장으로 오실 분은 무엇보다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눔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고 해냈을 때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지고 넘어야 할 사명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후임자께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닦아 놓은 토대에서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경영해 나갔으면 하는 게 유일한 희망사항입니다.

### 김만덕기념관 방문객 코로나로 줄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8-2019년에는 연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400-500명 다녀가셨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휴관도 있었던 올해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김만덕이 어떤 분이고 활동을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3층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푸는 것이고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알려주는 2층 나눔체험관은 놀이를 통해 만지고 하다보면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방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만덕제봉행 주관

김만덕기념관이 만덕제봉행을 주관하면서 새롭게 시도하여 많은 호응과 칭찬을 받은 일 중 가장 잘 한일은 제관 선정을 기존 제주도내 여성단체협의회 내에서만 추천하던 관행을 과감하게 개방했습니다.

제주도 김해김씨종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만덕로터리클럽, 만덕라이온스클럽, 국제소롭트미스트제주클럽, 제주사회공동모금회, 삼광사덕희봉사회, 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사)여성중앙회제주도지부, 조천적십자봉사회, 건입동새마을부녀회, NH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회, 김만덕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들을 추천하여 명실상부하게 만덕제를 봉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체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당당한 제관의 역할 익히느라 고생이 많지만 그분과 보다 밀접한 교감을 나누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덕제를 봉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만덕제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여성으로서 참여하시 분은 김만덕의 후예입니다. 항상 기념관의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개관 이래 많은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6년간 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올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꼭 팀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준 직원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주요 행사

정상기 초대전  
한라산붉은겨우살이  
나눔(分享) 그리고 공존(共存)





## 제42회 만덕제 봉행

사라봉 모충사에서 차비대령(差備待令)인 행수의녀(行首醫女)  
김만덕을 기리는 제가 코로나19로 MBC TV 생방송으로 진행



분향하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위)  
헌화하는 김만덕 본정 6대손 김균선생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한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10월 17일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탑에서 열렸다. 2020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49인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도민들은 MBC TV 생중계로 만덕제를 지켜보아야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만덕 본정 6대손 김균선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오영희, 강민숙, 강성의, 한영진 의원과 (재)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과 문영자부이사장, 고두심, 김문자이사, 김만덕기념관 양영철 운영위원장, 김해김씨종친회 좌정승공파 김태훈 회장, 역대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만덕제에 참여한 제관 12명은 유교방식의 절차에 따라 차비대령 행수의녀 김만덕을 기리며 엄숙하게 제를 봉행했다.





초헌관 (김순희 김만덕상수상자회, 41회 경제인부문 수상자), 아헌관 김 제욱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종헌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 원 원장), 대축 현정숙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비자림봉사회), 봉향 허 희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회 여성회), 전작 강길선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외도동새마을부녀회장),

봉노 김향선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국내여행안내사협회) 봉 작 문애순 (만덕로타리클럽), 사준 김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 회 이사), 찬자 김영자 (라이온스클럽), 찬인 김형선 (국제소토티미스트 제주클럽), 집례 김연희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현장지원단장) 12 명의 제관. 김만덕상 봉사부문 김추자씨, 경제인부문 김경란씨.



##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상 수상자는 봉사부문 김추자, 경제인부문 김경란 씨



김만덕상 시상식은 고두심 김만덕 재단 이사사의 김만덕 일대기 낭독, 수상자 공적 보고 및 김만덕상 시상,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의 김채현군과 조윤하양의 김만덕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올해의 김만덕상 수상자인 봉사 부문에 김추자(78)씨, 경제인 부문에 김경란(59)씨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봉사부문 수상자인 김추자 씨는 1973년 당시 딸을 잃은 슬픔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50년 가까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기부 및 물품후원 하고 있다.

경제인 부문 수상자인 김경란 씨는 (주)제주사랑렌트카 대표로 제주도 지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우수관광사업체에 3회 연속 지정되는 등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고용 촉진 및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로타리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매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만덕상 봉사부문 김추자 씨



경제인부문 김김경란 씨





## 양상철 초대전<제주에 살다>

영주십경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작가에 의해 해석되고 재창조된 작품을 8.10-09.25 전시



### 작가 노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과 자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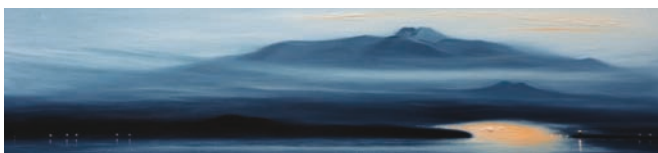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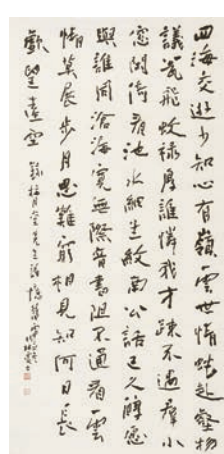
가족에게 위로받고 자연을 벗하며 살고 있다. 무더운 여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다. 한라산과 푸른 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곁에 부는 바람까지도 작품에 담았다.

규격이 커서 실내작업이 곤란한 것은 바깥(자연)작업을 했다.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100m 천두루마리 즉흥작품을 만들었다. 우리시대의 서예에 두 가지 숙제가 있다. 하나는 전통형식을 계승하여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예술의 심미를 빌려 새로운 서예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미학적 모순의 논점을 초월하여, 융합하는 자세와 시대미를 읽는 지식과 미래를 보는 혜안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동안 줄곧 서예의 정신성에 회화적 직관을 융합하는 작업을 해왔다.

나는 나의 작업이 서예든 회화든 아니면 또 다른 뭐라고 불리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심미세계를 찾아 도전한 작은 흔적으로써 만족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나는 작지만 내 안의 나는 항상 크다

## 신년기획전 '기억 그리고 인연'

공공의 나눔을 위하여 민속-생활품,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여러 인연을  
앞으로도 소중히 기억하며 김만덕기념관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간직한다.



### 공공의 나눔을 위한 기증 작품을 전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맺어진 인연, 여러 인연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모았다. 특히, 공공의 나눔을 위하여 민속-생활품,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여러 인연은 앞으로도 소중히 기억하며 김만덕기념관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간직하겠다. 전시된 기증작품은 강만보<콩불림질>, 강명순<연꽃한송이>, 강순자<말총>, 금다화<막사발-나비>, 김영관<김만덕전지공예 외>, 김부자<숫사발 외 공예품>, 김영선<구봉선생시>, 김은영<웨도우볼>, 백광익<오름 위에 부는 바람>, 양상철<은혜의 빛으로 피는 꽃 외>, 이영미<꽃피면>, 양화순<되박 외>, 이정미<물방울>, 장세훈<제주시산포이범>, 정웅표<매월당선생시-억구>, 채기선<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 탁주현<제주 곳자왈>, 한태상<자모음>, 만덕관 이전 유물 등이다.





## 정상기 초대전<한라산 붉은 겨우살이-나눔(分享) 그리고 공존(共存)>

혹독한 시기에 자신을 나누며 살아가는 붉은겨우살이의 모습은  
갑인년 흉년,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 제주 백성을 살린 김만덕의 모습과 닮아있다



### 겨울이면 한라산에 사는 애인만 찍는다

‘한라산붉은겨우살이-나눔(分享) 그리고 공존(共存)’ 초대전 오프닝 행사가 10월 8일 열렸다. 작품은 10월 5일부터 11월5일까지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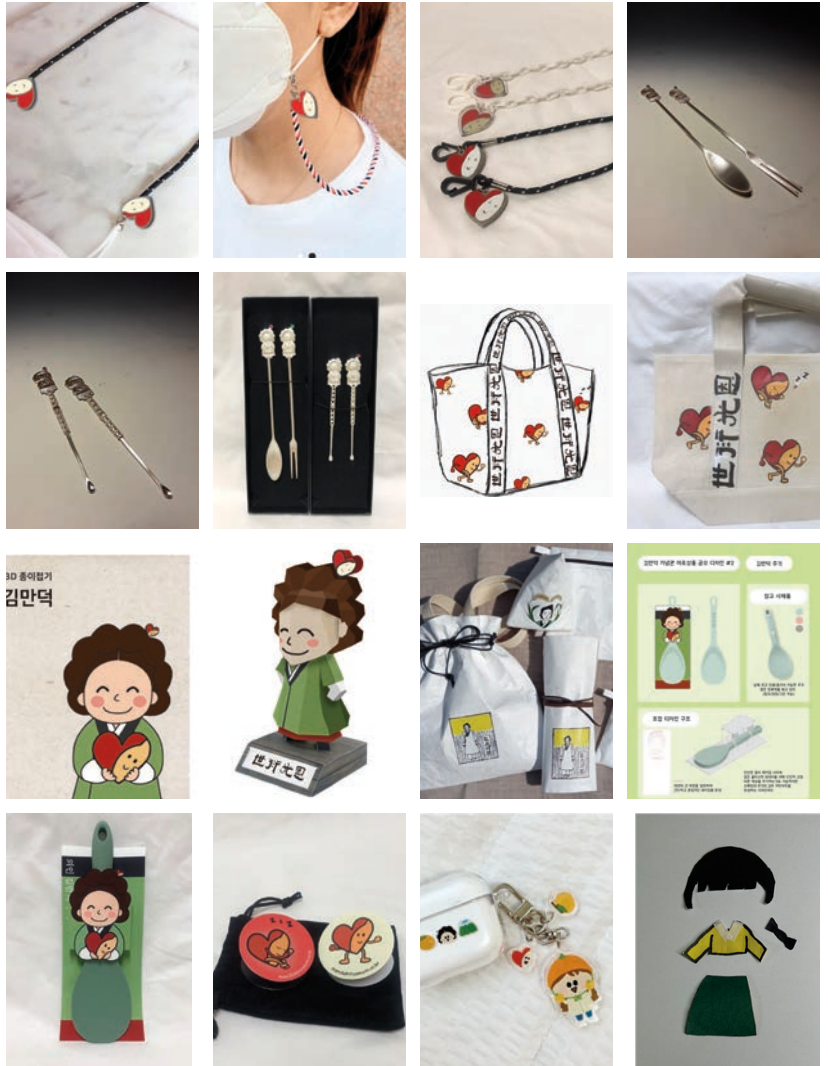
붉은겨우살이는 추운 겨울, 한라산 1,100고지의 숲에서 앙상한 참나무 가지 위에 붉은 열매를 틔운다. 먹거리 없는 겨울 숲에서 산새들에게 먹이가 되어주고 둥지가 되어준다.

혹독한 시기에 자신을 나누며 살아가는 붉은겨우살이의 모습은 갑인년 흉년,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 제주 백성을 살린 김만덕의 모습과 닮아있다. 정상기 작가는 매년 겨울이면 카메라를 둘러메고 제주도 한라산 1100고지로 간다. 거기 그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예쁜 애인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사진을 독학으로 시작한 지 20여 년, 육지에 살던 그가 제주에 입도한 지도 29여 년이 넘는다. 이제 그는 몸이나 영혼이나 의심할 여지 없이 제주 사람이다. 새집처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연히 망원렌즈로 촬영하였다고 했다. 그때부터 ‘붉은겨우살이’의 생태와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붉은겨우살이 애인을 찾아 촬영하고 있다고 했다.



## 제6회 김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아트상품 공모'

활용 가능한 아트상품을 공모하여  
대상 채설희 <나눔마스크 줄>외 아홉 작품이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한 제6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에서 김만덕기념관에서 활용 가능한 아트상품을 공모하여 총 아홉 작품이 수상하였다.

대상-채설희 <나눔마스크 줄>

최우수상-김영연<김만덕 주걱>

최우수상-장민지<김만덕 나눔 그림톡>

우수상-김민영 <만덕의 나눔 정신 실천 케이스>

우수상-이재호 <김만덕 캐릭터 생활용품>

우수상-현연경 <에코백>

장려상-김연규 <김만덕 종이접기>

장려상-김유하 <만덕 bag in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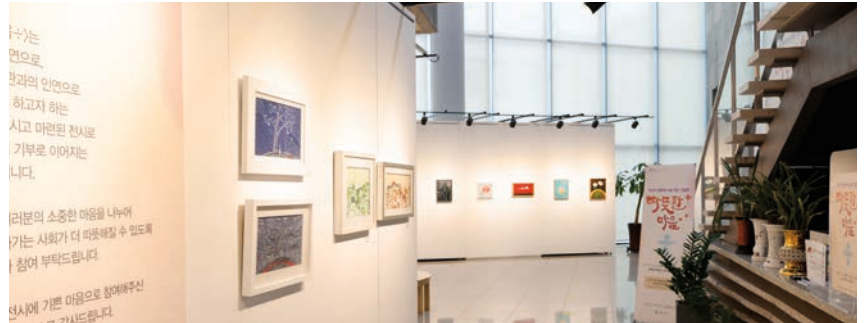
장려상-현다연 <김만덕 종이인형> 등이다.





## 2020 김만덕 나눔 작은그림전 '일상에 예술을 담다'

참여작가의 재능 나눔이 함께 보태어져 판매되며,  
판매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나눔 실천 전시



<따뜻한 마음÷>는 제주와의 인연으로, 김만덕기념관과의 인연으로 나눔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모시고 마련된 전시로 작품 구입이 기부로 이어지는 나눔 전시이다.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번 나눔 전시에 기쁜 마음으로 작가들이 참여 해주었다.

2021 김만덕 나눔 작은그림전 <따뜻한 마음 ÷>가 12월 23일(목)부터 내년 2월 25일(금)까지 김만덕기념관 1, 2층 만덕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참여작가는

강명순, 강영순, 강은희, 고경애, 고은, 객경돈, 권성운, 권순미, 금다화, 김복신, 김영자, 김용주, 김은진, 김인지, 김재호, 김현숙, 루씨쑈, 박길주, 박동심, 백광익, 송순이, 신승훈, 양상철, 양종훈, 양형춘, 육유정, 이미선, 이은선, 장영준, 전영실,

전은진, 전재현, 정상기, 조수아, 조의환, 채기선, 최미선, 최민서, 최연재, 하루아, 한용국, 현은주, 홍지안, 홍진숙 작가 44명이 참여했다.



김만덕 나눔 작은 그림전 <따뜻한 마음÷>展

## 2021년 제5회 김만덕 주간 '행사 보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마음나눔 캠페인 '밥 먹어수파', C원한 도서관, 제로포인트트레일과 함께 하는 기부하이킹 '더블N챌린지', 만덕주머니 209, 온라인 퀴즈대회 도전! 만덕벨, 김만덕 주간 MBC라디오 특집생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은혜의 빛' 콘서트, 제주농협과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데이 등을 실시하였다.



**제5회 김만덕 주간**  
2021. 10. 17(일) ~ 10. 23(토)  
“은혜의 빛이 온세상에 퍼지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제주농협, 제주 MBC  
문의: 064-759-6093, 6096 / www.mandukmuseum.or.kr



**제5회 김만덕 주간 행사 안내**

-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10.17(일) 10시 / 사라봉모퉁이 / 제주 MBC 특집생방송
- 마음나눔 캠페인 '밥 먹어수파' 9.16~10.25
- C원한 도서관 10.01~10.23 / 김만덕기념관, 한살림 제주당출판, 서귀포점북나눔무드마켓
- 제로포인트트레일과 함께하는 기부하이킹 '더블N챌린지' 10.01~10.30
- 만덕주머니 209 10.18~10.23 / 온라인 행사
- 온라인퀴즈대회 도전! 만덕벨 10.18~10.20 / 온라인행사
- 김만덕 주간 MBC라디오 특집생방송 '즐거운 오후 2시' 10.19(화) 14:00
- '은혜의 빛' 콘서트 10.20(수) / 온라인행사
- 제주농협과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데이 10.22(금) / 김만덕기념관

문의 : 064-759-6093, 6096 / www.mandukmuseum.or.kr



**제5회 김만덕 주간**  
2021. 10. 17(일) ~ 10. 23(토)  
“은혜의 빛이 온세상에 퍼지다”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10.17(일) 10시 / 사라봉모퉁이 / 제주 MBC 특집생방송



**마음나눔 캠페인**  
“밥 먹어수파”  
9.16 ~ 10.25



**C원한 도서관**  
10.01 ~ 10.23 / 김만덕기념관, 한살림 제주당출판, 서귀포점북나눔무드마켓



**제로포인트트레일과 함께하는 기부하이킹 '더블N챌린지'**  
10.01 ~ 10.30



**만덕주머니 209**  
10.18 ~ 10.23 / 온라인 행사



**도전! 만덕벨**  
10.18 ~ 10.20 / 온라인 퀴즈대회



**만덕주머니 209**  
10.18 ~ 10.23 / 온라인 행사



**은혜의 빛 콘서트**  
10.20(수) 19:00 / 온라인 행사



**사랑의 나눔데이**  
10.22(금) 14:00 / 김만덕기념관



**더블N챌린지**  
10.01 ~ 10.30 / 기부하이킹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10.17(일) 10시 / 사라봉모퉁이 / 제주 MBC 특집생방송



## 김만덕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 연구는 김만덕 관련 기초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김만덕 관련 자료 활용의 가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2020)에 이어 김만덕(1730~1812)의 다양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김만덕의 활약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연구 목적

2000년대 들어와서 김만덕 관련 사료집을 발간하였으나 일부 사료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고, 자료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에 발간된 자료 외에도 김만덕 관련 기록물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료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사업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만덕에 대한 자료를 관찬사료와 읍지류, 개인문집 등을 이용하여 발굴하고 아카이빙화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구를 통해 김만덕 당대와 사후에 이루어진 평가와 업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김만덕 관련 기초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김만덕 관련 자료 활용의 가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2020)에 이어 김만덕(1730~1812)의 다양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김만덕의 활약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 1)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규장각 각신·기타 관련 인물 및 문집 현황 분석
- 2)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지방관(목사·판관·현감) 저서 및 문집 현황 분석
- 3)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제주도 유배인 저서 및 문집 현황 분석
- 4)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제주 유림 저

서 및 문집 현황 분석

- 5)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제주 유림인 저서 및 문집 현황 분석
- 6)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제주 읍지류 현황 분석
- 7) 김만덕 생존-사후 시기(정조 즉위 이후) 관찬사료 현황 분석

### 3. 연구 방법

현재 김만덕 관련 기초조사 및 분석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만덕 관련 자료 발굴 가능성이 높은 개인 문집류와 그 외 관련된 문헌 자료를 검토할 것이다.

기초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김만덕의 행적과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무를 찾아내고 확인할 것이다.

기초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목록화하고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해 김만덕 관련 자료의 가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사업 결과는 차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작업의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이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만덕 관련 기초자료 분석 대상은 본문에서 그 출처를 제시함으로써 참고문헌을 대신하였다.

### 4. 연구 의의 및 한계

『김만덕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는 김만덕 생존 시기부터 사후까지 김만덕의 행적과 활동 상황을 발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김만덕의 활약상을 확

인할 수 있는 사료(관찬사료, 읍지류), 개인문집 등을 하나 하나 확인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김만덕이 생존한 시기부터 사후까지 분석 범위를 설정한 것은 당대 행정가와 학자들이 최소한 김만덕의 행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김만덕과 관련하여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서 논의된 과정과 관직을 지낸 인물들 특히 정조의 명을 받은 경우, 규장각에서 시험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서술한 글들은 이미 1차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급된 자료 외에 김만덕의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김만덕에 대한 인식과 도성에서의 움직임 및 금강산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파악할 만한 자료들은 『김만덕자료총서II』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조의 언급과 중앙관료들의 언급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조사되지 못하였다.

사료 중에서도 규장각을 거친 관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조가 김만덕에 대해 요구 사항을 물었고, 그와 관련하여 다수의 인물들이 언급한 내용들이 실려 있으나, 검토되지 않은 인물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그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였을 때 미공개된 자료를 발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김만덕의 역사적 기록물이 빈약한 관계로 상업활동 내용, 선박 규모, 무역 항로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료는 물론 지방관, 유배인, 유람인들의 저서와 문집을 발굴하여 김만덕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자 했다.

또한 각 문헌별 내용을 살펴본 후에 김만덕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김만덕 당대와 사후에 김만덕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와 문집의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김만덕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학자와 대표 저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서와 문집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한 결과

김만덕 관련 새로운 자료는 일부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저서와 문집 이외에 전국의 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문집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남아있다. 아쉬운 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확인하지 못한 저서와 문집 목록을 제시할 수 있었고, 결국은 김만덕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이 이 연구의 의의이자 한계이다.

## II. 규장각 각신·기타 관련 인물 및

### 문집 현황 분석

김만덕의 행적이나 업적과 관련하여 그 당시 중앙관료들의 기록물을 조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료 발굴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김만덕 당대 또는 사후 시기 규장각 각신과 저서를 분석하여 김만덕 관련 사료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규장각의 인원 구성을 보면, 제학(提學) 2원(員), 직제학(直提學) 2원, 직각(直閣) 1원, 대교(待敎) 1원이었다. 규장각은 내각으로 불리었고, 강화도에 외각이 설치되어 관리하는 관원들이 있었으나 내각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달라서 김만덕과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장각을 거친 인물들은 각신을 포함하여 초계문신과 검서관 등의 직을 지닌 자들이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선정 시기는 김만덕이 조정에 알려진 시기인 1795년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1795년(정조 19, 을묘) 12월 이후에도 생존한 규장각 각신들의 저서를 검토하여 김만덕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규장각 각신 및 문집 현황

#### 1) 제학(提學) 관련 인물 및 문집 현황

규장각 각신으로 임명된 자는 정조대만 파악하더라도 제학(提學)은 1776년(정조 원) 6명, 1777년 3명, 1778년 2명, 1779년 4명, 1780년 5명, 1781년 3명, 1782년 1명, 1783년 5명, 1784년 1명, 1786년 4명, 1788년 2명, 1789년 4명, 1790년 3명, 1792년 2명, 1793년 1명, 1794년 4명, 1795년 3명, 1798년 1명, 1799년 1명, 1800년 3명이



다. 등 총 58명이다. 이 중에는 중복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직제학, 직각, 대교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증가할 것이다. 다만 규장각 각신들이 모두 문집을 펴낸 것도 아니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인물들도 있으며, 개별 문집 발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물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으나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규장각 각신으로 이복원(李福源, 1792년 사망), 황경원(黃景源, 1787년 사망), 서명응(徐命膺, 1787년 사망), 홍국영(洪國榮, 1781년 사망), 이휘지(李徽之, 1785년 사망), 오재순(吳載純, 1792년 사망), 조경(趙敬, 1787년 사망), 이성원(李性源, 1790년 사망), 박우원(朴祐源, 1794년 사망)을 비롯하여, 물년을 알 수 없거나 문집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김면주(金勉柱), 김우진(金宇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95년(정조 19, 을묘) 12월 이후에도 생존한 인물로 문집 등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유언호(兪彦鎬), 김민시(鄭民始), 심환지(沈煥之), 이만수(李晩秀), 채제공(蔡濟恭), 김종수(金鍾秀), 윤시동(尹蓍東), 김조순(金祖淳), 김재찬(金載瓚) 등 9명이다.

## 2) 직제학(直提學) 관련 인물 및 문집 현황

직제학 관련 인물로 분석 대상은 홍국영(洪國榮), 유언호(兪彦鎬), 정민시(鄭民始), 김우원(金宇鎭), 서조수(徐浩修), 심염조(沈念祖), 정지검(鄭志儉), 서유방(徐有防), 박우원(朴祐源), 오재순(吳載純), 이병모(李秉模), 김희(金熹), 김재찬(金載瓚), 서정수(徐鼎修), 서용보(徐龍輔), 정대용(鄭大容), 이만수(李晩秀) 등 17명이다.

이 중에서 1795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홍국영, 오재순, 박우원(1794년 사망)과 앞서 제학을 조사하여 중복되는 인물인 유언호, 정민시, 이만수, 김재찬 등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서호수, 서유방, 이병모, 김희, 정대용, 김우진, 심염조, 정지검, 서정수, 서용보 등

10명이다.

## 3) 직각(直閣) 관련 인물 및 문집 현황

직각 관련 분석 대상은 이병모(李秉模), 정지검(鄭志儉), 김희(金熹), 김면주(金勉柱), 서정수(徐鼎修), 김재찬(金載瓚), 서용보(徐龍輔), 정동준(鄭東浚), 정대용(鄭大容), 이만수(李晩秀), 윤행임(尹行恁), 서용보(徐榮輔), 남공철(南公轍), 김조순(金祖淳), 이시원(李是遠), 심상규(沈象奎), 김근순(金近淳) 등 17명이다.

이 중에 앞에서 분석한 대상인 이병모, 정지검, 김재찬, 김희, 김면주, 서정수, 정대용, 이만수, 서용보, 김조순 등 10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동준, 남공철, 이시원, 윤행임, 서용보, 심상규, 김근순 7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4) 대교(對校) 관련 인물 및 문집 현황

대교 관련 인물 분석 대상은 서용보(徐龍輔), 김면주(金勉柱), 정동준(鄭東浚), 이곤수(李崑秀), 윤행임(尹行恁), 김조순(金祖淳), 심상규(沈象奎), 서유구(徐有渠), 이존수(李存秀) 등 9명이다.

이 중에 앞에서 다룬 인물로 서용보, 김면주, 정동준, 윤행임, 김조순, 심상규 등 6명을 제외하면 이곤수, 서유구, 이존수 등 3명이 해당된다.

## 5) 검서관(檢書官) 관련 인물 및 문집 현황

검서관 관련 인물 분석 대상은 서이수(徐理修),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등 4명이다.

## 2. 규장각 초계문신 및 문집 현황

규장각의 초계문신의 명단은 『초계문신제명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초계문신들의 인원 현황을 보면 1781년(정조 5) 16명, 1783년(정조 7) 16명, 1784년(정조 8) 7명, 1786년(정조 10) 6명, 1787년(정조 11) 5명, 1789년(정조 13) 15명, 1790년(정조 14) 19명, 1792년(정조 16) 9명, 1794년(정조 18) 31명, 1800년(정조 24) 14명, 1846년(헌종 12) 20명, 1848년(헌종 14) 36명 등 총

194명이다.

따라서 김만덕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장각 초계문신들의 인적사항과 문집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규장각 각신과 같으며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였다. 여기서는 규장각 초계문신의 명단만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문집명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부록 1~5> 참조).

### 3. 규장각 초계문신과 김만덕

이 절에서는 규장각 초계문신 중에 김만덕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집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초계문신 홍희준과 기록 내용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활동했던 홍희준의 기록에서 김만덕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 洪羲俊(1761, 영조 37~1841, 헌종 7)

홍희준은 본관이 豊山이다. 자(字)는 仲心이고, 호(號)는 薰谷·傳舊翁·貫翁이며, 初名은 樂俊이다. 父는 挺漢이며, 生父는 良浩, 母는 全州 李氏(匡會의 女)이고, 生母는 東萊 鄭氏(錫耆의 女)이다. 1794년 34세의 늦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抄啓文臣으로 선발되었다. 1794년 10월부터 이듬해 윤2월까지 冬至正使인 생부 홍양호를 배행하여 북경에 다녀왔으며, 1804년 成均館典籍에 제수된 것을 시작으로 1834년까지 정승을 제외한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26년 10월부터 1827년 3월까지 동지정사로 사행을 다녀왔다.

그의 저서로는 전구(傳舊)(奎, 古 3428-290)가 있다. 이외에도 『大貫』, 『刀文』, 『圖卦發蘊』, 『玩易大旨』, 『五服隆厚錄』, 『經書輯釋』, 『南明綱目』, 『華東音源』, 『經書古音』 등이 있다. 특히 홍희준은 易學과 言語學, 象數學, 禮學 등에 관심이 많았다.

홍희준의 저서 중에서 주목할 것은 전구(傳舊)(奎, 古 3428-290)이다. 不分卷 11책이며, 필사본이다. 권수제나 권미제 등은 없다. 序文은 청나라의 문인 曹江이 1828년에 지은 것으로 책4의 앞머리에 제목 없이 수록되어 있

다. 대체로 창작 연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詩’ 3책, ‘文’ 3책, ‘碑誌’ 2책, 그 외에 ‘疏筭’, ‘抄啓應製’, ‘雜著’ 3책으로 되어 있다.

詩는 대체로 연행을 오가거나 관직에 부임하는 길에 지은 것, 친지들과 수창한 것이 많다. 그 외에도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으로서 정조의 명에 따라 지은 것, 혜경궁 홍씨의 환갑 때에 지은 시 등 많은 양의 시가 실려 있으나, 濟州 관련 시는 없다.

文은 그의 언어에 대한 관심, 청나라 문인과의 서신 교류 및 서양에 대한 인식, 『주역』에 대한 경도, 象數學에 대한 관심, 祭文, 策題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외 ‘疏筭’는 순조대 이후의 것으로 사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抄啓應製’는 親試에서 치러진 賦 說 表 箋 策文 등을 싣고 있다. ‘雜著’는 천문 역학 등에 관한 글로 이루어졌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영인되었다.

전구의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10책 ‘抄啓應製’에 실린 ‘萬德傳’이다. 이는 1796년 4월에 초계문신들을 대상으로 친시가 있었는데, 정조가 시제(詩題)를 ‘萬德傳’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홍희준이 같은 해 11월 25일에 다시 응하여 三下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 내용을 모두 싣고 있다.

그 내용은 <제주 기생 萬德의 용모와 성품, 제주도에 기근이 들자 10여 년간 모은 재물로 도민들에게 재산을 희사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 일화를 서술하였다. 그 결과 제주 목사가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正祖가 그 공을 가상하게 여겨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上京하여 서울의 풍경을 살펴보는 것이었으며, 그 외에 금강산 유람이었다. 그녀의 소원 들어주기 위해 수의녀로 삼은 사실과 여인의 몸으로 큰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의 은혜를 칭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후원 · 기탁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전해집니다.

## 2021 기부

42회 만덕제 제관일동 강동철가족 강맹호 고 양금연(자 김용택) 고덕훈 제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고동린 고용석 고은 국 제로타리3662 제주지구 김만덕상수자회 김복순 김산 김상훈 김소진 김수영 김순겸 김연희 김영자 김은진 김재호 김정숙 김 추자 김태훈 김해김씨좌정승공파도헌공종문화 김향옥 김현숙 김형선 뉴스N제주 만덕라이온스클럽 박동심 박명순 박순영 박 순희 박윤경 백광익 사경행효자일동 서귀포수협 서울제주도민회장 강한일 성광경 성수열 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손유진 송 연희 신동아문구 신산머루협동조합 심주섭 김호진 안광성 양민희 양재열 양채운 예수영농조합법인 오승훈 오정희(40회만 덕제관모임) 윤진호정형외과 윤형준 이기조 이미란 이미선 이현준 일도공구 자매국수 장순철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전방은 정군태 정봉식 정상기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나운라이온스클럽 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제주문화원연합회 제주사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원장외 직원일동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조남희 조수아 조영숙 (주) 천마 (주)세화상회 (주)아인시스템 채기선 최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 지회 한라원 직원일동 한재월 행복드림비전센터 현동건 강맹호 현충언 홍지안

## CMS 기부

(주)부림종합건설 (주)씨니빌렌트카 (주)아성기술단 (주)우리방재 (주)한독카리스산전 강경필 강민수 강소빈 강수봉 강용철 강윤희 강지예 강희자 고남하 고병수 고복희 고석연 고수자 고안희 고애연 고윤권 고은재 곽민 김기문 김기태 김길리 김도훈 김두희 김미영 김미정 김병순 김복자 김부용 김상용 김상훈 김세영 김수안 김수용 김수정 김순미 김시우 김애영 김연수 김영 랑 김영선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용석 김은희 김재삼 김재훈 김정미 김정수 김정순 김조자 김종래 김종철 김준문 김진아 김창현 김추자 김치수 김치엽 김향선 김현주 김형미 류인덕 문관영 문미현 문양식 문정홍 문호진 박금남 박노혁 박동수 박미 경 박선미 박선영 박선희 박순희 박영은 박용호 박장서 박정호 박정환 박지영 박채은 반성진 백운길 변철환 서옥연 서은경 석보경 석주혜 성경숙 손숙자 송기명 송순이 송승환 송언주 송연희 송인순 신영수 신원식 신정수 안성옥 양미애 양수임 양영 창 양은하 양진영 양창진 양채운 양춘자 양하건 오명순 오명희 오영환 오형석 원영자 유미경 유태익 윤봉실 윤순복 윤용팔 이가영 이경미 이경희 이금실 이기호 이민형 이보영 이수정 이영철 이유경 이은아 이일순 이재성 이정자 이종례 이종수 이치 봉 이향숙 이회춘 이효인 임건희 임영옥 장상우 장정은 장혜련 전귀연 전윤하 전학봉 정경순 정명희 정미숙 정자향 조윤경 좌봉남 진춘자 차진광 최영순 최영화 최우혁 최은영 한강연 한보규 한승창 한인자 허순자 현길호 현말옥 현성우 현용해 홍경 여 홍경훈 홍명규 홍민표 홍석기 홍성만 홍성주 홍순길 홍순천 홍용기 홍혜경 홍혜진 황진이



재단  
법인

김만덕재단



김만덕기념관  
mandukmuseum.or.kr



1. 15 이도이동주민센터



1. 21 (주)천마 임·직원 일동



2. 3 남주식품



2. 3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2. 3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2. 3 조천읍 홀로사는 노인 가구



2. 3 건입동 행정복지센터



2. 3 제주만덕로타리클럽





2. 3 농협 제주지역본부



2. 3 제주양돈농협



2. 26 신산머루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 3 고양금원님 기부-건입동행정복지센터



3. 4 신장장애인협회 주간보호센터



3. 10 일도일동주민센터



3. 10 한라원 직원일동



3. 12 푸드마켓 애월 출범식 및 전달식





3. 1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4. 2 송연희 가족



4. 2 용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3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4. 5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3지역



4. 29 해능사신도회 봉사회



5. 4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노인복지센터



5. 6 사경행효자일동





5. 6 연화원



5. 6 연화원 -고봉식 작곡 책자 기증



5. 13 행복나눔푸드마켓



5. 25 기원정사 신도회 봉사회



5. 25 라이온협회 354-G(제주)지구



5. 26 건입동행정지원센터



6. 1 국제로타리클럽 3662(제주)지구



6. 1 예수영농조합법인 오정은, 한국어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6. 4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벨엘



6. 9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강한일



6. 11 행복드림비전센터 대표 강영아



6. 11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6. 15 연화원 원장 고병를 소장자료 기증



6. 24 제주웰빙영농조합 애월아빠들



7. 6 뉴스제주



7. 2 비자림봉사단





7. 1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고덕훈 회장



7. 13 구좌읍사무소



7. 13 대정읍사무소



7. 13 사랑나눔푸드마켓



7. 27 일도일동주민센터



7. 27 사랑나눔푸드마켓



7. 28 연화원 원장 고병를 소장품 전달



7. 28 연화원





7. 29 내도동노인회



8. 4 도두동행정복지센터



8. 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8. 10 제주소나이그룹



8. 10 이도일동주민센터



8. 10 삼양동새마을부녀회



8. 10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8. 13 흥익아동복지센터





8. 18 제주백혈병소아암협회



8. 18 여성긴급전화1366



8. 19 덕산문화재단



8. 19 정봉식 사장



8. 20 건입동주민센터



8. 20 서귀포수협



8. 31 애월읍사무소



8. 31 한림읍사무소





8. 31 구좌읍사무소



8. 31 한경면사무소



8. 31 제주시 1,040가구



9. 1 서귀포시 680가구



9. 2 사경행효자



9. 4 만덕라이온스클럽



9. 7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7 조천읍사무소





9. 9 용담이동주민센터



9. 11 만덕로타리클럽



9. 14 선도원 뱌뵐



9. 14 송죽원



9. 15 제주금융협의회



9. 15 조천적십자봉사회



9. 15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9. 25 양상철 작가 작품 기증





9. 30 사랑, 행복나눔푸드마켓



10.5 김만덕상수상자회



10. 14 연화원 원장 정동벌립 기증



10. 21 광주 대인시장 천원의 행복 해드는 식당



11. 23 제주나눔라이온스클럽



11. 23 만덕라이온스클럽



11. 6 정상기 작가 작품 기증



11. 25 대정읍장애인지원협의회의



## 제5회 김만덕주간 나눔데이





##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

# 김만덕기념관



2015년 5월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갑인년(정조19년) 대흥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제주민을 살린  
김만덕의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녀의  
도전정신과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념관입니다.  
<http://www.mandukmuseum.or.kr/>

**3층 상설전시실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였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도전-나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

**2층 나눔실천관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눔의 실천을  
체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1층 나눔문화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 恩光衍世 편집후기

이번 호에서는 김만덕을 기록한 정조실록, 일성록 등 관찬사료를 한양에 도착한 시점(혹한과 대설)의 창덕궁과 구성하니 새삼 국왕의 권위가 느껴 집니다. 추운 날씨에 내의원 건물을 찾느라 다리품을 팔았는데 인절전 바로 옆이었고 의녀복식과 어울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규장각이 있었던 정합루 후원의 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채제공은 실학을 후원하고 이가환(중농학파)은 성호 이익의 가문이고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하였으며, 박제가(경세치용파)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고, 김정희(실사구시파) 등 대학자들의 실학정신과 김만덕정신은 참 조화롭습니다.

정조의 애민정신이 살아있는 창덕궁, 화성과 장능에는 유난히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김만덕의 벼슬은 차비대령 행수의녀로 조선여성으로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차비대령'까지 붙여 놓으니 역마에 배를 내어주어도 상소 올릴 명문을 없앤 정조의 배려가 깊습니다. 노기, 과부, 기녀, 기생, 의녀, 여협 등 대신들도 오락가락 합니다. '환갑의 독신여성 게다가 부자이고 의협심까지...' 조선 사대부에게 몹시 생경했을 것 같습니다. 이가환도 '기녀(奇女)'라고 했는데 '뛰어난 여성'이라는 뜻이죠. '만덕'이름만 호칭해도 큰 결례, 노비나 그리 불렀는데 '만덕제' 봉행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만덕기념관' '김만덕상'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묘를 돌아보았습니다. 채제공은 사후 20년간 삭탈관직되어 현재 자리에 묻혔는데 두 분의 부인묘는 안산에 있고 조선의 재상 묘라고 하기엔 적막해보였습니다. 이가환의 안산 문중 묘는 공단에 밀려 이익을 제외한 모두가 원주의 가파른 산에 비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제가는 서자라서 성남 문중 묘 언저리에 있다가 사후에도 차별에 후손이 발길을 끊었나 망실됐습니다.

그래도 김만덕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제주사회에서 덕망있는 여성재판들이 일주일을 연습하며 도백(道伯)과 함께 매년 제를 올려드리니까요.

### '김만덕 사랑의 쌀' 후원 안내

김만덕재단에 후원한 기부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과 국내외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 예금주 재단법인김만덕재단

농협 301-0278-3988-01 제주 01-01-347605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 恩光衍世

편집인 김상훈(김만덕기념관 관장)  
진행 박민, 김창현, 전학봉, 김미영, 김세영  
사진 신익재, 전학봉 외  
교정 김세영, 김옥선  
제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2020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 (재)김만덕재단  
발행인 양원찬 이사장  
발행일 2021. 12. 3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www.mandukmuseum.or.kr](http://www.mandukmuseum.or.kr)



# 恩光行世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재)김만덕재단과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져 모두가 어렵지만  
김만덕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2022 임인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